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리승엽 선생

2 호 1월31일

근로자 一九五0년 제二호 로동신문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제2호 (48)

1950년1월31일

내 용

조선 인민군 창건 二주년에 제하여

오늘 조선 인민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장엄한 투쟁속에서 조선 인민군 창건 二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조선 인민군은 우리 공화국의 튼튼한 성벽이며, 인민들이 쟁취한 민주 성과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유로운 생활을 고수하는 조선 인민의 강력한 무장력이다.

조선 인민들은 세계 약소 민족의 해방자인 영웅적 쏘베트 군대의 힘에 의하여 일제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된 후 위대한 쏘련의 우의적 원조와 조선 인민의 수령 김일성 장군의 옳바른 령도 밑에 우리 조국 북반부에서 진정한 인민 정권의 수립과 세기에 빛나는 민주 개혁들이 실시된 정치 경제의 민주주의적 개혁의 기초위에 조국의 자주권과 인민의 자유 행복을 옹호할 인민의 무력을 창건하였으며 그는 장성 강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조선 인민군은 탄생이후 二년간에 장성하고 발전된 장대한 자기의 면모로써 영예롭게 조국과 인민앞에 검열받으며 자기의 위력을 내외에 시위하게 되었다.

오늘 조선 인민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주독립을 위한 정당한 투쟁 가운데서 인민군대를 필승의 무력적 담보로 보고 있으며 더우기 반동의 가혹한 팟쇼적 탄압과 폭압 테로 학살의 조건밑에서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영웅적 구국투쟁에 궐기한 공화국 남반부 인민들은 인민군대를 자기의 완전한 해방의 결정적 력량으로 바라보면서 더욱 고무 격려되고 있다.

조선 인민군은 자기 대오의 정치 사상적 무장, 군사 기술적 무장, 규률 및 기타에 있어서 완전히 정규화된 현대적 군대의 면모를 완비하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 대렬에 각 병종 부대들을 갖추었으며 그들은 새로운 현대적 무기로 장비되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제一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 기술의 경이적 발전은 현대의 전쟁의 면모를 일신케 하였다.

군대는 과거에 보지못하던 각 병종을 가지게 되었으며 비행기, 땅크, 함선, 화학 무기, 특히 근래에 와서는 로케트포, 로케트 비행기, 무전 탐지기, 각종 자동무기, 원자력 무기 등, 새로운 무기의 출현을 보게 되였다. 군사 기재의 발전에 따라 현대전은 그 군사 행동의 규모가 비상히 확대되었고 전투 행동은 고도로 기계화된 각 병종의 협동동작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위대한 군사적 실제가이며, 군사 리론가인 쓰딸린은 「군대는 현대적 무기 없이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또 「현대 전쟁은 발동기의 전쟁이다. 발동기의 생산에서 압도적 우세를 전취한 자라야 전승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현대전의 이러한 특성은 군대의 최신식 무기로의 무장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인민군대의 각 병종 부대 즉 보병, 포병, 땅크부대, 항공부대, 해군함대, 공병, 통신병, 및 기타 병종들은 정밀하고 위력있는 최신식 기술로 장비되었다. 조선 인민군은 가장 위력있는 최신식 무기로 장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군무자들은 자기 무기와 모든 군사 기재의 구조와 성능에 정통하여 어떠한 전투 환경에 있어서라도 그의 전투적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무기를 만져보지도 못한 조선로동자 농민——근로인민의 자제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선진적 애국 사상을 남김 없이 발휘하면서 훈련과 학습 및 경비 사업에 모든 열성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결과는 오늘 인민군대 경비대 전사들이 자기 무기의 능수로 되었으며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로운 지휘관들이 자기 부대를 능숙히 지휘하여 각 병종간 및 중강 기재들과의 협동 동작을 조직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된 것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인민군대 경비대 내에서는 수 많은 백발 백중의 명사격수들과 군정 학습에 우수한 모범 군무자 및 모범 구분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인민 군대가 장성 강화되는 사실적 모범은 그의 정치 사상적

무장에서도 볼 수 있다. 선진적 애국 사상과 과학적 선진 사상에 기초한 군인들의 고상한 정치적 상태는 경상적인 전투 준비와 그의 제고의 기본 토대로 된다.

어떠한 군대든지 그가 단지 우수한 무기로만 장비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옳은 정치 사상적 무장이 없다면 그것은 야만적 무장 집단(集團)에 불과할 것이다. 이것은 멸망한 파쑈스트 히틀러 군대나 강도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서 이미 보아온 것이며, 또한 오늘 세계 제패에 날뛰는 미 제국주의 군대와 리승만 괴뢰도당의 살인도구인 소위 「국방군」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인민 군대는 현대적 무기로 장비된 동시에 사상적 통일과 견결성과 용감성으로 자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울 선진적 애국 사상과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무장되고 있다. 전체 군무자들은 자기의 사상적 정치적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부대 내에서 전개되는 정치 문화 교양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민군대 군무자들은 선진적 과학 사상과 리론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회 발전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조선 인민과 세계 민주 진영의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고 있다.

전체 군무자들은 누구를 위하여 복무하며, 무엇때문에 싸우는가를 똑똑히 알고 있으며, 누가 우리의 벗이고 누가 원쑤인가를 명백히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투 마당에서 영웅성을 발휘하며, 어떠한 곤난과 원쑤 앞에서도 굴할 줄 모르며 조국과 인민으로부터 맡은 자기의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강철같은 자각적 규률을 더욱 강화하고 자기 대오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어떠한 군대를 물론하고 군대에는 반드시 규률이 있으며, 그것은 군대의 생명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규률에는 고상한 애국심과 사상성에 기초한 자각적 규률이 있는 반면에 억압과 강제로써 유지되는 맹목적 강제적 규률이 있다. 조선 인민 군대의 규률은 물론 전자에 속하는 것이다. 상관은 부하를 육신의 애정으로 사랑하며 부하는 상관을 충심으로 존경하면서 그 명령 지시를 성심 성의로 실행함으로써 상하가

동지적으로 친목하고 단결되어 있다.

인민군대 경비대가 현대적 무기로 장비되었고, 고상한 정치 사상성으로 무장되었고, 강철같은 자각적 규률로 공고화됨으로써 강력한 전투력을 소유하였다는 것은 三八 이북을 침해하려고 한 리승만 매국도당의 소위「국방군」경찰대들을 격퇴하는 三八접경의 실지 투쟁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작년 一월부터 十二월 十五일까지 사이에만 하여도 미제의 사수와 미제의 직접 지휘하에 리승만 매국도당는 一천 八백여회에 걸쳐 六만여명의 소위「국방군」과 경찰대를 동원하여 三八 이북을 침해하려고 책동하였다. 그중에는 七十여회에 걸친 비행기 불법 월경과 五十여회에 달하는 함선침입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흉악한 도발적 책동은 제때에 격파되었으며, 근 六천여명의「국방군」경찰대들이 소멸되었고 수다한 무기 탄약을 로획하였다.

조선 인민군이 창건 이후 짧은 기간에 이와 같은 거대한 발전을 보게된 것은 그가 위력한 력량의 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첫째로 인민 군대는 조선 인민의 아들 딸, 그중에서도 로동자 농민――근로인민의 자제들로 조직되었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싸우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이기 때문이다.

인민 군대는 자기의 어버이인 조선 인민을 위하여서는 자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바쳐 싸운다. 인민 군대는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 자기 부모들과 자기 자신이 직접 그의 혜택을 받고 있는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의 성과들과 인민에게「권리와 자유와 행복을 준 인민 정권을 보위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곤난과 희생이라도 겁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조선 인민들은 인민 군대를 자기의 혈육적 군대로서 그를 성심 성의로 원조하며 열렬히 사랑한다.

인민들은 인민 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 인민들은 자기의 산아인 인민 군대에게 무기, 피복, 직량, 기타 일체의 기재와 물자를 충분하게 그리고 제때에 공급하며, 군무자가족 원호 사업을 광범히 전개하며, 조국보위 후원회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한다. 이와 같이 인민에게

서 나왔고 그에게 뿌리박고 그를 위하여 싸우며, 그의 지지와 원조를 받는 인민 군대는 강화 발전되며 항상 승리할 것이다.

영웅적 쏘베트 군대의 무적의 위력 원천을 말하면서 쓰딸린은「붉은 군대의 혁혁한 승리는 무엇보다 먼저 그가 진정한 인민의 군대이며,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군대이라는 것으로 설명된다」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인민 군대의 위력의 원천은 그가 영웅적 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의 법적 계승자인 것에 있다.

인민 군대는 해방전에 있어서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반대하여 장구한 동안 가혹한 류혈 투쟁을 전개하여 온 우리 민족의 절세의 애국자이며, 조선 인민의 수령인 김일성 장군 항일 빨찌산 부대의 애국적 혁명가들을 골간으로하고 그의 선진적 애국 사상과 혁명 전통과 고귀한 투쟁 경험을 토대로 하여 창전되었다. 인민군대 군무자들은 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의 우수한 전통과 투쟁 경험을 연구하며, 그의 정신을 훈련, 학습과 경비 사업에서 발휘하고 있다.

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의 이름은 인민 군대 군무자들을 고무 격려하는 상징이며, 그의 빛나는 력사적 전통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계승 발휘할 데 대한 영예로운 책임감을 불러 일으키는 신호이다.

인민 군대의 위력의 셋째 원천은 그의 선진적 혁명적 애국 사상에 기초한 고상한 도덕적 기개에 있다. 자기 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규률 정신과 전투력을 강화시키며 어떠한 곤난하고 복잡한 투쟁 환경에서도 비길데 없는 용감성, 희생심, 영웅성을 발휘케 한다. 쓰딸린은「무엇을 위하여 싸우는 가를 아는 군대는 이를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인민 군대의 이와 같은 력량의 원천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정당한 투쟁에서 그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담보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민 군대는 승리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이것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위대한 쏘베트 동맹을 선두로한 세계의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 진영은 날이 갈수록 장성 강화되고 있으며 그와 조선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이 더욱 공고화되어 가는 데에도 있다.

세계 공화와 민주의 성채인 위대한 쏘베트 동맹은 이미 제二차 세계대전 과정에서의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고 쓰딸린적 제四차 五개년 계획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천재적 전략가인 쓰딸린의 령도하에 위대한 쏘베트 군대는 제二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 팟쇼 군대와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격파하여 인류를 파씨스트의 유린하에서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전 과정에서 더욱 강력 무적한 군대로 장성되였다。 위대한 쏘련의 원조 밑에서 중앙 및 동남 구라파의 인민 민주의 제국가에서는 거대한 정치 경제 문화적 건설이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민의 새로운 무력이 장성되고 있다。 특히 우리 조국과 린접하여 있는 중국 인민 해방군이 광대한 중국의 거의 전 지역을 해방시킨 사실은 현하 국제 민주력량의 강대한 세력을 충분히 시위하는 것이다。 또한 광범한 식민지 반식민지 약소 민족들의 해방 운동, 자본주의 제국가 내의 로동 운동, 특히 전세계 인민의 강력한 평화전선은 현하 국제 민주 력량의 거대한 장성에 대한 실증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를 선두로한 제국주의 강탈자들이 제아무리 전쟁 도발에 날뛰고 소위 「원자탄의 신화」로 세계 인민을 위협하여도 그들의 시도는 반드시 종국적 파탄을 보고야 말 것이다。

이와 같이 강대한 국제 민주 력량과 튼튼히 손잡고 나아가는 조선 인민의 무력인 조선 인민군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와 성과에 도취하거나 자만 자족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우리 조국은 아직도 통일되지 못하였으며,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미제의 사수를 받는 리승만 매국 역도들은 흉악한 동족 내란을 도발하려고 발광하고 있다。 놈들은 동족 내란을 도발하려는 준비로서 자기들의 소위 후방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갈망하는 남반부 인민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길에 들어섰다。 놈들은 우리 조국 남반부를 피바다로 잠그고 소위 「징병제」의 실시 「청년방위대」의 조직등으로써 공화국 남반부의 청년들을 동족 상쟁의 내란 도발 준비에 강제로 몰아내고 있다。 놈들은 자기들의 명맥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 보려고 파렴치하게도 소위 「유·엔위원단」의 간판밑에서

군사원까지 포함한 남조선의 일체 내정을 미 제국주의자들의 손에 내맡기고 있으며, 소위 「반공」을 떠들면서 우리 민족 철천의 원수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공공연히 결탁하는 길에 들어섰다。 리승만 매국 도당은 미제의 일본 재무장 정책을 받들어 왜놈들에게 쌀과 광석을 보내며 왜놈에게 소위 「대표」와 「록서」를 파견하는 등 온갖 광태를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전체 조선 인민들은 리승만 매국 도당의 매국 책동을 소탕 분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쟁취하기 위하여 장엄한 애국적 구국투쟁에 총궐기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우리 조국에 조성된 현정세하에서 오직 강력한 민주 기지를 축성하는 조건하에서만 우리 조국의 통일과 독립이 보장되며, 국토를 완정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각오하고 통일적 독립 국가 건설의 강력한 군사 정치 경제 문화 기지를 튼튼케 하는 치열한 증산 투쟁에 궐기하고 있다。

공화국 남반부 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은 공화국 북반부의 민주 건설에 고무 격려되면서 손에 정의의 무장을 들고 미 제국주의와 그의 주구 리승만 도당들을 반대하는 류혈의 애국적 무장 항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다。 또한 무장 유격 투쟁에 호응하여 남반부 각지의 농민들은 토지와 자유를 위하여 승만 도당들을 타도하기 위한 군중적 봉기에 궐기하고 있다。

국토 완정과 조국의 통일을 하루 속히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조선 인민들의 숭고한 투쟁에 있어서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사업은 오늘 특히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력량이 강할 때에만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조선 인민의 력량 가운데 있어서 인민 군대의 무력은 종결적 승리를 쟁취하는 가장 결정적인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 군대 군무자들은 물론, 전체 인민들은 자기의 무력인 인민 군대를 더욱 조제있고 훈 있고 전투력이 강한 군대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 인민의 계속적 투쟁과 그의 강력한 무력 앞에서 반동의 기도는 수치스러운 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조국의 통일 독립은 조선 인민 자체의 힘으로써 쟁취할 것이다。

김일성 장군 항일 유격부대는 조선 인민군의 전투적 골간이다

강 건

조선 인민들은 오는 二월 八일 자기와 조국을 보위하는 당당한 인민의 무력인 조선 인민군대 창건 二주년을 자랑스럽게 맞이한다。 조선 인민은 전체 애국적 민주 력량을 총 집결하여 조국의 완전한 통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장엄한 투쟁의 분결 속에서 빛나는 제반 민주성과와 함께 진정한 인민의 무력이며 조국의 성벽인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조선 인민 군대를 가지게 되었다。

청소한 조선 인민 군대는 창건 이후 적지않은 곤난들과의 투쟁 속에서 장성 강화되여 창건 二주년을 맞는 오늘 조국과 인민을 능히 보위할 수 있으며, 조직있고 규률있고 전투력이 훌륭한 강유력한 인민의 무장력으로 되었다。 이는 조선 인민의 또 하나의 승리인 것이다。

조선 인민 군대는 짧은 시일 동안에 가본주의 국가 군대에 있어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조선 인민 군대가 자본주의 국가 군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군대로서 그의 힘의 원천을 광범한 근로 인민들 속에 두고있는 인민의 군대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조선 인민 군대가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조선이 일제의 기반에서 해방된 후 쏘베트 정부와 쏘베트 군대의 사심없는 원조하에 발전된 우리 조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창건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과거 일제의 가혹한 탄압 하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김일성 장군의 지도 하에 항일 무장투쟁에 일생을 바쳐온 진정한 애국자, 혁명

가 빨찌산들을 골간으로하여 창건되었으며, 또한 일제와의 실제 무장 투쟁 속에서 얻은 그들의 많은 고귀한 경험 교훈을 토대로하여 창설되었으며, 그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군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민군대는 비록 그 창설의 력사는 짧다 할찌라도 실지에 있어서는 영용한 김일성 장군 항일 인민유격대의 장구한 혁명 전통과 투쟁 경험과 애국 정신으로 빛나는 력사적인 군대이다。

× × ×

조선 인민 군대의 조직자이시며 지도자이신 김일성 장군은 과거 만주에서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 투쟁의 초시기(一九三一년)부터 정치투쟁과 함께 무장투쟁을 전개하였고, 인민 군대 조직에 대한 고려를 심중히 하시었다。

김일성 장군은 맑쓰—레닌주의 학설을 누구보다도 투철히 학습하셨으며 특히 식민지 민족문제 연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조선 사회 발전의 력사적 성격과 사회 발전 방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당면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이미 조국 독립과 민족 해방을 위한 장군의 애국적 사상은 과학적인 체계위에 서게되었던 것이다。

김일성 장군은 조선, 민족 해방 운동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새로운 전망을 가지고 과거 조선 민족 해방 운동의 경험 교훈을 연구 분석하여 그 오유와 결함을 청산 극복하는 방향을 옳게 내세워 레닌—쓰딸린의 학설이 가르치는 길을 따라 민족해방 운동을 보다 높은 계단으로 발전시키기에 노력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의 가혹한 탄압이 조선 인민의 일체의 평화적 활동과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조선 인민의 반일 투쟁은 벌써 평화적 방법만으로써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반드시 무장 투쟁을 수요하게 되었다。

三·一운동, 六·十만세운동, 광주 학생 운동 등을 비롯한 우리 민족 해방 운동의 모든 경험은 일제 군사 경찰 제도를 전복함에 있어서는 정치적 운동만이 아니라 그와 병행하여 반드시 무장 투쟁이 필요하며 이것만이 조국 해방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뼈아프게 가르쳐 주었다。

김일성 장군은 맑쓰—레닌주의 학설에 근거하여 이 경험 교훈을 가장 정확하게 인식 파악하시었던 것이다。

맑쓰—엥겔쓰는 로동계급에게 그의 력사적 역할 즉 자본주의의 매장인으로서의 역할을 준비시키면서 자본주의 제도와 투쟁할 것을 가르쳤다。그들은 전체 인민들을 무장시키기 위하여, 인민 군대를 창설하기 위하여, 또 자본주의를 전복시킬 수 있는 무장 투쟁을 하기 위하여 투쟁 강령을 작성하였다。

맑쓰—엥겔쓰는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투쟁 강령의 한 부분으로서 근로 인민들이 무장해야 할 과업을 내세웠다。

맑쓰—엥겔쓰의 사업의 계승자인 위대한 레닌은 새로운 사회 계급이 주권을 장악한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군대, 새로운 규률, 새로운 군사 조직을 하여야 할 것을 가르쳤다。또 그는 이러한 것이 없이는 근로 대중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대들은 무엇으로든지 자립적으로 무장할 것이다。——장총, 단총, 폭탄, 칼, 몽둥이, 방화하기 위하여 석유에 적신 헌겁, 바, 또는 바로 만든 사다리, 바리케트 건축을 위하여 삽, 폭발물, 가시쇠줄, 못 (기병을 반대하여) 등등으로——어떤 경우에든지 타방이나 상부이나 외부로부터의 원조를 기대하지 말것이며, 모든 것을 자립적으로 달성할 것이다」(레닌 전집 제八권 三二七페지)

이와 같이 맑쓰—레닌주의는 진정한 자기의 군대, 자기의 무력이 없이 인민들은 자기의 자유와 독립을 유지할 수 없으며 강화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다。

쓰딸린은 그중 누구보다도 근로 인민의 무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이 말하였고 또 실지에 있어서 맑쓰—레닌주의적 군사 과학의 최고봉이며 완성자로 되었다。쓰딸린은 일찌기 一九〇五년에 전체 근로 인민들에게 대하여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무장이 필요하며 또 무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一九二六년 쓰딸린은 국제 공산당 집행위원회에서 중국혁명 전망에 대하여 「제국주의 렬강에 예속되였고 반봉건적인 중국에 있어 혁명투쟁의 우월성은 무장한 혁명력량이 무장한 반혁명과 싸우는 데 있다」라고 말하였으며 중국 공산당과 중국 혁명가들 앞에는 모든 힘을 다하여 혁명 무장 력량을 강화 발전시켜야 할 과업이 제기되였다고 하였다。

김일성 장군은 맑쓰, 엥겔쓰, 레닌, 쓰딸린의 가르침을 옳게 인식 파악하고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이 항일 무장 투쟁 단계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과학적인 판단으로써 통찰하였다。

김일성 장군은 맑쓰—레닌주의 리론과 조선 민족 해방 운동의 실천적 통일에서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에 있어서 광범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 결성 및 강력한 항일 무장투쟁의 로선을 호상 분리할 수 없는 긴밀한 련계위에 적을 최후까지 타승할 수 있는 기본적 무기로 간주하였으며, 여기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실천적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그리하여 一九三一년 김일성 장군은 몸소 강도 일제의 九·一八 만주 진공이 개시되자 농민 대중을 중심으로 조중인민(朝中人民)의 반일적 혁명 정세의 앙양 가운데서 반제 농맹, 청년 선봉대, 농민협회, 부녀단체등, 대중적 반일 단체를 조직 집결하여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을 강화하는 한편 직접 일제와의 무장 투쟁을 조직 령도하였다。

만주에 있어서의 김일성 장군 항일 인민 유격대는 처음 이와같이 하여 벌써 一九三二년초에 출현하였다。

또한 김일성 장군은 반일 무장 조직——조선 인민 군대 조직의 필요성을 一九三五년 자기가 친히 조직한 조국 광복회 十대 강령 속에서 다음과같이 명확히 지적하였다。

「三、일본군대 헌병 경찰 급 주구의 무장을 해제하고 우리 애국 동지의 행동을 원조하는 인민의 무장으로써 조선인의 진정한 독립을 위하여 싸울수 있는 군대를 조직할 것이다」

장군은 이 강령을 실지로 구체적 실천에 옮겼다。김일성 장군은 一九三四년에는 동만 반일 인민 유격대에 남만 반일 유격대를 통합하여 조선 인민 혁명군을 조직 령도하였으며 그후 一九三五년으로부터 一九三六년에 걸쳐서는 다시 만주에서의 완전한 통일적 무장 조직체인 대규모적인 동북 항일 련군으로 이를 발전시켰던 것이다。

김일성 장군 항일 인민 유격대는 처음부터 값이 인민 대중속에 뿌리박게 됨으로써 급속한 장성을 보게되었고 장군의 기묘한 전략 전술과 내원들의 영웅적 전투는 일제의 가장 큰 공포의 대상으로 되었다。특히 장군의 부대는 一九三五년 이후 전 만주를 종횡 무진으로 달리여 일제 강도놈들의 침략 행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그 위신과 명성을 내외에 떨치었다。

× × ×

그러면 무엇이 김일성 장군 항일 유격대로 하여금 이와같은 빛나는 승리를 가져 오게 하였던가?

그의 백절 불굴의 투지와 용감성은 어데서 나왔는가?

김일성 장군 항일 인민 유격대의 특성과 력량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김일성 장군 항일 인민 유격대가 인민들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들 가운데서 조직된 인민의 군대이였다. 근로 인민들의 리익을 끝가지 사수하는 항일 유격대이므로 인민 대중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옹호를 받고 있었다. 그리하여 인민들과는 견고한 혈연적 련결을 맺고 있었으니 인민은 김일성 장군 유격대의 토대이며 생명선이였다.

김일성 장군은 누구보다도 항일 유격대가 강한 적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며 계속 공고 발전하려면 인민과의 긴밀한 련결로써만 보장된다는 력사적 경험 교훈을 깊이 알고 있었다. 김일성 장군 유격대에서는 「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수 없으며,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 살수없다」 또 「대중조직은 유격대의 토―치카이다」라는 구호를 일상적으로 불렀다.

김일성 장군은 반일 애국적 인민들을 반제동맹을 비롯한 각종 대중 단체에 조직 집결시켰으며 一九三五년에는 재만 조선인 조국 광복회를 조직하였으며, 광범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 형성에 성공하였다. 당시 조국 광복회가 조직되자 얼마되지 않아서 그 산하에 二十여만의 방대한 인민 대중이 집결되었던 것으로써 얼마나 김일성 장군의 유격대와 로동사 농민들을 선두로한 애국적 인민들과의 련결이 튼튼하였던가를 알수 있다. 김일성 장군 항일 유격대는 실로 이와같은 방대한 반일 애국 인민들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들의 끊임없는 지지 옹호와 협조에 의하여 끝까지 싸울수 있었으며 또 싸우면 이길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김일성 장군 항일 인민 유격대는 맑스―레닌주의로 튼튼히 무장한 혁명적 무장부대이였던 것이다. 이 유격 부대는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삼고 나아갔다. 그들은 레닌―쓰딸린의 학설과 사상으로 교육되었으며 무장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곤난한 환경과 조건하에서도 승리를 확신하였으며 앞길을 내다보았다.

항일 유격대의 령도자 김일성 장군 자신은 레닌―쓰딸린의 학설과 사상에 가장 충실한 공산주의자이였으며 그의 유격대의 절대 다수의 간부

전사들도 모두 공산당원이였으며 또한 유격대의 지도적 리론과 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사상과 리론이였다. 이것은 그들에게 혁명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것은 동시에 그들에게 혁명에 대한 리익을 최고도로 보며, 근로계급의 철저한 해방과 리익을 위해 싸우며,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숭고한 혁명적 도덕성의 소유자로 되게 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계급의 리익을 위해, 민족 해방 사업을 위해, 주저없이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는 것을 최고원칙으로 삼았던 것이다.

당원들은 김일성 장군 항일 유격대의 단결과 규률 문제를 높은 원칙에서 보장하였다. 당원들은 유격대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놀았으며, 유격대의 전체 사업을 보장하여 주었으며, 당원들은 언제나 유격대의 핵심으로서 선봉적이며 모범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대원들은 당원됨을 가장 영광으로 여기었다. 당원들은 조국 광복회를 비롯한 각 대중 단체들속에서도 선봉적 역할을 다하였으며, 그를 유격무장 투쟁 주위에 결속시켰으며, 그중 우수한 분자들을, 유격대원으로 인입하였다.

김일성 장군 항일 유격대는 그렇기 때문에 원쑤와의 투쟁에서 용감하였으며, 강인성, 극기성, 백절 불굴의 투쟁성을 소유하였으며 일제와, 인민의 적에 대해서는 불타오르는 적개심과 증오심으로 가득찼던 것이다.

우리는 김일성 장군 항일 유격대에서 혁명적 도덕성의 표본을 볼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동지, 혁명자, 로동자, 농민을 위하여 복무하였다.

그들은 지위와 향락을 바라지 않았으며, 근로계급과 배치되는 온갖 타락적 사상과 행위를 배격하였으며 증오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최대의 혁명적 견결성과 기질만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최대의 용감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공명정대하며, 진리를 위해 싸우며, 진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을 무한한 영예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고도의 자각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다만 혁명의 리익만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적 리익과 탐욕으로써 남에게 무릎을 꿇고 비렬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혁명적 리익, 상급의 명령을 위해 언제나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일성 장군 항일 유격대가 싸운 시기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팟쇼의 검은 구름이 세상

을 뒤덮은듯한 시대이였다。 국내적으로 일제의 군사 테로적 압박은 거의 절식할듯이 혹심하였고 가혹한 착취는 피가 마르는듯 하였다。 더구나 일제의 무력 공세는 나날이 가혹하여졌으며 이와 동시에 국내의 친일파들은 일제의 조선지배의 영원성을 찬양 선전하던 때이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보아도 일본 독일 이태리의 소위「반공추축」진영의 공세가 심하여질 때이였다。

이와같은 시기에 있어서 조선 인민들을 혁명의 불길과 투쟁의 신심으로 고무 격려하는 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의 승리적 투쟁 진출에 당황한 일제는 이 혁명적 부대를「소탕」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하였던 것이다。 일제는 대군의 병력과 경찰력을 집결하여 무력적으로 진공하는 한편 소위 집단 부락을 조직하며、 인민들의 통행을 금지하며、식량 기타 일용품의 운반을 엄격히 금지하여 인민과 유격대와의 련결을 중단하려고 발악하였으며、다른 방면으로 빨찌산을 와해시킬 목적으로「공작반」「선무반」을 조직하여 악선전과 퇴폐적이며 음탕한 소설 시 등을 산포하며 귀순 공작을 해보려고 했으며、간첩들을 파견해서 음료수등에 독약을 탔으며、지어 스파이를 유격대 내에 잠입시키려고 까지 하였다。 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는 이와같은 조건 밑에서 건군(建軍)하는데 있어서 무기를 적의 손에서 빼앗아 자기를 무장해야 하였다。 빨찌산들은 이 사업을 성과있게 실행하였다。 빨찌산들은 초가에 있어서 방명이와 고추가루、숙탄과 겹총으로써 원수와 대적하였다。 이와같이 어려운 가운데서 능히 자기의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음은 그들이 보통사람이 아니라 혁명적 사상과 불붙는 조국애를 가졌으므로 가능하였다。 이와같은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은 맑쓰—레닌주의로 무장하였으며、레닌과 쓰딸린의 가르침에 시종 일관 충실하며、맑쓰—레닌주의 리론과 방법으로 문제를 민첩히 관찰하며、현실을 인식하며、사회와 사물의 발전 방향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김일성 장군은 맑쓰—레닌주의 정치 교양 사업을 언제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아무리 험난한 행군에도 책만을 전문으로 지고 다니는 대원이 있었다。 가는곳마다「행군 도서관」이 개관되어 혼자 연구도 하고 집체적 독서회도 조직되었다。 어둑컴컴한 밀림의 병막 속에서도 장군과 대원들의 정치 학습는 계속되었고 격렬한 전투사이에도 사상 교양을 높이기 위한 학습은 계속되었으며、험한 바위를 넘는 행군 가운데서도 조국 해방

을 위한 부대의 사상 훈련은 끊임없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맑쓰—레닌주의로 무장되어야만이 투쟁의 진로를 알수 있으며、부대의 높은 규률과 사상성을 보장하며、투쟁의 신심을 보장한다는 것을 장군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맑쓰—레닌주의를 지침삼은 김일성 장군이 지도하는 유격대와 기타 단체에서는 조선 민족 해방운동 진영 내부를 좀먹고 있던 소위 종파투쟁을 완전히 청산하였으며、또한 내부의 조직적 혼란이 조금치도 없는 명실 공히 조직적 순결성과 대오의 사상적 정치적 통일성을 반석같은 토대위에 구축하였으며、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였던 것이다。

부대의 공고한 단결과 고도로 되는 자각적 규률은 김일성 장군 항일 유격대의 자랑이였다。 그것은 철석같이 굳은 단결일 뿐만 아니라 따뜻한 피가 서로 통하는 친밀한 단결이였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피로써 맺은 단결이였고、목숨을 어바꾸는 단결이였다。 유격대의 규률는 특별히 엄격하였다。 전사들은 자기 지휘원의 명령을 법으로 인정하였다。 그들은 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였다。 간부는 대원을 지극히 사랑했고、대원들은 간부를 무한히 존경하였다。 간부와 대원사이、대원과 대원사이는 항상 절대적인 신뢰감과 존경심으로 맺어져 있었었다。 이러한 단결는 유격대로 하여금 실로 백배의 힘을 더하게 하는 것이였다。 김일성 장군은 자기 전우들과 부하들께 언제나 이신작칙(以身作則)하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 일상 사업에서나 전투에서 모범을 보이었다。

김일성 장군은 실로 인민의 태양이였고、지도자이였고、명철한 선생인 동시에 친근한 벗이였다。 김일성 장군 항일・인민 유격대의 단결은 김일성 장군을 령도자로、한 확고부동의 단결이였다。 장군의 포용력과 애정은 태양같이 빛나고 있었다。 장군의 주위에 뭉친 대원들의 장군에 대한 신임과 복무심、헌신성은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사양치 않았으며、죽음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는 숭고한 의지의 소유자로 되게 하였으며、상부의 명령이라면 언제든지 달게 죽을 것을 각오하는 높은 애국심으로 특징짓게 하였다。

이와같이 필승의 맑쓰—레닌주의의 선진 과학 리론과 사상으로써 철저히 무장된 김일성장군 항일 유격대는 불타는 애국사상과 강철같은 규률로써 어떠한 곤난한 시기에 있어서도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十五년 동안이나 영웅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로 김일성 장군 항일 유격대의 승리의 또 하나의 원천은 적의 력량을 옳게 분석하고 그것에 알맞는 전략과 전술을 사용한 그것이다。

쓰딸린 대원수는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항상 작용하는 동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一、총후의 견고、군대의 도덕상 기개、사단의 수효와 바탕、군대의 무장、군대지휘관 성원의 조직자적 수완」이라고 하시였다。

장군은 항일 유격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유리한 조건들과 불리한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유리한 조건으로는 첫째로 김일성 장군이 항일 무장 투쟁을 개시한 간도(間島) 지대는 일찍부터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책원지의 하나이며、장구한 혁명적 투쟁에서 단련된 군중을 가지고 있었다。일제의 압박과 착취에 못견디어 만주로 쫓겨간 조선 인민들은 일제를 뼈에 사모치는 불구대천의 원쑤로서 극도로 미워하였다。그리하여 일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독립을 찾으려는 열렬한 애국 청년들은 용감하게、련속적으로 빨찌산 부대에 집결되었으며、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는 항상 이같은 반일적 애국 인민 가운데 조직적 힘을 깊이 뿌리박고 자랐던 것이다。

둘째로 만주의 자연적 지리 조건이 유격전에 유리하였다。광활한 만주 벌판은 종횡무진의 활동을 보장하였으며、준엄한 산악지대와、전인미답의 밀림 지대는 천연의 성채이며 자연의 요새이었다。이러한 유리한 자연 조건들은 항일 유격 운동의 장기적 투쟁을 가능케 하였다。

셋째로 만주는 위대한 쏘련과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것이다。十월 혁명을 완수하고 외국 무력 간섭자들과 국내 반혁명군을 반대하는 가열한 투쟁에서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한 위대한 쏘련의 령토와 인민들과 직접 린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에 거대한 정치적 영향을 주었으며、그를 고무 격려하였다。

넷째로 김일성 장군 빨찌산부대는 중국 인민과의 항일련합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었다。중국 인민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침략 당한 민족으로서 공동한 적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조선 인민이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인민이였다。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장군은 중국 인민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조중 량국 인민의 공동한 적은 일

본제국주의자요、조중 량국인민들의 식민지 노예의 불행도 일제놈들 때문이며、우리들을 교활한 정책으로 리간시키려는 것도 일제놈들이라는 것을 해설하였다。그리하여 장군은 공동한 적 일제를 타도하기 위한 조중 량국 인민의 항일 련합 전선 형성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만주에서의 유격전이 이러한 유리한 조건이 있는 반면에 곤난하고 불리한 조건들도 있었다。그것은 첫째로、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는 투쟁에서 단련된 혁명적 군중 및 혁명적 군중단체의 지반을 가지고 그의 지지는 받았으나 튼튼한 경제적 토대를 가진 후방을 가지지 못하였다。락후한 경제형편과 일제와 토착 지주들의 가혹한 압박 착취밑에서 인민들의 생활은 파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무기는 물론 식량 피복 기타 물자들을 후방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었다。

둘째로는 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무장적 원조를 받지못하였다는 것이다。

과거의 어떠한 세계 유격 전사를 보더라도 그는 대개 자기 본국에 정규군대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 원조가 있어서 무기와 물자의 원조를 받는 것이 보통인 것이다。그러나 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에 있어서는 시초부터 사정이 달랐다。

당시 조선에 있어서 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를 원조할 다른 무장부대가 없은 것은 물론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에 있어서 무기와 물자의 유일한 공급은 오직 일제 군대의 무기를 탈취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장군께서는 알찌기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맨 처음에 우리에게는 아무 무장도 없었다。우리는 모든 것을 피로써 빼앗았고 피와 바꾸었다。우리가 가진 어느 총 한자루、칼 한자루에 우리 동지들의 고귀한 피가 묻지않은 것이 없다。그러나 이러한 조건 밑에서도 우리는 끝끝내 싸우고 또 이겼다」

셋째로는 적이 강대하다는 것이다。

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가 상대한 적은 군국주의 일본의 최 정예부대라고 자랑하던 소위 관동군과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대였다。

김일성 장군은 이러한 모든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들을 타산하면서 객관적 정세의 발전과 내부 력량의 강화로부터 제기되는 요구에 의해서 동만 각지에 항일 유격구를 건립하게 되었다。

당시 장군은、항일 유격구를 창설하면서 다음과

같은 목적들의 달성을 예견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항일 유격구를 창설함으로써 혁명적 군중을 무장적으로 훈련하며 빨찌산 투쟁 대오의 앞으로의 확대 발전에 요구되는 수많은 군사 정치 간부를 양성할 수 있었다.

둘째로 항일 유격구의 창설은 당시 근거지가 없어서 류랑하던, 만주 「항일 구국군」과의 항일 무장련합 전선을 형성하는 련접점을 조성하였다. 「항일 구국군」은 동만 및 남만에 있는 것을 도합하여 약 十만을 산하는 무장 대오였으나 그의 반일적 투쟁성과 조직성은 미약하였으며 특히 그의 일상층은 동요하였음에 불구하고 당시에 있어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력이었다. 그렇기때문에 김일성 장군은 이러한 항일 무장대오와 련합 전선을 지었으며 이 련합 전선 형성에 있어서 항일 유격구는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셋째로 빨찌산 근거지는 치렬한 투쟁에서 피로한 유격대원들이 휴식할 수 있으며, 또 특히 그들의 장기간의 군사 정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였다.

넷째로 항일 유격구는 빨찌산 운동의 통일적 령도 기관을 보장하여 사업의 전반적 발전을 기할 수 있게 하였다.

항일 유격구 내에서는 토지는 농민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정권 기관도 인민의 손으로 건립되었다. 항일 유격구에는 군정 학습을 위한 학교와 병원, 통신처, 피복창, 지어 연길 유격구에는 「연길 폭탄」으로 이름난 특수한 폭탄 공장까지 있었다.

이러한 항일 유격구는 훈춘(향거우), 왕청(나재거우 소왕청 대왕청), 연길(와우거우 싼도만 도목구), 화룡현(얼뜨거우 안또) 등에 수많이 설정되었다. 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는 이러한 근거지를 가지면서 적은 대오로부터 대부대로 장성강화되었다.

九•一八이후 만주에 있어서의 이와같은 유격전투는 명실 공히 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특히 북만 일대를 무대로 역시 활약하고 있던 김책 최용건 동지들과 련락을 갖게 됨으로써 만주에서의 반일 유격 투쟁은 더욱 승리적 역할을 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장군은 만주 각지에서 계속하여 일어난 반일 유격대 활동에 비추어 반일 무장 투쟁 통일 운동을 제기하였다. 장군은 一九三四년 말에 동만 반일 유격대를 인민 혁명군으로 통일 개편하여 령도하였으며, 그후 一九三五년으로부터 一九三六년에 걸쳐서는 다시 완전한 통일적 무장 조직체인 동북 항일 련군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의 창건 초기에 있어서 원쑤들은 과거의 조선 인민들의 항일 운동의 경험에 비추어 그를 과소 평가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처음에 있어서 만주 항일 구국군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하였으며, 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에 대해서는 一〇〇—二〇〇명의 소수 병력으로써 공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 이르러 원쑤들은 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를 이미 과소 평가할 수 없게 되었으며, 놈들은 대병력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소위 「토벌」을 전개하게 되었다. 일제는 어떤 유격구에 대하여서는 수천명의 병력으로써 二〇—三〇일간에 걸친 장기전을 진행하였다. 특히 一九三七년 七•七사변후 일제는 무력을 증원하여 최후 발악적인 소위 군사적 「토벌」정책을 강화하게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으로 대항하였다. 즉 빨찌산 부대와 인민을 격리시키려는 「집단부락」 정책의 강화, 경제봉쇄, 정치적 공작——「면생단」을, 협조회(후에 협화회로 개칭)로 조직하는등——으로 빨찌산 부대의 와해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이러한 무력적 탄압과 간교한 술책은 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의 활동을 약화시킬 수는 없었다. 뿐만아니라 장군의 유격부대는 나날이 강화 발전되여 그의 군사적 력량은 이미 대부대의 운동전을 전개할 수 있는 전투적 부대로 강화되었으며, 원쑤들의 심장부에까지 들어가서 광대한 군중에게 정치적 영향을 주었으며, 그들을 쟁취할 수 있는 력량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밑에서 김일성 장군은 유격구에 국한한 협애한 지역에서 활동할 것이 아니라 더욱 광대한 지역에서 활동하여 군중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이 성숙하였음을 옳게 판정하고 새로운 투쟁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즉 장군은 광범한 지역에서 유격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적의 력량을 분산시키며 그를 피로케하여 적의 약점을 조성한 후 이를 리용하여 적의 부분적 부대들을 섬멸하는 전술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장군은 각지에서 유격대를 편성하였으며 광범한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동만 사현(四縣)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면 이때에 와서는 그외에 봉천 길림등을 비롯하여 집안, 장백, 무송, 몽강 림강 안휘 금천 통화 해룡 화전 돈화 영안 몽림 동영 교화 지어 장춘 부근에서까지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두만강 압록

강 대안의 조선 내부에 까지 활동 무대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김일성 장군은 현명한 전략 전술과 기략으로써 항상 일제를 전률케하였으며 혁혁한 무훈으로써 상승장군(常勝將軍)의 용명을 전동방에 떨치었다.

넷째로, 김일성 장군 항일 인민 유격대의 승리의 원천의 또 하나는 김일성 장군의 정확한 정치로선에 의하여 항일 유격대가 광범한 통일 전선의 기초위에 전렴된 데 있는바 김일성 장군은 이 통일 전선에 대하여 시종 일관하게 가장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다.

김일성 장군이 맑쓰—레닌주의 리론에 의거하여 내세운 조국 광복회의 十대 강령의 정치로선은 당시 조선 사회의 정격과 발전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선 사회 내의 모든 계급의 동향과 그 상호 관계를 가장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때까지 계속하여 내려오던 조선 민족 해방 운동의 모든 경험과 교훈의 평가위에서 나타난 결정(結晶)이였으며, 이 강령은 조선 인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의 기본 강령으로서 조선 인민의 행동의 지침으로 된 로선이었다.

당시 김일성 장군이 내세운 이 정치 로선이 가장 옳은 로선이었기 때문에 그 로선이 인민들의 리해 관계와 꼭 적합하였으며, 인민들은 이를 자기들을 자유와 행복에로 인도하는 옳은 정책으로 리해함으로써 그것을 적극 지지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하여 궐기하였다. 이런 사실들은 일제의 악독한 탄압 속에서도 반일 통일전선 단체인 조국광복회에 로동자 농민을 선두로한 각계 각층의 애국 인민들이 실로 二十여만이나 집결되었던 것으로써 넉넉히 알수있다. 김일성 장군 항일 유격대는 이와같은 광범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의 토대위에서 견결히 싸울 수 있었고 또 승리할 수 있었다.

김일성 장군의 정치로선의 정당성은 또한 맑쓰—레닌주의적 국제주의 로선에서도 볼수있다. 김일성 장군은 항상 프로레타리아트의 해방과 식민지 약소 민족 국가의 민족 해방 운동은 국제 민주 력량과의 튼튼한 련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김일성 장군은 처음 만주에서 혁명운동을 시작할 때로부터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손잡고 중국인민들과의 견고한 항일 련합 전선 결성에 노력하여 성공하였으며, 자기의 정치 투쟁과 무장 투쟁을 항상 국제 민주주의 운동의 일환으로써 전개하였으며, 쏘련을 선두로한 국제 민주 진영의 승리를 확신함으로써 국제 민주로선을 고수하였다.

더우기 김일성 장군은 위대한 쏘련과의 단결만이 우리 민족의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깊이 깨달았다. 제二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장군은 위대한 쏘련과 그의 영웅적 군대만이 팟쑈를 격멸하고 조선 민족을 일제의 기반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긴박한 신 정세에 조응하여 세계 민주 력량의 주력인 쏘련과의 국제적 련결을 강화하는 데 진력하였다.

이와같은 김일성 장군의 국제주의 로선은 조국광복회 十대강령 속에도 뚜렷이 표현되고 있었다. 즉 十대강령 十조에 「조선 민족에 대하여 평등적으로 대우하는 민족 급 국가와 친밀히 련합하며 우리민족 해방운동에 대하여 선의의 중립을 표시하는 국가 급 민족과 동지적 친선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국제주의 로선은 오직 맑쓰—레닌주의적 국제주의 사상에서만이 산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당시 김일성 장군이 내세운 옳바른 정치로선 가운데서 리론과 실천의 상호관계에 관한 유물 변증법적 통일의 모범을 볼수있으며, 따라서 맑쓰—레닌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조선 문제를 규정함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전통을 볼수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비록 간단하게나마 김일성 장군 항일 인민 유격대의 특성과 그 력량의 원천과 승리의 원인의 일단을 보았다. 그러나 이상의 중요한 네가지 특성은 서로 기계적으로 분리시켜 볼 것이 아니라 이 네가지가 호상 통일적이며 혈연적인 유기체로서 나타난 것이 김일성 장군 항일 인민 유격대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실로 우리 민족의 영예와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十여 성상이나 수에 넘치는 일제의 군대를 반대하여 해방의 그날까지 혁명적으로 싸워온 김일성 장군 항일 유격대야말로 유구한 조선 인민의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전통의 최고 형태이었으며, 따라서 조선 인민이 자기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가장 믿음성있는 인민군대의 상징이었다.

× × ×

조선 인민군은 김일성 장군 항일 인민 유격대의 고귀한 혁명 전통을 토대로 창건되었으며, 또 실지로 김일성 장군의 직접 지도밑에 창건되었으며, 또한 김일성 장군 항일 유격대에서 그와 함께 일생을 혁명적 유격 투쟁에 바쳐온 전정한 조선의 애국자 혁명가들을 골간으로하여 창건되

었다.

그러므로 조선 인민군은 명실공히 김일성 장군 항일 인민 유격대의 혁명 전통을 계승한 산아이다. 이와같이 훌륭한 김일성 장군 항일 유격대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한 조선 인민군대는 지금 김일성 장군의 지도를 받들고 함께 싸운 전우들과 그의 혁명적 부대원들에 의해 지도되고 있다.

실로 김일성 장군 항일 유격 부대는 조선 인민군대의 전투적 골간이다. 민족보위상 최용건 장군은 김일성 장군의 지도밑에서 김일성 장군과 함께 싸우던 전우이며, 김일동지, 최현동지, 김광협 동지등 수많은 항일 유격대의 혁명 투사들이 조선 인민군의 무력 강화를 위해 지금 조선 인민군에 복무하고 있다.

조선 인민군대가 김일성 장군 항일 유격부대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고 그들을 골간으로 조직된 사실은 조선 인민군대로 하여금 오늘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떤 시각에든지 원쑤를 소탕 분쇄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었으며, 인민들로 하여금 무한히 조선 인민군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다.

조선 인민 군대가 창전된지 불과 二년밖에 되지않으나, 김일성 장군 항일 유격대를 자거 골간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대에는 특징지어야 할 여러가지 점들이 있으며, 조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벌써 확고하게 가지게 된 것이다. 그것은 조선 인민 군대는 조직되는 첫날부터 누구를 위해 복무하며 누구를 위해 싸우며, 무엇을 위하여 투쟁한다는 것을 아주 똑똑하게 알고 있으며, 이 뚜렷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체 군무자들은 총궐기하는 것이다.

조선 인민군대의 군인 선서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다.

「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민으로서 조국 앞에 신성한 의무를 리행하여 조선 인민 군대에 입대하면서 나의 조국과 인민과 민주주의 인민정부에 나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할 것을 영예롭고 위대한 선조들의 이름으로 엄숙히 맹서한다.

나는 인민의 뜻으로 창건된 민주제도를 헌신적으로 충실히 수호하며 나의 힘과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모든 적들을 반대하여 손에 무기를 잡고 나의 조국과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방위하기 위하여 항상 준비되어 있을 것을 맹서한다」

군인 선서에 명시된 군인들의 과업의 기본은 곧 빛나는 김일성 장군 항일 빨찌산 부대의 기본 과업이었으며, 그들은 그것을 위해 十여년간 피어린 투쟁을 해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인민 군대는 조직된 첫날부터 전체 군무자가 한사람 같이 정치적으로 단결되어 유일한 신념위에서 조국과 인민이 부과한 신성한 임무를 실현하기 위한 강철의 부대로 된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보위하며,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 국가를 위하여 싸우는것, 이것이 인민 군대가 생활력이, 강하며 그것이 우월한 특징이다. 그것은 조선 인민 군대는 근로인민의 아들과 딸로써 조직되었으며, 그들은 선진적 사상으로써 무장한 군대로 된 그것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를 해방시켜 준 은인인 위대한 쏘베트군대와 그의 지도자 쓰딸린 대원수에 대하여 항상 극진한 감사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맑쓰레닌주의 학설을 우리는 자유로이 연구하며, 지금 우리 군무자를 국제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인민 군대는 조국을 침해하는 미 제국주의자를 증오하며 그의 앞잡이인 매국 역적 리승만 도배를 타도 분쇄할 불붙는 적개심으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제국주의 무장간섭자들을 타도 분쇄하고 또한 파쑈 독일과 일본을 타승한 인류의 해방자 쏘베트 군대의 쓰딸린적 군사학을 성심으로 연구하며, 그의 리론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 선진적 백전백승의 과학을 연구하며, 배웠기 때문에 우리 인민군대는 현대·작전을·능숙히 진행할 수 있는 전투력이 강한 부대로 되고 있다.

그것은 조선 인민 군대의 강철같은 규률로써도 볼수있다.

군인 선서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있다.

「나는 청직하고 용감하고 규률있는 군인이 되며, 군사 비밀과 국가 비밀을 엄수하며, 모든 군사규정과 지휘원과 장관들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수행하며, 군사학을 성실히 연구하며, 인민의 재산과 군대 재산을 백방으로 애호 보위할 것을 맹서한다」

조선 인민군대의 강철같은 규률은 매개 군무자들의 조국과 인민을 위하는 정치적 자각성 위에 전립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군무자는 장급의 명령을 법으로 인정하며, 그 명령을 절대적이며 정확하게 기한 내에 수행하도록 교육되어 있으며, 또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상관은 부하를 지극히 사랑하며, 그들의 곤난, 그들의 요구를 제때에 책임지고 해결해주며, 매개 군무자들의 발전을 위해 성실하고 친절하게 교육하여 주기 때문에 군무자들은 언제나 장관을 지극히 존경하는 것이다. 높은 정치적 단결성 위에 우리 인민군대의 규률는 강철같이 보존되고 있으

더 날로 공고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민 군대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같은 특성은 전투력을 제고하는 사업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전사들은 전술, 사격, 제식, 체육 훈련에서 열성적으로 노력한 결과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난관에서든지 능히 그를 극복하고 자기 전투임무를 완수할 줄 아는 전투에 능숙한 전사로 되었으며, 하사관은 전사들을 교육 훈련하는 사업에서 군관들의 가장 친근하고 충실한 보조자로 되고 있으며, 군관들은 부하를 교육 훈련하고 관리하며 어떠한 전투 환경에서도 부대를 지휘하며 각 병종과의 협동 동작을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 인민군대는 지금 조국과 인민의 부름에 따라 어떤 시각에든지 동원되어 전투 임무를 성과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전투력있는 강력한 군대로 되었다.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조선 인민군대는 조선 인민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조선 인민들은 자기의 군대로서 물질, 정신면으로의 원조를 아끼지 않으며, 우리 군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로 있는 힘을 다하며, 남조선 애국 인민들과 그의 유격대는 조선 민족의 해방의 군대로서의 조선 인민군대의 장성 강화에 고무 격려되며 더욱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 인민군대가 만일 김일성 장군의 빛나는 빨찌산의 전통을 계승하지 않았다면, 빨찌산 부대를 자기의 골간으로 하여 조직되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이 튼튼한 군대는 장성 강화될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 조선 인민 군대는 자기의 조직자이시며 조선 민족의 경애하는 령도자이신 김일성 장군 주위에 강철 같이 뭉치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맹세하면서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실로 김일성 장군 항일 유격 부대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한 우리 인민군대는 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의 혁명 투사들의 핵심적이며 모범적인 지도에서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서 자기에게 부과된 력사적 사명에 충직한 인민의 군대로 발전하게 되였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시기에 있어서의 무력의 강화에 대한 레닌—쓰딸린의 학설

김 일

一、

맑쓰와 엥겔쓰는 사회 발전의 근본적 원인들과 객관적 법칙들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맑쓰주의는 사회 생활에 대한 법칙을 과학적으로 파악케 한다. 그러므로 오직 맑쓰주의만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 사건들을 리론적으로 인식하며 개괄할 훌륭한 가능성을 준다. 이것은 전쟁과 군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맑쓰와 엥겔쓰는 진정한 군사 과학의 창조자이며 시조이다. 맑쓰와 엥겔쓰 이전에 있어서 군사 문제는 과학으로 되지 못하였다. 맑쓰와 엥겔쓰는 당시의 모든 전쟁과 혁명의 력사적 사건들을 연구하고 그를 비판적으로 일반화하였다. 이것은 맑쓰주의적 군사 리론을 창건하는 데 훌륭한 기초들로 되였다.

엥겔쓰는 특히 군사 문제에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는 군사 문제와 전쟁 발전에 관한 심원한 력사적 로작들을 저작하였으며 인류 력사에서 처음으로 프로레타리아트에게 복무하는 군사 과학을 창조하였다.

엥겔쓰는 전쟁의 계급적 본질과 군대의 발생원인 및 그의 계급적 본성을 해명하였다. 맑쓰와 엥겔쓰는 긴밀한 협력밑에서 八十여개의 군사론문을 저술하였는바 그의 대부분은 엥겔쓰가 출판하였다. 맑쓰와 엥겔쓰는 전쟁을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인 력사적 면과 정치적 면을 고찰하였으며 모든 군사 문제를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의 학설에 종속시켰다.

맑쓰와 엥겔쓰는 사회적, 력사적 현상으로서의 전쟁에 관한 정확한 해명을 주었으며, 그의 합법칙성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전쟁과 군대에 관한 학

설은 맑쓰와 엥겔쓰에 있어서 최고봉에 도달한것은 아니었다。

맑쓰와 엥겔쓰는 군사 리론과 전쟁문제에 관한 자기의 저작들에서 비록 거대한 공적을 남겨 놓았으며 프로레타리아 군사 사상의 기본적 토대를 닦아 놓았으나 당시의 력사적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한 프로레타리아트와 사회주의 국가를 그의 원쑤들로부터 방위하기 위한 군사 과학, 군사 기술, 무력 창건에 관한 전반적 문제들을 심원하게 연구하지는 못하였다。 이 임무는, 맑쓰—엥겔쓰의 가장 친근한 제자이며 그들의 계승자인 레닌—쓰딸린에 의하여 완수되었다。

레닌—쓰딸린은 맑쓰주의의 다른 모든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로레타리아 군사 과학에 있어서도 맑쓰—엥겔쓰의 학설을 정통적으로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새로운 력사적 환경에서 앞으로 발전시켰다。

레닌과 쓰딸린은 제국주의 단계에 있어서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가능에 관한 학설로부터 출발하면서 맑쓰와 엥겔쓰의 군사 사상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시기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를 보위할 무력 강화에 관한 학설과 그 무력의 임무에 관한 체계적인 새 학설들을 창조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로일전쟁과 제一차 세계대전 시기에 활동하면서 제국주의 전쟁의 성격과 본질, 제국주의 단계에서의 식민지 약소민족들의 민족 해방전쟁,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에 관한 학설들을 창조하였다。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로동자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를 창건한 레닌과 쓰딸린은 자본주의 포위의 위험앞에서 국가를 무장 해제시키려는 원쑤들의 시도를 분쇄하면서 쏘베트 정권을 보위할 새 형태의 군대를 조직하였다。 특히 레닌의 영구적 사업의 천재적 계승자이며, 현대의 위대한 령장인 쓰딸린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며 위력한 쏘베트 군사과학을 창조하였다。

쓰딸린의 령도와 쓰딸린적 군사 학설의 제 법칙으로 지도되는 쏘베트 군대는 자가의 사회주의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였고 세계 인민들을 독일 파씨스트 정복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였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초소에 튼튼한 성채로 서 있다。

二、

레닌과 쓰딸린은 혁명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는 반드시 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론증하였다。 불쉐위끼당 활동의 첫 걸음부터 레닌은 지주와 부르죠아의 정권을 타도하는 것는 오직 무력으로써

만 가능하다는 것을 프로레타리아트에게 가르쳐 주었다。 레닌은 「혁명은 곧 전쟁」이며 그것은 「소수의 착취 지배계급들의 야욕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비운과 억압을 반대하여 수백만 수천만 피착취 근로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하는」「모든 전쟁중에서 유일하고 법적이며 공정하고 진실한 대전쟁」이라고 인정하였다。

혁명이 곧 전쟁이라면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무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론증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볼쉐위끼당은 이미 一九〇五년 제三차 당대회에서 레닌의 제의에 의하여 무장폭동 준비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의 전투적 준비를 지도하면서 부대들의 편성과 무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부대들은 무엇으로든지 자립적으로 무장할 것이다。—장총、단총、폭탄、칼、몽둥이、방화하기 위하여 석유에 적신 헌겁、바、또는 바로 만든 사다리、바리카트 건축을 위하여 삽、폭발물、가시 쇠줄、못(기병을 반대하여) 등등으로— 어떤 경우에든지 타방아나 상부나 외부로부터의 원조를 기대하지 말 것이며 모든 것을 자립적으로 달성할 것이다」(레닌 전집 제八권 三二七페지)

레닌은 당원들、우선 전투하는 당원들에게 군사학의 리론적 연구、군사문제 연구、군사문제에 대한 강의 청취를 위하여 지휘관 특히 로동자인 이전 병사들을 회담에 초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레닌의 가장 친근한 전투적 동지인 쓰딸린은 혁명적 무력 조직에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쓰딸린의 一九〇一년—一九一七년의 군사적 저술들은 로씨야 제一차 및 제二차 혁명 시기에 있어서 무장 폭동 준비의 도표로 되었다。 쓰딸린은「무장봉기와 우리의 전술」(一九〇五년七월)「전체 로동자들에게 고함」(一九〇五년十월)「공민들이여」(一九〇五년十월)「두번에 걸친 충돌」(一九〇六년一월)「폭동에 관한 맑쓰와 엥겔쓰의 견해」(一九〇六년七월)「현정세와 로동자당의 합동당대회」(一九〇六년)(이상 론문들은 로동당 출판사판 쓰딸린전집 제一권에 수록되어 있음)「전쟁에 관하여」(一九一七년三월)「페뜨로그라드의 전체 근로자 전체 로동자 및 전체 병사들에게 고함」(一九一七년六월)(이상는 동서 제三권에 수록되어 있음) 등 기타 수많은 저술 가운데서 혁명과 무장폭동에 관한 문제와 군사기술의 과업을 결부시켰다。

쓰딸린은 일찍부터 무장 폭동의 스승으로서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천재적 전술가로서 나타났다。 쓰딸린은 一九〇五년 찌플리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로동자들에게 연설하면서「참으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위해서

는 세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로 무장해야 하며 둘째로 무장해야 하며 셋째로 무장하고 또 무장하여야 한다」 (로동당 출판사판 쓰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 一四一페지) 라고 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준비와 수행기에서의 무장 문제만 취급한 것은 아니다。 레닌과 쓰딸린은 혁명에서 승리한 프로레타리아트가 주권을 장악한 후에 있어서도 무력을 강화할 데 관한 리론을 창조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의 이 리론은 제국주의 환경밑에서 한나라에서의 사회주의 승리의 가능에 대한 천재적 결론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전쟁에 관한 레닌의 모든 저술은 맑쓰—엥겔쓰에 있어서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전쟁의 불가피성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레닌은 「전쟁은 개인 소유의 기초에 대한 모순인 것이 아니라 이 기초의 직접적 불가피적 발전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개개의 경제 및 개개의 국가의 경제 발전은 균등하게 창성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에 의하여서는 산업에 있어서의 공황, 정치에 있어서의 전쟁 이외는 파괴된 균형을 때때로 회복하는 다른 수단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지적하였다。 레닌의 이 명제는 자본주의의 기본적 특성의 발전으로써 또는 직접적 계속으로 자라났으며, 그의 모순이 극도에 달한 제국주의 계단에 있어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제국주의 시기는 자본주의 모순이 더욱 첨예하고 심각화한 시기이며 대 규모적 전쟁 충돌의 시기인 것이다。 쓰딸린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제국주의란 원료의 산지에로 자본을 수출하는 것이요, 그 원료의 산지를 독점하려고 광포하게 투쟁하는 것이요, 이미 분할된 세계를 재분할하려고 투쟁하는 것이요, 「해비치는 곳」을 찾는 신흥 금융 집단들 및 렬강들이 이미 략탈한 것을 굳게 잡고 있는 기성의 금융 집단들 및 렬강들에 대하여 특히 맹렬하게 투쟁하는 것이다。 이 서로 다른 자본가의 집단 사이의 광포한 투쟁은 피할수 없는 요소로서 제국주의 전쟁 즉 타국와 령토를 빼앗으려는 전쟁을 내포하고 있다는 그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로동당 출판사판 레닌주의의 제문제 제一분책 五一六페지)

레닌은 제국주의 계단의 이러한 모순을 연구분석한 토대위에서 「자본주의 발전은 각국에서 불균형적으로 최고 계단에서 완성된다。 상품 생산의 조건하에서는 또한 달리는 될수도 없다。 여기로부터 모든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동시에 승리할 수 없다는 확고부동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우선 일국내지 수개국에서 승리하고

나머지 국가는 얼마 동안 부르죠아적 내지 전부르죠아 국가로 남아 있을것이다」 라는 천재적 결론을 얻었다。

또 一九一五년 八월에 쓴 「구라파 합중국의 구호에 관하여」 란 론문에서 레닌은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의 불균형성은 자본주의의 절대적 법칙이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주의의 승리가 처음에는 소수 혹은 단독으로 한개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승리한 이 국가의 프로레타리아트는 자본가를 수탈하며 아울러 자기의 사회주의적 생산을 조직하며 이렇게해서 다른 나라의 피압박 계급을 자기의 주위로 끌어들이면서 나머지 자본주의 세계를 대항해 일어설 것이다」 (쓰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 로동당 출판사판 二九二페지) 라고 하였다。

쓰딸린은 레닌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이전에는, 부르죠아에 대해서 승리하려면 모든 선진 국가나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대다수의 그러한 나라들의 프로레타리아트들이 공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일국에 있어서의 혁명의 승리를 불가능한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견지는 벌써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은 그러한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제국주의의 환경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각국의 불균형적 및 비약적 성질과 불가피적으로 전쟁에 이르게하는 제국주의 내부의 파멸적 제모순의 발전과 세계 각국에서의 혁명 운동의 장성— 이 모든 것은 어느 한나라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가 오직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필연적인 것으로 되게하는 까닭이다」 (로동당 출판사판 레닌주의의 제문제 제一분책 二五九페지)

일개 국가에서 사회주의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승리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 국가가 어느 일정한 기간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의 포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사회주의를 적대시하며 그를 정복하려고 광분할 것도 명백한 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새로운 명제를 이끌어낸 레닌과 쓰딸린은 당연한 순서로써 승리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 국가를 원쑤들로부터 방위할 데 관한 학설을 창조하였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전쟁강령」에서 지적하기를 「이것은 알륵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 반드시 사회주의 국가의 승리한 프로레타리아트를 박멸하려는 기타 국가의 부르죠아지의 직접적인 갈망을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측에서 하는 전쟁은 합법적 전쟁이며, 정의의 전쟁일 것이다。 이

것은 사회주의를 위한 전쟁이며, 부르죠아로부터 기타 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일 것이다」(로동당 출판사판 레닌저작선집 제一권 제四분책 四八五페지) 라고 하였다。

또 레닌는 혁명에 있어서의 「무장해제」를 옹호하는 기회주의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집단을 폭로하는 자기의 론문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우리가 일국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부르죠아지를 전복하고 그들을 종국적으로 타승하고 수탈한 후에야 비로소 전쟁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만일 우리가 부르죠아지의 반항을 진압한다는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사회주의로 이행함에 있어 가장 곤난하며 가장 견실한 투쟁을 망각하거나, 혹은 말살한다면 그것은 과학적 견지로보아 전혀 옳지않을 것이며 전혀 혁명적이 아닐 것이다。「사회주의적」승리들과 기회주의자들은 항상 미래의 평화적 사회주의를 망상한다。그런데 그들은 이 훌륭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격렬한 계급 투쟁과 계급 전쟁을 주의하며。 고려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점에 의하여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구별되는 것이다」(동서四八六페지)

쓰딸린은 이미 一九〇五년 十월에 쓴 「전체 로동자들에게 고함」이라는 격눈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승리적 폭동은 정부의 폐멸을 가져올 것이다。그러나 패배당한 정부들은 가끔 다시 일어서는 수가 있다。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다。폭동 시기에 구석 구석에 숨어 버리던 검은 세력은 폭동 다음날이면 숨었던 구멍에서 기어나와 정부를 살려 일으키려 할 것이다。이와같이 패배당한 정부를 부활시키는 것이다。인민은 즉시 이 검은 세력을 억압해야 할 것이며 그는 반드시 이 검은 세력을 땅속에 매장해야 할 것이다。이리하기 위해서 승리한 인민는 폭동 다음날 대소를 물론하고 무장하며 혁명군으로 전환되며 손에 무기를 잡고 쟁취한 권리를 옹호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로동당 출판사판 쓰딸린 전집 제一권 二一八페지)

이와 같이 레닌과 쓰딸린은 프로레타리아트에게 그가 통치자로 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피로써 쟁취한 승리의 성과들을 국제 및 국내의 원쑤들로부터 보위하기 위한 「군사적 조직체로서도 그것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가르쳐 주었다。

三、

쏘베트 국가가 존재한지 三十여년 간의 경험는 로동 계급이 오직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의하여서만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혁명적 개혁들

을 수행할 수 있다는 데 관한 맑쓰—레닌주의의 리론적 원칙을 확증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 없이, 부르죠아적 국가 기구를 파괴함이 없이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사회주의 사회로 넘어갈 수 있다고 증명하려던 각종 개량주의자들의 지도는 리론적으로 폭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현실로써 완전히 폭로되었다。그와 함께 국가 제도를 전체적으로 반대하며 로동계급의 독재를 거부하는 무정부주의는 완전히 파산되고 말았다。

로씨야에 있어서 一九一七년 지주—부르죠아 정권을 전복한 로동계급은 쟁취한 주권을 유지하고 공고히하며, 불패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되었다。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의 세계사적 경험을 종합하여 쓰딸린은 일개 국가에서 승리한 로동 계급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임무들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ㄱ) 혁명에 의하여 타도되고 수탈된 지주들과 자본가들의 반항을 분쇄하고 자본의 주권을 회복하려는 그들의 온갖 시도를 근절할 것。

(ㄴ) 모든 근로자들을 프로레타리아트의 주위에 결속시키는 정신으로 건설 사업을 조직하며, 또 그 사업은 계급들의 청산과 절멸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진행시킬 것。

(ㄷ) 외적 즉 제국주의와 투쟁하기 위하여 혁명을 무장시키고 혁명군을 조직할 것。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프로레타리아트의、독재가 필요한 것이다。로씨야 로동 계급이 자기들이 쟁취한 승리를 견고히 고수하였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은 것은 강력한 볼쉐위끼 공산당의 령도밑에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도움으로 이러한 임무들을 훌륭하게 완수하였기 때문이다。로씨야 로동 계급은 자기의 수중에 국가 정권을 틀어 쥐고 자기의 혁명적 군대와 기타 모든 조건들을 장악함으로써 一九一八년——一九二〇년에 十四개국이나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반혁명적 내외 련합 세력을 비멸하고 二十여년 동안 평화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보장할 수 있은 가능성을 쟁취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는 국가의 경제、부흥과 여러 차례의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을 실천함에 있어서 위력한 공간으로 되었다。프로레타리아트 독재는 쏘련의 국가경제를 사회주의 원칙위에서 근본적으로 혁신하였다。그는、쏘련에 있어서 모든 착취계급과 그들의 잔재를 숙청하였으며、쏘베트 사회의 사상적 정치적 통일을 위한 제조건들을 창설하였다。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없이는 위대한 조국전쟁에서 쏘련이 팟쇼 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영예의 승

리를 쟁취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못하였을 것이다。 제二차 세계대전 기간에 있어서 쏘베트 국가가 감당한 그런 시련을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국가가 아닌 다른 어떤 나라도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제국주의와 투쟁하기 위한 무력의 조직이다。

레닌과 쓰딸린은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제조건하에서 쏘베트 국가가 사멸되며, 따라서 륙군과 해군이 소멸된다는 부하린 도배의 썩어빠진 반혁명적 리론들을 폭로 분쇄하였다。 국가소멸(군대소멸)에 관한 타변은 쏘베트 국가의 위력을 존상시키고 적대적 자본주의의 포위 앞에서 쏘베트 국가를 무장 해제시키려는 반혁명적 기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쉬위끼 공산당은 이러한 시도에 대하여 항상 파멸적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 승리후 오늘까지의 력사는 일개 국가에서 승리한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의 사회주의 국가를 보위하여야 한다는 데 관한 레닌—쓰딸린의 학설의 정당성과 총명성을 남김없이 확증하였다。 로동자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 쏘련은 三十二년간 존재하여 왔다。

쏘련은 자기의 전 존재 기간의 四분지一이란 긴 세월을 두번에 걸친 제국주의자들과의 류혈 식쟁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쏘베트 국가는 위력한 무력이며, 현대적 군대인 쏘베트 군대가 없었다면 제국주의 강도들의 진공 앞에서 견디지 못하였을 것이다。

적대적 자본주의의 포위와 그의 침공의 위협성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는 사회주의 단계에 있어서도 지어 공산주의 단계에 가서도 국가는 계속 존재할 것이며 따라서 군대도 존재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쓰딸린은 十八차 당대회의 보고에서 지적하기를 국가조락에 관한 엥겔쓰의 명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조건중에서 어느 하나의 조건하에서만 옳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ㄱ) 만일 고찰의 편리를 위하여 국가를 국제 환경에서 미리 고립시켜 놓고 다만 국가의 내부 발전의 견지로만 사회주의적 국가에 대한 연구를 리행하거나 혹은

(ㄴ) 사회주의가 벌써 세계 각국에서 승리하였거나 또는 대다수 국가에서 승리하였고 자본주의 포위 대신에 사회주의적 포위가 현실에 있으며 외계의 침공에 대한 위협이 더는 없고 군대와 국가를 강고케할 필요가 더 없다고 가정하는 때에만 이 명제가 옳은 것이다」(로동당 출판사판 레닌주의의 제문제 제三권 四八〇—四八一페지)

그러나 사회주의가 아직은 단독적인 한나라에서만 승리하였고 「이 나라는 그 주위에 자본주의적 포위가 있으며, 이 나라는 외부의 군사적 침공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이 나라는 이렇기 때문에 국제적 환경으로부터 격리될 수 없으며 이 나라는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사회주의적 전취의 보호를 위한 가능성을 소유하기 위하여 잘 훈련된 군대와 잘 조직된 징벌기관과 튼튼한 정탐기관을 반드시 자기 관할하에 가지고 있어야 될것이며」「십분 강력한 자기의 국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동서 四八一—四八二페지)

쓰딸린은 「공산주의 시대에 가서도 역시 우리에게 국가가 보존되겠는가?」라고 자문하고 「그렇다。 만일 자본주의적 포위가 청산되지않고 만일 외계의 군사적 침공의 위험이 퇴치되지 않는다면 물론 국가가 보존될 것이다」라고 자답하였다。 쓰딸린은 국가 조락에 관한 유일한 옳은 과학적 대답을 다음과 같이 주었다。「자본주의적 포위가 청산되고 그것이 사회주의적 포위로써 교체된다면 물론 국가가 보존되지 않고 조락될 것이다」(동서 四八七페지)

자본주의적 포위와 그의 침공의 위험성이 존재하는한 국가와 군대가 존속한다는 것은 국가와 군대의 형태와 직능이 변경되지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국가와 군대는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과 외부 환경의 변천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다。

쓰딸린은 쏘베트 국가가 그의 발전에 있어서 두개의 주되는 계단을 경과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의 첫계단은 十월혁명 승리 이후 착취계급을 청산하는 데 까지의 시기이며 이 시기의 국가의 근본적 임무는 전복된 계급들의 반항을 진압하며, 외국 무력 간섭에 대항하여 국방을 조직하며, 공업과 농업을 부흥시키며, 자본주의적 요소의 청산을 위한 조건을 준비하는 데 있었다。 둘째 계단은 도시와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를 청산하는 시기로부터 사회주의적 경제 체계의 완전한 승리와 새 헌법 접수에 까지 이르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쏘베트 국가의 근본적 임무는 전국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경리를 조직하며 자본주의적 요소의 마지막 잔재를 청산하며, 문화혁명을 조직하며, 국방을 위하여 아주 현대적인 군대를 조직하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이 쏘베트 사회주의 국가의 직능은 그의 외형상에 있어서는 비록 상사한 것 같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종래의 국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직능을 수행하였고 또 수행하고 있다。

쏘베트 국가의 이러한 직능은 그의 무력에 있

어서도 본질적인 것이다。
부르죠아의 무력은 두개의 근본적 직능을 가지고 있다。즉 그것은 피착취 근로대중을 억제하는 내적 주요직능과 다른 나라들의 령토를 략탈하여 자기 나라의 령토를 확장하거나 혹은 다른 나라들의 침공으로부터 자기나라의 령토를 방어할 외적 직능이다。

국내의 군사적 진압의 기능은 쏘베트 무력도 쏘베트 국가발전의 첫 단계에 있어서 즉 十월혁명때로부터 착취계급을 숙청하는 기간에 가지게 되였던것이다。그러나 로동자 농민의 쏘베트 군대는 전근로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소수 착취계급을 진압하는 점에 있어서 소수 통치계급의 리해를 위하여 다수 근로대중을 진압하는 부르죠아군대와는 판이하다。쏘베트 무력은 또한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자기 국가를 보위할 직능도 가지고 있다。그러나 이것도 역시 다수 근로대중의 전피를 보위하는 점에 있어서 소수 착취계급의 재산과 특권을 방위하는 부르죠아 군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쏘베트 국가 발전의 둘째 계단에 있어서 쏘베트 무력의 국내의 군사적 진압의 직능은 소멸되였다。그것은 착취가 청산되였고 착취자들이 더 없으며 진압해야 할 사람이 없어진 까닭이다。국가에 있어서 진압적 직능은 인민의 재산을 도적하는자들과 탈취하는 자들로부터 사회주의적 소유를 보호하는 직능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쏘베트 무력의 「외계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군사적으로 보위하는 직능은 전적으로 보존」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붉은 군대와 붉은 함대는 보존되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타국으로부터 쏘련에 파송되는 정탐꾼 살인배 해독자들을 검거하고 징벌하기에 필요한 징벌기관과 정탐기관도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시기에 있어서의 국가와 군대에 관한 맑쓰—레닌주의적 학설을 계승 발전시키며、새 형태의 군대인 쏘베트 군대를 창건 강화함에 있어서 쓰딸린은 불멸의 공훈을 세웠다。

위대한 군사적 실천가이며、군사 리론가인 쓰딸린은 수다한 저서와 론설들로써 맑쓰—엥겔쓰—레닌의 전쟁과 군대에 대한 학설을 풍부히 하였다。

그는 「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쏘련공산당(볼쉐위끼) 력사」「위대한 조국전쟁에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자기의 저서들과 당 대회에서의 보고 연설、一九四六년 二월 九일의 선거전 연설、라진 교수 서한에 대한 답서등에서 전쟁과 군대에 관한 맑쓰—레닌주의적 리론을 최고봉으로 발전시켰다。쓰딸린은 이미 공민 전쟁시기에 새로운 선진적 군사 과학의 토대를 이루어놓았다。

인류가 남겨 놓은 가장 우수한 군사 기술을 섭취하고 맑쓰—레닌주의 학설에 기초하여 현대의 환경에 적응하도록 군사적 발전의 진로를 규정하면서 쓰딸린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며、위력한 쏘베트 군사과학을 창조하였다。

쓰딸린은 쏘베트 군사과학에 있어서 전략 전술 작전 기술등의 군사적 기술분제 뿐만 아니라 자국(自國)과 적국의 경제적 도덕적 요소까지 포함사킴으로써 전략과 전술만을 포함하던 낡아 빠진 부르죠아의 고전적 군사과학의 전통을 분쇄하여 버렸다。

쓰딸린적 쏘베트 군사과학의 우월성에 대하여 불가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쏘베트 군사 과학에서는 전쟁을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좋은 전략과 전술 계획만을 가지고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인정한다。전쟁을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계획이 국내의 경제적 가능성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무력의 공급만 보장될 것이 아니라 모든 초보적 필수 조건이 전국내 인민간에 보장되어야 한다。

쏘베트 군사과학에는 또 한가지 인증되어야 하는 일이 있다。그는 좋은 군사계획과 그가 경제적 가능성으로써 보장된 이외에도 인민의 사상을 장구한 시일동안 확고 부동의 신념과 높은 수준에서 지지할 수 있는 전쟁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만일 그런 목적이 없다면 결코 적을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전쟁의 략탈적 목적은 인민과 군대의 사상을 공고케하기 위하여서는 절대로 유리할 수 없으나 그와 반대로 전쟁의 해방적 목적은 언제나 이에 적응되는 것이다」(쏘베트 무력 창건 三十주년 기념에 제한 불가닌의 보고—一九四八년 二월二十九일부 조선신문)

전쟁과 군대에 관한 레닌—쓰딸린적 학설에 의하여 또 쓰딸린적 군사리론의 제법칙에 의하여 지도되면서 위대한 쏘베트 인민들과 영웅적 쏘베트 군대는 자기의 영예로운 사회주의 조국을 외래 침략자들로부터 구원하여 왔다。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국가인 쏘베트 사회주의 국가의 무력의 강화와 역할은 자기 국가의 보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二차 세계대전의 행정과 결과는 명시하였다。

쏘베트 무력은 또한 예속되고 압박받는 다른 나라 민족들의 해방 투쟁에 있어서도 위력한 요인으로 되는 것이다。중앙구라파와 동남구라파의 인민들이 독일 팟쇼 강점자들로부터 해방되었고、동방 제 약소 민족들이 일본제국주의의 지반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그들이 인민 민주주의적 국가들을 수립한 것은 영웅적 쏘베트 군대가 없었더라면 불가,

농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쏘련에 있어서의 무력 강화는 쏘련 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전세계 인민들의 리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四、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시기에 있어서 무력을 강화할데 관한 레닌—쓰딸린의 학설의 의의는 오늘날 더욱 증대(增大)하여 가고 있다。

오늘 이 학설은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수립한 쏘베트국가에게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쏘베트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한 팟쑈 독일과 그의 종복들의 격멸로 말미암아 인민 민주주의 국가를 창건한 중앙 및 동남구라파 제국가의 인민들은 이 학설의 엄격하고 정당한 실천에서 자기의 전취물을 고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았다。

제국주의 기반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발전의 길에 들어선 이 국가들에서는 인민을 또 다시 자기의 통치하에 넣으려는 극소수의 반동계급과 제국주의의 주구들을 진압하며, 인민들의 쟁취한 성과를 외래 침략자로부터 보위할 무력강화에 관한 이 학설의 정당성을 생활가운데서 체험하고 있다。

세계 도처의 식민지 및 반식민지 예속국가들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을 반대하여 과감한 해방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로동계급과 그의 선봉대인 공산당과 로동당들은 이 학설에 의하여 지도되면서 자기의 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자본주의 국가의 로동 계급은 이 학설에서 자기들의 투쟁 지침을 얻고 있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시기에 있어서 무력을 강화할데 관한 레닌—쓰딸린의 학설은 오늘 이미 한개의 학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근로인민들의 투쟁적 강령의 하나로 되고 있으며 생활로 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국가에 있어서 무력을 강화하는 것은 낡은 부르죠아 국가에서 무력을 강화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의를 가지고 있다。근로대중의 근본적 리익을 고수하는 쏘베트 군대는 그 자체의 본질상 어떠한 강점적 또는 침략적 목적이나 기도를 가질수 없다。쏘베트 국가는 자기의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타국을 강점하고 그 나라 인민들을 예속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도리어 쏘련은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제인민간의 친선 협조를 유지 강화함에 거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민족국가인 쏘련은 제인민들간의 확고한 친선에 의거하여 수립되었으며, 쏘베트 군대는 쏘련인민들의 자유와 독립을 옹호하는 군대이다。쏘베트 군대는 타인민을 존경하며 국제평화의 확립과 보존의 정신으로 교양받고 있으며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다。

쏘베트 국가는 시종일관한 평화적 대외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 三十二주년 기념보고에서 말렌꼬브는「쏘련의 평화정책은 사회주의적 사회 정체와 쏘련인민의 리익이라는 가장 큰 본질적이며, 원칙적 기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쏘련은 인민들의 평화와 친선정책을 끊임없이 실시하고 있다。

우리들은 전쟁을 원치않으며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일을 할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 국가들은 쏘련의 평화정책에 대하여 더일층 군비와 침략적 전쟁 방화 기도의 강화로써 대답하고 있다。이것은 독점적 자본의 본성 자체로부터 류출되는 것이다。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와의 평화적 경쟁을 두려워 한다。그렇기 때문에 그들은、군사적 전쟁모험을 희망한다。그들은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들에 대한 침략을 기도하며 새 전쟁 도발에 광분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제二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더욱 장성강화된 쏘련과 침략적 제국주의자들의 기반에서 해방되어 새 인민 민주주의적 제도를 수립한 인민민주주의적 국가들을 목에 걸린 가시와 같이 여기고 있다。

쓰딸린은 一九四六년 五월 一일 자기의 명령에서 지적하기를「평화적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전개하면서 우리는 새 전쟁 계획을 은근히 꾸며내는 국제 반동파들의 음모에 대하여 일분 일초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평화적 로력으로 넘어가면서 항상 경각성을 높이며 우리 국가의 무력과 국방능력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야 된다는데 대한 위대한 레닌의 지시를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쏘베트 인민들과 쏘베트 군대 군무자들은 쏘베트 무력을 더욱 튼튼히 하며 그것을 더욱 완전한 진투무기로 장비시키며 고상한 전투력과 경상적 전투 준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쏘베트 인민들은 불쉐위끼당의 현명한 지도밑에서 三十여년간 조국의 영예와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여온 쏘베트 군대가 자기의 빛나는 전통을 더욱 계승 발휘할 것을 깊은 만족감으로써 확신하고 있으며 전세계의 진보적 평화 애호 인민들은 평화와 안전의 초소에 튼튼히 서 있는 강력한 쏘베트 무력을 존경과 희망과 안도감으로써 바라보고 있다。

조선 인민군은 조선 인민의 절대한 지지와 원호속에서 장성 강화되고 있다

김 강

一九四八년 二월 八일 조선 인민은 장구한 자기들의 념원과 지망을 실현하여 자기 력사에서 처음으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당당한 조선 인민군의 창건을 세계에 선포하였던 것이다。

몇해전 까지만 하여도 일본 제국주의의 군대가 우리 강토를 유린하고 우리 인민들을 억압 학살할 때 조선 인민들은 그 원쑤들을 물리칠 자기의 군대를 가지지 못한것은 통탄하였었다。

강도 일제의 철제밑에서 자기 조국과 인민을 해방시키려는 애국적 조선인민들의 민족해방 투쟁은 선혈과 폭압으로써 보답되었다。

레닌은 당시 일본 제국주의자의 조선에 있어서의 식민지적 지배 방법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은 순아세아적 고문과 기술의 모든 새로운 발명이 결합한 미증유의 포행으로써 조선을 강탈하였다… 이곳에는 천황 제도의 모든 방법과 모든 새로운 완성된 기술과 순아세아적 고문 제도와 미증유의 포행이 결합되였다」 우리 인민의 얼마전의 과거는 바로 이러하였다。

그러나 전세계 약소민족의 해방자인 위대한 쏘련 군대의 무력으로 우리 민족이 해방된 후 조선 인민은 비로소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보위하는 진정한 자기의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었으며 드디어 전민족적 자랑과 열정과 환희속에 진정한 인민의 군대인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였던 것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탄생 첫날부터 전조선인민의 절대한 지지와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인민들의 끊임없는 원호속에 장성 발전되었으니 그는 오늘날 조국과 인민의 부름에 응하여 적은 어떤 시각에든지 소탕하고 조국과 인민을 튼튼히 보위할

수 있는 조직있고 규률있고 전투력이 훌륭한 강유력한 인민의 무장력량으로 되었다。

창건후 불과 二년의 짧은 시일에 우리 인민군대가 오늘과 같이 조선인민의 자유와 평화와 민주주의의 성채로 발전 강화된 것은 우리 공화국의 인민적 민주주의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제도에서 출발되는 것이며、인민군대의 고상한 목적과 임무의 특성과 우월성에 기초한 무진장한 내부력량에 있는 것이다。

어떠한 군대든지 그는 매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구성의 일부분이며 또 그를 창건하였으며 그리고 그를 사용하는 그 사회제도의 무기로 되어 있다고 맑쓰—레닌주의는 가르치고 있다。

군대는 사회가 계급으로 분할된 기본위에서 국가의 형성과 함께 발생하였으며 소수 착취자들의 리익을 위하여 다수의 피착취자를 억압 구속하기 위하여 조직되였던 것이다。 군대는 자기 발생의 시초부터 지배계급의 국내 및 국외에 있어서의 자기의 지배를 유지 확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와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국가 군대의 직능은 자기나라의 피착취계급을 복종시키며 근로자들의 혁명적 진출을 진압하며 지배계급을 반대하는 시위운동과 동맹과업을 탄압하는 데 있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국가의 군대는 식민지 및 예속국가에 있어서의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함에 리용되고 있다。

일본 식민지 략탈자들이 조선을 강점할때와 또 조선을 통치하던 장구한 기간에 걸쳐 야수적 일제군대가 우리 강토에서 감행한 류혈적 만행은 조선인민의 기억에서 언제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군대는 타국의 령토를 침범하며 타국인민을 정복하는데 봉사한다。 또한 그는 불평등 조약을 강요하며 그 국가들의 반동 제도를 비호할 목적을 가지고 약소 민족들을 위협 협박하는 수단으로서 리용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자기 인민에게 대한 압박없이는、타국령토의 강제적 예속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제二차 세계대전이 종식된지 이미 五년이 경과한 오늘날에 있어서 부르죠아의 착취와 침략의 도구로 봉사하는 이 군대들이 세계 각지에서 놀고 있는 반인민적 반동적 역할로써 더욱 명백하다。 이들의 군대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월남에서 비르마에서 자기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궐기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으며 또한 회랍에 있어서、서부독일에 있어서 자기의 침략정책 수행의 지주로 되는 반동제도를 유지하며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다。

보는 바와같이 자본주의 제도의 탄생과 력사발전에 있어서는 착취자 도배들의 리익을 위한 략탈 전쟁과 기타의 강압 방법이 항상 현저한 자리를 차지하였던 것이며 자본주의적 착취와 그 착취 범위의 확장에 대한 무제한한 지향은 제국주의 제국들의 모든 정책의 주요 동기로 되고 있으며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 정책에 자기의 군대를 복무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二차 세계대전에서 쏘베트 군대의 결정적 역할로 멸망한 제국주의 독일 이태리 및 일본이 그러하였고 전후 미 영제국주의 군대가 세계각지에서 놀고 있는 역할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 군대들로 하여금 지배계급의 의사를 실행하며 그들의 략탈적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지배계급은 병사들을 무장한 기계로, 자기 정책실시를 위한 맹목적 무기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들은 군대를 인민과 분리시키며 자기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정신으로 군대를 교양하며 자본주의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려는 인민 대중의 혁명적 투쟁에 대한 적의의 정신으로 교양시키고 있으며 또한 타민족에 대한 증오와 멸시, 자기 민족의 우월성에 대한 이데올로기로 교양시키고 있다。

민족적 및 종족적 증오의 정신으로 군대를 교양하는 이 원칙은 부르죠아 군사학에 있어서 항상 군대의 전투적 능력의 기초로 인정되어 왔다。 강압과 강탈의 능력이 가장 많은 군대를 조직함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였던 독일 파씨스트들이 그러하였으며 또한 강도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멸망한 히틀러와 도죠의 상기 원칙에 충실히 의거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제국주의 군대의 계급적 본성은 제국주의 국가 그 자체의 본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 군대들은 국가의 정치적 생활에 참가하는 것을 일체 금지 당하고 있다。 반동 통치계급은 자기의 군대를 무자하고 암매하게 만들며 병사들이 그들의 명령에 온순히 복종하는 기계로 만들기에 노력한다。 이러한 교양제도는 자본주의 군대 병사들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강제적으로 전쟁판으로 몰아세우며 그들로 하여금 가장 저급한 도덕성을 발생케 한다。

독일 파씨스트와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야만적 강탈자이며 잔인한 음탈자이고 직업적인 략탈자로 자기들의 군대를 훈육하였다。 파씨즘의 몽상적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교양되였으며 무도한 폭력과 무제한한 략탈을 숭배하는 정신으로 교양된 히틀러 독일군대와 강도 일제군대는 장관으로부터 병

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살인자이었으며 강탈자이었으며 또한 강압자이었다。 인류는 그들의 비인간적 잔인성과 야수적 포행을 영원히 잊지않을 것이다。 우리 인민의 모든 후손은 수십년간 조선인민을 대중적 학살과 기아와 빈궁에 몰아넣은 일제군대의 수많은 범죄를 저주와 전률로 상기할 것이다。

히틀러 군대의 운명을 특징지으면서 쓰딸린대원수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독일 강탈자들이 자기의 도덕적 쇠퇴에 있어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벌써 오래전에 야수적 수준에까지 저하되였다는 한개의 사태는 벌써 그들이 자기를 피할 수 없는 멸망의 길로 운명지어 놓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독일군대와 일본군대의 운명은 피할수 없는 멸망을 고하고야 말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같이 자본주의의 국가 그 자체의 본질에 의한 목적과 임무를 추구하는 도구로서 리용되는 부르죠아 군대가 견고한 토대를 가질 수 없으며 불피코 멸망하고야 만다는 것을 력사는 가르치고 있다。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에 승리한 쏘베트 인민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무장력과는 원칙적으로 상이한 신형태의 군대를 창건하였다。 一九一八년 一월 二十八일 레닌이 서명한 붉은군대 조직에 관한 력사적 포고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있다。

「낡은 군대는 근로자에 대한 부르죠아지의 계급적 압박의 무기였었다。 주권이 근로자와 피착취 계급으로 넘어감에 따라 새로운 군대조직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는바 이 군대는 현재에 있어 쏘베트 주권의 방벽이며 가까운 장래에 전인민적 무장으로 군대를 교체하기 위한 토대이며 또 장래의 구라파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지주가 될것이다」 이 예견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력사적 경험은 실증하여 주고 있다。

우리 조선인민군대는 자본주의 국가의 군대와는 그 내용에 있어서나 그 형식에 있어서나 전연 다른 군대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조선 인민이 만든 조선인민의 군대이며 그는 자기 나라의 완전 통일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하여 외래 침략자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며 인민의 리익을 고수하는 진정한 인민의 무장력이다。

맑쓰—레닌주의는 새 사회제도의 승리를 위하여, 그리고 특히 전취한 승리의 공고화를 위하여 무력을 소유하는 것이 프로레타리아트의 과업이라고 제기하였으며 이 과업을 착취자와의 투쟁 강령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였다。 오직 무장한 인민만이 자기의 강압자와 교살자를 타승할 수 있는 것이며 인민은 이러한 조건하에 있어서만이 제

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자기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인민군대는 자기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발전을 보위하며 이미 공화국 북반부에서 인민들이 전취한 민주건설의 빛나는 제성과들을 고수하며 인민들의 평화적 로력과 인민생활의 행복 및 안전을 보위하는 것을 자기의 숭고한 임무로 한다。

우리 인민군대의 성원은 해방된 자유스러운 근로인민의 아들 딸들로서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헌신분투하는 근로청년들이다。 그들은 조국과 인민과 자기의 리익에 배반되는 일에 대하여서는 결코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오직 언제나 조국과 인민에 무한히 충실할 따름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타국의 령토를 침범하며 다른 인민을 예속화하려는 목적이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그는 언제나 자기 인민의 자유 및 독립의 초소에 서있으며 마지막 피한방울까지 바쳐 외래침략자로부터 자기 인민을 사수하며 어떠한 원쑤들의 침공에 대하여서도 항상 조국의 영예를 고수하여, 승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인민군대는 탄생 첫날부터 전체 인민들의 절대한 사랑과 원조를 받고있으며 인민과의 튼튼한 혈연적 련계속에 장성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인민군대의 강대한 힘의 원천은 실로 여기에 있다。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근로청년들은 물타는, 조국애와 커다란 자랑을 가지고 출선하여 인민군대에 복무하고 있으며 그들은 영광에 찬 기쁨을 가지고 조국과 인민이 준 무기를 받아 선진적 군사기술 연구와 전투력 강화에 정진하였으며 또 하고있다。 전체 인민은 자기들의 시선을 항상 영예로운 자기의 군대에 돌리고 있으며 물심량면의 뜨거운 사랑과 격려를 보내고있다。 이와같이 인민들과 혈연적 련계를 맺고있는 조선 인민군대는 어느때나 자기 인민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항상 인민의 지향과 목적과 같이 살 것이며 전체 조선인민들과 같이 살것이다。

우리 인민군대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성은 그가 과거 일제의 가혹한 탄압하에서 조국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반일무장투쟁에 자기 몸을 바쳐온 진정한 조선의 애국자들을 골간으로 하여 창설된 군대이라는 그것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민족의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장군 항일유격대의 혁명적 전통과 고상한 애국정신과 투쟁경험을 계승하였으며 장구한 시일 일제를 반대하는 반일 무장투쟁에서 고귀하고 풍부한 승리의 경험으로 단련된 애국자들을 그 골간으로 하여 조직된 군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군대는 비록 그 력사는 짧다 할찌라도 실지에 있어서는 장구한 혁명적 전통과

투쟁경험과 애국정신으로 빛나는 력사적 군대인 것이다。 다시말하면 우리 인민군대는 단지 총칼로 무장된것만 아니라 열화같은 애국정신과 우수한 선배들의 실지 경험으로 무장된 강철같은 군대이다。

우리 인민군대에는 병사와 지휘관들간에 계급적 대립이 없다。 우리 군대병사들과 군관들은 모두가 근로인민의 아들 딸들이며 군대의 지휘관과 병사는 유일한 전투적 가족, 유일한 견해 지향 및 목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군대에 있어서 군관과 전사와의 사이는 다같이 조국과 인민앞에 복무하는 호상 동지적 우애로 튼튼히 단결되어있는 것이다。

조선 인민군대는 자기의 정치적 의식과 고상한 도덕성과 강철같은 자각적 규률성에 의하여 자본주의 제국의 군대와는 판이하게 구별된다。 군대는 그의 병사들과 군관이 정치적으로 발전되었을때,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계급의 리익을 옹호할 것인가를 명확히 알고있으며 자기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성으로 무장되었을때 가장 위력있는 힘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국정부는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적 교양과 교육에 항상 거대한 주의를돌려왔으며 또 돌리고 있다。

부르죠아 군대에 있어서의 정치적 교육이 병사대중에게 전쟁의 진정한 성격을 은폐하며 착취계급의 온순한 도구로 만들려는데 있는 반면에 우리 인민군대의 군사정치적 교육은 진실의 정신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적 과학사상으로 무장되였으며 우리공화국의 민주주의적 성격으로부터 출발하는 인민군대의 고상한 목적 및 임무에 대한 높은 헌신성과 숭고한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받는다。 또한 인민군대 군무자들의 높은 도덕성은 자기 임무수행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며 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서 우러나오는 견고한 자각적 규률은 우리 군대의 고상한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의 탄생 첫날부터 타인민에 대한 존경의 정신으로 교양받고 있으며 인류의 항구한 평화와 안전의 보존과 확립의 정신으로 교양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군대는 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받고 있는 세계 평화 옹호 인민간의 형제적 친선의 군대이며 타민족을 존경하며 그들의 자주와 독립을 존중하는 동시에 타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며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정책을 증오시하며 배격하는 정의적 도덕 사상의 소유자이다。

우리 인민군대 군무자들은 자기의 해방자인 위대한 쏘베트 군대와의 친선의 정신으로 교양되며 일상적으로 쏘베트 군대 군인들의 고상한 애국주의

사상을 본받으며 그들의 선진적 군사과학 및 군사기술을 부단히 연구섭취하고 있다。

또한 조선 인민군대 군인들은 공화국의 헌법으로써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받고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진 공민이다。 그들은 우리국가의 모든 정치생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특성과 우월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민군대는 단시일에 조직상으로나 훈련상으로 오늘과 같은 우수한 군대로 발전될 수 있었던것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조국과 인민을 능히 보위할 수 있으며 조직있고 규률있고 전투력이 훌륭한 강대한 인민의 무장력으로 장성되였습니다。 우리 인민군대와 경비대는 언제든지 조국과 인민의 부름에 따라 적을 소탕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왔습니다」(김일성)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는 인민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으며 강화 발전될 것이며 인민의 리익을 배반한 착취의 도구로서의 군대는 인민과 리탈되며 인민의 증오를 받으며 불피코 와해되고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그것은 이미 력사에서 팟쇼독일 이태리 일본군대의 멸망이 확증하였고 오늘날 미제국주의자의 주구인 리승만 매국도당의 소위 국방군의 와해상이 우리에게 그 실증을 력력히 보여주고 있다。

후방의 견고성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는 전투에서 승리를 달성할 수 없으며 적의 타격을 이겨낼 힘의 원천을 갖지못한다。 우리 인민군대는 가장 견고한 후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인민들속에서 나왔으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군대가 인민들과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혈연적 관계로 굳게 맺어져 있기때문이다。

조선인민은 자기의 군대를 무한한 자랑으로 사랑한다。 인민군대가 창건된 이후 전체 조선인민는 자기의 무력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수한 군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물심 량면으로되는 인민군대 강화사업을 높은 애국적 열성으로 전개하여 왔다。

김일성수상은 「전체인민들은 인민군대 경비대 보안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량을 집중하여 인민군대 경비대 보안대 전사、하사 군관들의 가족들에 대한 전인민적 원호사업을 일층 강화하며 조국보위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며 물심 량면으로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사업들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국보위는 조선인민의 최대의 영예이며 최대의 의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있는 전체인민들은 자기의 군대를 애호하며 병사 군관들을 존경하며 그들에 대한 두터운 신뢰감으로써 조국보위후원사업과 군무자가족 원호사

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은 인민군대 경비대 및 보안대에 매일같이 답지하는 인민들의 위안격려의 편지와 선물、군무자 및 그의 가족을 위한 위안회의 조직、전사회적 운동으로 전개되고있는 군무자 가족들에 대한 원호사업、인민군대에 더욱 훌륭한 무기를 주기위한 비행기 땅크 헌납기금의 헌납운동등 공화국북반부 방방곡곡에서 인민들의 생활과 함께 일상적인 현상으로 된 이러한 사실로써 충분히 증명된다。

우리 청년들은 영예로운 인민군대의 군복을 입은 자기 동무들을 더없이 부러워하며 인민들은 우리 군인들을 규률있고、문화적이며、고상한 도덕을 소유한 모범적 인간으로 보고 있다。

우리 인민군대의 전투적、력량을 일층 강고케하며 우리인민의 무장력을 더욱 강화함에 심대한 의의를 갖는 군무자 가족 원호사업에 인민들은 자기의 애국적 열성을 남김없이 표현하고 있다。 특히 작년 五월 九일 공화국 내각결정 제四五호로써 조선 인민군대 전사 및 하사관들의 부양가족 원호에 관한 결정이 발표되자 기체 인민들은 이 결정을 열렬한 환호와 지지로써 맞이하였으며 인민군대에 대한 인민들의 애국적 후원의 국가적 표현인 이 내각결정의 성과적 실행을 위하여 일층 분발하고 있다。

인민들은 군무자 가족들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이 돌보아 주며 정신적 위안사업과 아울러 이들을 물질적으로 원조하는 동시에 농촌에 있어서는 군인 가족들의 영농에 아무러한 지장이 없도록 군중적으로 되는 로력 협조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인민들은 군무자들과 인민들과의 좌담회 연예회등을 수시로 조직하며 군대와 인민들간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는 온갖 창발적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조국보위후원사업에 있어서도 인민들의 고조된 애국적 열성은 그들의 자발적 의사로되는 광범한 조국보위기금 헌납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작년十월 우리 인민군대에 비행기 땅크등을 구입헌납키로한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의 결정은 전체 인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아 애국적 로동자 농민 사무원 기업가 상인들의 궐기로써 허다한 애국적 미담 가화와 함께 각처에서 답지하는 거액의 금품은 작년말까지에 벌써 一억二천여만원의 거액에 달하고 있다。 특히 공화국 북반부 근로인민들은 우리 인민군대의 물질적 기초로 되는 인민경제의 급속한 부흥발전에 높은 애국적 열성을 총발휘하여 자기들의 생산계획을 초과실행함으로써 인민군대에 각종 군수품 무기 탄약 일용품등을 더 원만히 공급하며 그들에게 충족한 식량을 제때에 공급하고

있다。

인민들의 조국보위를 위한 이와같은 원호의 지향은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있는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며 우리 군인들의 완강한 투지와 용감성을 더 한층 고무격려시키는 거대한 힘으로되고 있다。 이와같은 인민들의 절대한 지지와 원호속에 우리 인민군대는 지나간 두해동안 조국의 통일독립과 륭성발전을 위한 인민들의 창조적 로력의 성과를 보위하며 미제의 침략정책과 그의 주구 리승만 도당의 매국 흉책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옹호 고수하며 조국의 자주권과 민족의 영예를 수호하는 영광에 찬 길을 걸어 왔다。 그 길위에서—그들은 조국과 인민앞에 충성을 다하여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모든 곤난을 극복하고 거대한 발전을 이루었다。

조선인민들이 二년전에 자기를 보위할 인민무력의 창건을 세계에 선포하였다면 오늘에 와서는 불패의 력량을 소유한 강대하고 훈련된 우수한 자기의 군대를 가졌다는것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다—그것은 우리 인민군대가 비록 그 창설의 력사는 짧다하더라도 그동안 그가 전취한 군사정치적 성과들은 실로 거대하기 때문이다。

우리인민은 장구한 일제통치의 악결과로 인하여 과거 아무러한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소유하지 못하였었다。 또 인민군대 창건시초에 우리세게는 군사상 경험이 부족하였으며 군사간부도 부족하였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이 사태는 판이하게 되었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쏘베트 국가의 선진 군사 과학과 군사 기술을 연구 섭취하였으며 그에 정통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현대적 장비를 갖춘 각종 병종을 소유하였으며 전문적 군사기술에 능통한 우수한 군사간부들이 수다히 배양되었다。

二년전의 우리 인민군대 전사들은 초보적인 각개 동작에 조차 능숙치 못하였다면 오늘날의 그들은 자기말은 전문기술부문에서 고등지식을 소유케 되었으며 각종무기의 성능과 그의 사용법에 능통한 우수한 군인으로 되었으며 백발백중의 명사격수들이 부지기수로 배출되고 있다。 선진적 군사기술로 튼튼히 무장된 우수한 비행사 땅크병 포사격수 기관총수들은 날이 갈수록 수천 수만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들은 누구나 강건한 체력을 소유하였고 제반 군사동작에 숙련되었으며 자기의 전투임무를 민속과감한 활동으로써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투력이 강한 병사들로 되었다。

창건시초의 우리인민군대 군관들은, 독자적으로 자기부대를 관리하며 교육훈련을 원만히 실시하는 지휘능력이 부족하였으나 오늘의 인민군대 군관들

은 이미 작일의 그들이 아니다。 우리 인민군대 군관들은 자기부하를 원만하게 통솔하며 각종복잡한, 전투환경에서도 능히 전투를 지휘할 수 있는 유수한 지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어떠한 전투환경에 있어서나 각종 병종들의 협동 동작을 조직하고 지휘할 수 있게되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어떠한 원쑤들의 침공이라도 능히 격퇴할 수 있는 완강한 전투적 력량을 소유하였으며 광범한 협동 동작으로되는 현대전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 인민군대 군무자들은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자기사업의 정당성과 영예를 깊이 인식하고 그를 위하여는 자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는 열렬한 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였으며 인류의 평화와 자유와 민주를 위한 정의의 대오에서 제인민의 우의와 친선의 국제주의사상으로 관철되어 있다。 — 그러므로 그들은 조국의 자주권과 인민의 자유를 보위하기 위하여서는 누구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를 똑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인민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하여 항상 준비되어 있다。

오늘 인민군대 전체 군무자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정치적 경각성으로써 자기를 긴장시키고· 있으며 강철같은 규률을 자각적으로 엄격히 준수하면서 공화국 무력대오의 일층 강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군무자들은 이미 三八선 경비사업에서 리승만 괴뢰군의 침입을 격멸 소탕하고 공화국의 민주기지를 반석같이 수호한 영광스럽고 빛나는 전투적 공훈들을 남기였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선인민군는 창립 二주년의 짧은 기간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우리 민족의 영원한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전투력있는 정예의 군대로 장성 강화되어 인민이 부른다면 인민의 적을 어느때든지 완전 소탕하기에 항상 만난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인 침략정책의 결과 우리조국은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우리강토는 의연히 량단된 채로 남아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과 그의 주구 리승만 매국도당의 망국 흉책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궐기한 전조선인민의 날로 강대하여가는 애국력량앞에 매걸음마다 파탄되고 있다。

오늘 남북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은 매국노 리승만 도당을 두목으로한 반동력량에 비할 수 없으리만큼 장성 강화되었으며 조선 인민의 구국투쟁은 그 어느때보다도 치렬화하여 리승만 매국역도를 소탕하고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를 쟁취할 승리의 길을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타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며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미제국주의자를 선두로한 국제반동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그들의 음모와 그 실천간에는 거리가 멀다.

제국주의탈자들을 반대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 민주와 진보, 제민족의 동등권과 자유와 독립을 위한 초소에 위대한 쏘베트 동맹을 수위로한 강력한 국제민주진영이 철옹성같이 서있으며 또 그 력량은 불패의 것으로 날로 강화되면서 있다. 국제반동진영은 약화되어가며 쇠퇴하여가고 있으며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평화와 민주의 진영은 수억만 자유애호인민들의 지지속에 부단히 장성되고 있다.

자기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은 강대한 세계 민주진영의 절대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으며 수천 수억만 평화 애호 인민의 무한한 동정을 받고 있다.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인민의 힘이 강할때라야만 보장되는 것이다.

조선인민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급속히 쟁취하기 위한 력사적 투쟁에서 자기들의 영예로운 무력인 인민군대를 승리의 담보로 보고있다.

조선 인민군대는 조선인민의 자유 평화 및 안전의 기빨로되고 있으며 우리 공화국의 리익의 초소에와 인민들의 이미 전취한 성과 및 창조적 로력의 초소에 언제나 확고히 서있을 것이다.

인민군대는 근로청년들의 정치—기술 및 전투적 학교이다

현 정 민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무력의 승리로써 장구한 일제 통치 기반에서 해방된 첫 날부터 조선 인민들의 숙망과 일치한 지향은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국가 창건의 시급한 실현이였다. 그러나 해방후 五년을 맞이하는 오늘까지 조국의 통일 독립에 대한 전체 인민들의 절박한 요구는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조선 인민들이 지향하는 길을 방해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흉책과 그의 괴뢰 기구인 리승만 매국도당의 집단과 「유·엔조선위원단」의 책동에 기인된 결과이다. 최후 멸망에 직면한 리승만 매국역도들은 평화적 통일방책에 대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정당한 제의를 거부하고 동족 상쟁의 내란도발에 광분하고 있다.

리승만 매국도당들은 남반부 인민들의 해방군인 빨찌산에 대하여 와팔한 도살의 만행을 감행하며 소위 「후방 안전」을 위하여 「자수」 「전향」의 간계를 꾸미며 「징병제」를 실시하여 청년들을 내란의 피바다에 잠그려하며 「징발법」을 조작하여 인민들의 재산을 강제 징모하여 인민 도살비에 충당하고 있다.

또한 미 제국주의자들이 공급하는 무기로써 북반부 민주 기지를 파괴하려고 三八선에서 도발행위를 감행하며 심지어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일제와 야합하고 그의 재무장을 돕고 있다.

조국의 긴박한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을 하루 속히 조국 강토에서 구축하고 그 앞잡이 리승만 매국 도당을 소탕하며 그들이 흉책하는 야수적 동족 학살과 민주 건설의 파괴 음모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것은 전체 조선 인민들의 가장 긴급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여기에서 공화국의 무력인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사업은 조국을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보위함에 있어서와 다른 방면으로는 조국이 처하고 있는 복잡 첨예화한 국제 국내 환경하에서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필승의 힘으로 고무하는 점에 있어서 가장 긴요한 임무가 아닐 수 없다。

력사는 독립국가를 보존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나라를 물론하고 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은 새 사회제도의 승리를 위하여 특히 승리의 공고화를 위하여 무기를 소유하는 것이 프로레타리아트의 과업이라는 것을 투쟁 강령의 주요부분으로 간주하였으며、一九〇五년 쓰딸린은「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는 무장이 필요하며 또 무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신 김일성 장군은 인민군、창립 열병식에서「우리 조국이 완전 자주 독립 국가로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며 어떠한 원쑤들도 우리 조국과 인민을 침략할 수 없게 하는 인민군대를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시었다。이와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조선 인민군은 공화국 헌법에 확정된 인민의 자주권(제一조)과 인민정권(제二조)과 생산수단에 대한 인민의 소유(제五조)와 인민들의 로동권리 및 자유(제十一조)를 옹호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창건되였다。

인민군이 창건되자 공화국 청년들은 애국적 열성과 자각성 밑에 그 대렬에 흔연히 참가하였다。그것은 력사를 통하여 어느 때나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충직성과 투쟁에 있어서의 진취성과 정의에 대한 용감성을 특성으로 소유하였으며、혁명 선렬들의 빛나는 애국 전통을 계승한 근로 청년들이 자기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공화국과 인민정권을 고수하며、조국의 부강 발전의 원동력인 인민들의 창조적 로력을 보위하는 것을 자기들의 고상한 의무이며 영예로 철저히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二八조에「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인 동시에 최대의 영예이다」라고 확인한 것은 실로 공화국 인민들의 일치한 의사이다。

그러나 인민군대는 다만 공화국을 보위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근로 인민들을 단결시키고 교육하며 민주주의적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쓰딸린 대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군대에 대하여서는 이것을 방위 혹은 공격기관으로만 보는 습관이 있다。

그러나 나는 군대를 로동자와 농민들의 집결 장소로 본다。

바로 군대―그것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각 현(縣)의 로동자와 농민들이 모여있으며、또 모이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견해를 작성하고 있는 유일한 집결장소임을 모든 력사는 말하여 준다。……

군대는 로동자와 농민들의 학교이며 집결장소로 된다는 점으로 보아 군대에 대한 당의 힘과 영향은 막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이러한 의미에서 군대는 당을 로동자 및 빈농들과 련결시키는 아주 거대한 기관이다。

군대는 각현 및 각주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정치생활을 서로 배우며 배워주는 전 로씨야적이며 전련방적인 유일한 집결 장소이다」(로동당출판사판「쓰딸린전집」제五권 제二四四―二四五페지)

조선 인민군대는 근로청년들의 집결처이며 정치 기술 및 전투적으로 교양되는 기관으로서 막대한 국가적 의의가 부여된다。이와같이 국가와 인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의하여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창건된 조선 인민군은 오늘「조국과 인민들을 능히 보위할 수 있으며 조직있고 규률있고 전투력이 훌륭한 무장력으로 장성」되었으며「언제든지 조국과 인민의 부름에 따라 적을 소탕할 수 있는」(김일성) 강력한 군대로 되였다。

그러면 창건후 단기간에 조선 인민군대가 강유력한 군대로 발전된 원천은 어데 있는가? 그것은 조선 인민군대의 특성이 곧 그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조선 인민군대의 특성은 첫째로 자본주의 국가 군대가 자본가 지주와 침략자와 그의 앞잡이들을 지도층으로 하고 조직된데 반하여 조선 인민군대는 일제의 가혹한 탄압하에 조국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몸바쳐 싸운 우리 민족 해방투쟁사에 찬연히 빛나는 김일성 장군의 항일 빨찌산 부대를 그 골간으로 하고 조직된 데 있다。그렇기 때문에 조선 인민군대는 김일성 장군의 애국 전통을 계승하고 그의 탁월한 전략 전술과 고귀한 투쟁 경험으로 무장된 강력한 군대로 된 것이다。

조선 인민군대의 특성은 둘째로 자본주의 국가 군대가 강제적 징모와 고용에 의하여 조직되어 인민을 억압 착취하며 타국을 침략하여 그 국가 인민들을 노예로 하는 적농을 소유한 군대인 데 반하여 조선 인민군대는「그 내용에 있어서나 그 형식에 있어서나 전연 다른」(김일성) 로동자 농민 근로인민들의 자제로써 조직되었으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근로 인민을 핵심으로 하는 인민정권을 보위하는 선진적 민주주의적 군대라는 그의

인민성에 있다。그렇기 때문에 인민군대와 인민간에는 혈연적 관계가 맺어져 있으며 인민들은 그의 강화를 위하여 물심 량면으로 백방의 원조를 주는 것이다。

조선 인민군대의 셋째의 특성은 잔인한 폭력과 무제한한 략탈적 행위를 숭배하며 침략자와 착취자의 리익에 리용되는 한개의 자동적 기계로 만드는 반인민적 교육을 주입당한 자본주의 국가 군대와 달리 선진적 과학 사상으로 무장되고 고상한 정치적 자각성과 도덕성을 소유한 군대이다。그렇기 때문에 인민 군대에 복무하는 군무자들은 고상한 그의 사명을 인식하고 선진적 군사 과학과 기술 습득에 성실하여 강력한 무장력으로 발전된 것이다。

조선 인민군대의 넷째 특성은 타국가와 인민들을 정복 강탈하는 데 리용하려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멸시와 교만성과 우월감과 침략성으로 교육받은 자본주의 국가 군대에 반하여 세계 자유 애호 인민들과 국제적 친선 협조를 강화하며 타민족의 자주권과 독립과 자유를 존중시하는 고상한 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된 군대이다。그렇기 때문에 조선 인민군대는 날로 강화되는 세계 민주 력량의 일부로서 더욱 발전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인민군대가 강화된 힘의 원천은 공화국의 국가 경제 및 사회제도의 정당성과 우월성에 있는 것이다。

쏘베트 군대의 회생적 역할과 그의 적극적 방조밑에 수립되고 공고화된 인민정권의 정확한 시책밑에 실시된 제반 민주개혁의 승리적 성과로써만 이는 가능하였으며 동시에 해방된 근로 인민들과 청년들의 력사적 사명에 대한 각성이 제고된 데서만 가능하였다。

즉 조선 인민군대 강화는 민주 개혁의 성과로써 이루어진 경제적 토대로 보장되었고 국가와 근로 인민들과 군대의 목적이 군무자들의 목적과 리익에 일치한데서 그들이 군무에 성실하여 강력한 무력으로 발전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인민군대의 특성은 공화국의 제반 제도의 우월성과 함께 강력한 무력의 원천으로 되였으며 또한 근로 청년들이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무한한 영예이며 행복으로 인식하고 자각적으로 참가케 한 원인으로 되는 것이다。

인민군대는 근로 청년들의 정치적 학교이다。

인민군대에서는 지식있고 자각된 그리고 충실한 수많은 조국의 민족간부들이 양성되고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조선 인민군대가 강력한 무장

력으로 발전된 것은 그의 인민성과 위력있는 무기로 장비되었으며 선진적 군사 과학과 기술로 무장한 것과 함께 군대의 사기 즉 전투적 완강성의 주요한 요소인 정치 도덕적으로 튼튼히 무장한 데 있다。일찌기 선진 군사 과학자들은 전투의 성과는 결국에 있어서 고상한 도덕적 견고성과 자기들이 고수하는 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군대들의 심심한 정치적 확신성이 결정한다는 것을 력설하였다。

쓰딸린은「군대의 정신적 의기는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항구적 동인」이라고 지적하였으며「붉은 군대는 그로하여금 공훈을 세우게끔 고무하는 고귀한 전쟁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

조국 전쟁이 자기 조국의 자유를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천명의 남녀 영웅들을 낳았다는 것도 바로 이것으로써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위대한 조국전쟁에 대하여)

레닌 쓰딸린의 제자인 후룬제는 군대의 정치 의식을「때로는 총과 대포보다 더 강한 특수형태의 무기」로 평가하였으며、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지휘관들이 진행하는 정치적 사업은 우리의 어떠한 원쑤에게 있어서도 무서우며 새로운 보충적 무기로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쏘련 무력성 군대출판사 一九四六년판 후르스토후 저작——군대 교양에 대한 후룬제의 학설——참조、이하 동일)

중국 인민의 수령이며 인민 해방군의 지도자인 모택동은 인민해방군이 승리한 주요 동인은 인민전쟁의 원칙에 뿌리를 박고 장병들 간의 일치한 보조를 목표로한 이 해방군대 내에서 혁명적 정치 사업을 고상한 수준에 올려세운 데 있다고 말하였다。

이와같은 고귀한 경험을 섭취한 인민군대에서는「광범한 정치 사상 교육을 항상 강력히 전개」하라는 김일성 장군의 지시를 받들고 군무자들의 정치 도덕적 교양에 막대한 고려를 돌리고 있다。

군대에서 진행하는 군사 과학의 교육은 군무자들을 정치 도덕적으로 교육함에 있어서 막대한 의의를 가진다。

레닌은「우리의 표어는——반드시 군사학을 상당하게 배워야 될 것이라는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군사 과학은 전쟁 또는 전투진행에 관한 방법문제 즉 전술、작전 운용술、전략등 군술을 그 자체의 중요한 부분으로 하는 이외에 국가 경제 및 사상적 문제까지도 포함한다。때문에 우리 인민군대가 군사학에 정통한다는 것은 곧 군술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상적 가능성까지 알고 참작할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군사학과 병행하여 인민군대에서는 각종 형식과 방

법으로 정치 도덕적 교양사업을 진행한다。 인민군대내에서의 정치상학, 자습, 문화사업, 체육, 민청사업, 군무자 희의등 모두가 교양의 수단으로 되고 있다。

각종 방법으로 실시되는 정치 사상 교육의 근본 사상은 인민군대의 특성에 의하여 규정되며 승리의 담보이며 힘의 원천인 선진적 세계관인 맑쓰—레닌주의로 일관되어 있다。

인민군대의 창건자이신 김일성 장군는「청년들을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준비시킨다는 것은 청년들을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민주 사상으로 교양하며 과학적 선진 리론으로 무장시킬 것을 의미하는것」이라고 말하였으며「국제주의로 일관한 새로운 애국주의로 교양」하라고 가르치었다。(민청 제三차 대회에서 진술한 연설)

김일성 장군의 이 교시는 곧 조선 인민군대의 정치 도덕적 교양의 기본강령으로 되었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김일성 장군의 교시에 립각하여 인민군대에서는 군대가 소유하여야 할 정치 도덕적 교양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인민군대의 목적과 과업을 철저하게 인식시키며 그 정당성을 알게 하는 데 주목을 돌리고 있다。

이것은 곧 근로청년들의 계급적 각성을 제고하며 국가와 인민과 자기의 목적과 리익의 일치성을 알게 하는 데 있다。

엥겔쓰는 정신상 위력에 대하여 말하면서「자기 생활에서 제일 귀중한 것은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옹호할 것을 인식하는 인민과, 그 군대는 세상에 빛나는 용감성을 발휘할 것이며, 전시에 있어 전쟁으로 조국을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인민군대에 있어서는 근로 청년들로 하여금 자기 사업이 정의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며, 인민의 원쑤를 끝 증오할 줄 알게 하며, 군인의 신성한 의무를 끝까지 실행하도록 교양하고 있다。 또한 군인다운 모든 성격 — 전투에서의 무비의 강인성, 강력한 전체적 의지, 목적 달성을 위한 완강성, 대중적 영웅성으로 교양한다。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근로청년들은 타민족의 자주권과 독립 및 자유를 존중히하며 평화 애호 인민들과 친선 단결을 공고히하는 정신으로 교양된다。 이리하여 근로청년들은「인민에게 복무하는 정신과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애국사상으로 튼튼히 무장」(김일성) 되는 것이다。

인민군대에서 진행되는 정치 사상 교양사업는 근로 청년들에게 잔존하는 악독한 일제 사상 잔여와 봉전 사상의 잔재를 숙청하는 강력한 무기로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군대는 조국의 발전과 재체의 발전을 방해하는 온갖 반동적 이데올로기를 숙청하고 과학적 세계관과 새로운 민주주의적 도덕을 소유한 민족 간부를 육성하는 학교로 되는 것이다。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청년들은 소유와 로동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소유하도록 교양된다。 그 실례로서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근로청년들은 자기들이 입대할 때 정부와, 인민앞에 맹약한 선서에 따라 군대에 있는 군사적 재산을 자기 몸같이 애호한다。

인민군대에서는 무기와 전투 기재들이 군대의 위력의 경제적 기초이기 때문에 군무자들은 그를 존중히하고 자기 눈동자처럼 애호하는 것은 보통의 사실로 되어 있다。 그것은 만일 군대에 그 물질적 토대로 되는무기와 전투기재가 없다면 군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군무자들이 명확히 알며, 그것이 인민의 재산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군무자들은 군대 재산을 소홀히하는 것을 선서에 위반되며 인민에게 죄짓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자비하게 투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근로청년들은 집단적 생활에서 훈련되는 민주주의적 단체 정신으로 교양된다。

엥겔쓰는「군대는 무장한 인간들의 조직적 련합체이다」라고 하였다。 다만 군대의 매개 성원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로동자 농민들이 군대라는 단체에서 일정한 목적과 과업에 의거하여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과정에서 고상한 집단의 리익을 존중시하는 정신이 형성된다。

과거 장구한 일본 제국주의 통치하에서 가혹한 탄압과 착취를 당하여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그 발전을 억제당하였던 조선 근로 청년들은「정치 생활을 서로 배우며 배워주는」집결처로서의 인민군대에서 새 사회로 지향하는 근로자들이 소유하여야 할「개인은 전체를 위하여」라는 사상이 배양되고 공고히 된다。 그러므로 인민군대는 로동자와 농민의 단결을 가져오며 국가의 견고한 정치적 력량으로도 구축되고 강화되는 것이다。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청년들에게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태도—진정한 인도주의적 정신이 배양된다。

인민 군대의 영광스러운 전통인 전투적 동지관계—우정과 동지관계가 군대 내에서 고상한 것으로 표현된다。「동무를 위하여 헌신함에 있어서 아끼지 말라!」라는 정신는 인민군대의 고귀한 특성으로 되고 있다。 인민군대 내에서, 이러한 고상한 전투적 동지관계 즉 호상원조와 우정의 관계가 표현되는 것은 군대에 계급적 대립이 없이 일치한 목적밑에 집결되고, 단련된 데서만 가능한 것이다。

인민군대에는 군관과 병사간에 대립이 없다。 그것은 일치한 목적밑에 군무 집행에 있어서 강철같

은 군사 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까닭이다.
군관은 엄격한 지휘관으로만 인정되는것이 아니라 조국 앞에서 자기의 임무를 충직하게 실행하는 전투적 동지로 인정되는 것이다. 군관들은 군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항상 모범이 되며 병사들과 밀접한 련계를 맺어서 진심으로 병사들에게 동지적 충고와 원조를 주는 동시에 군사적 기술에 정통하도록 방조를 주며 병사들의 수양과 생활 조건 및 병사의 요구에 관심을 돌리며 공 있는 자를 표창하고 위반자를 교육하는 것이다.
인민군대에서의 광범한 문화 사업은 근로청년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며 군무의 정력을 고무하는 유력한 방법으로써 각종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근로청년들의 문화수준은 항상 일반 근로청년들에게서 앞서고 있다.
또한 인민군대 내의 민청은 군무자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한다. 민청은 군대 규률과 질서와 조직성을 강화함에 있어서 지휘관의 적극적 방조자로 되며 군무 실행에 모범이 되도록 교양하는 기관으로 된다.
인민군대의 군인회의는 군무자들의 군사 정치적 학교로 되고 있다. 군인 회의는 군무 실행에 제기되는 문제를 토의함으로써 군인들을 선진적이며 애국적 사상으로 교양하며 군사 규률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민주주의적 학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인민군대 내에서 진행되는 정치 사상교양의 각부문과 함께 군무자들은 다른 방면으로 공화국의 권능있는 공민으로서 정치 활동에 참가한다.
자본주의국가에서는 병사들이 어떠한 사회단체에도 참가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며 회의에 참가하는 것도 금지되고 군대와 인민을 대립시키며 병사들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한다. 그러나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근로청년들은 전체 인민들과 함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것이 헌법에 확인되어있다.
군무자들은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비롯하여 각급 인민위원회 대의원으로 피선된다. 이와같이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근로 청년들은 정치적 훈련과 국가 정치생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 참가하는 공민으로서의 임무를 모범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리하여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근로 청년들은 계급적 세계관과 국제주의로 일관한 애국주의사상과 고상한 도덕성으로 무장하고 계급적으로 자각한 그리고 높은 문화적 소양을 소유한 우수한 장래의 민주주의적 민족간부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근로인민을 탄압 착취하고 자본가들의 부(富)를 위하여 타국가를 침략하고 그 국가 인민을 노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 군대는 배타적 민족주의

적으로 교육되며 그들의 계급 의식을 말살하는 교육을 주입하기 때문에 그 군대는 강력할 수 없으며 아무려한 도덕적 원칙을 소유하지 못하는 직업적 강탈자로 될수밖에 없다. 이러한 군대를 독일 파쑈스트 히틀러 군대에서, 일본군대에서, 미 제국주의 군대에서 여실히 볼수있다. 오늘 공화국 남반부에 벌어지고 있는 세기말적 퇴폐적 풍습과 매국 역적들에 의한 인민 도살이 미 제국주의 군대의 지휘밑에 진행되는 사실은 그를 명백히 증명하여 준다. 리승만 매국도당의 소위「국방군」도 역시 이러한 반인민적 군대의 부류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지나간 력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러한 군대들은 자기 행동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없으며 패배와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은 명백한 일이다.
오늘 소위「국방군」내 장병들의 정신이 멸망 상태에 빠지고 있으며 량심있는 허다한 장병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인민유격대의 편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여 주는 정확한 실례이다.
그러나 정의의 군대인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근로청년들은 과학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정의의 목적을 가졌으며 자기 사업의 정당성을 인식하는 정치 사상적으로 무장한 군대이기 때문에 백전 백승의 군대가 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실로 인민군대는 근로청년들로 하여금 조국의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선진 사상과 풍부한 정치적 식견과 문화적 소양을 가진 민족간부로 준비되는 정치적 학교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청년들은 인민군대에 복무함을 공민의 영예로운 의무로서 뿐만 아니라 무한한 행복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민군대는 근로 청년들의 기술적 학교이다

전술한 바와같이 군인들의 정치 의식이 승리의 중요한 요소로 되는 것은 물론이나 그러나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승리하려는 요구만으로는 불만족한 것이다.
一九一九년 공민 전쟁당시 레닌은「열성만으로는 전쟁 진행이 만족치 못한 것이다.
혁명에 몸을 바치는 좋은 군대라도 만일 그가 훈련이 없고 무장을 못하고, 식량 준비가 없다면 원쑤에게 박멸될 것은 명백한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병사들에 대한 고상한 정치, 도덕적 교양과 전투적 교육이 훌륭하다 할찌라도 현대적 무기와 그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기술이 없이는 무의미한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일찌기 레닌과 쓰딸린의 제자이며, 볼쉐위끼적 활동가이며, 장군인 후룬제는「규률과 용감성과 군사교육만 가지고서는 아직 불충분하다.
우리들은 현대적 무기로써 무장한 군대를 가지

고 있어야한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후룬제는 군대 내에 있어서의 무기에 대한 부르조아 리론가들의 허위적 견해를 주의하도록 경고하면서 전쟁에 있어서의 도덕적 요소와 무기의 요소의 비중에 관한 문제를 정당하게 평가하였다。

후룬제는 무기의 요소의 정당성을 규정하면서 무기가 사람의 심리에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정당하고 고귀한 목적을 위하여 피를 흘리는 병사들과 지휘관들의 투쟁 의지를 꺾을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하였다。

그것은 어떠한 위력적인 무기라 할찌라도 만일 그것에 대항하는 투쟁 방법을 알때에는 운명의 결정은 무기가 아니라 무기를 사용하는 기술을 소유한 사람 자신이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병사들이 무기앞에「눈을 감을것이 아니라」그 것을 알고 응용하게 될 것을 완강히 요구하였다。

우리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근로 청년들은 복잡한 현대적 무기를 알고 응용할 줄 아는 기술을 소유하는 것을 자기의 중요한 과업으로 인정한다。

그렇기때문에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기간은 근로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며 지식을 증가시키며 안광을 넓히는 기간이며, 조국을 보호하며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에 정통하는 시기로 된다。

그러므로 기술을 소유할 데 대한 김일성 수상의 연설은 곧 전체 청년들과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근로 청년들의 고귀한 투쟁 강령으로 되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기관들에서 과학 지식으로써 무장된 여러분들의 손으로 운전될적에 우리 손으로 일용품도 의료도 약품도 기계도 자동차도 기선도 비행기도 대포도 마음대로 만들어내게 될 적에야만 우리 조국의 완전 독립은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민주주의 림시정부수립을 앞두고 조선청년들에게 고함)

「기술을 소유하며 과학을 련마하는 문제는 청년 후진들에게 제기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신성한 의무로 되는 문제입니다。

기술과 인재의 기근을 퇴치함이 없이는 우리는 공업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우리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하여서는 급속한 기간 내에 우리의 청년들을 과학과 기술로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민청 제三차대회에서 진술한 연설)

그렇기 때문에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근로 청년들은「군사 기술을 더욱 향상시키며 각종 무기에 정통하여 그의 능수가 되라」는 김일성장군의 교시를 받들고 기술을 습득하기위한 완강한 노력을

하여왔으며 또 하고 있는 것이다。

장구한 일본 제국주의 통치하에 조선 근로청년들에게는 과학 기술을 소유할 길이 완전히 봉쇄되었었다。 조선에는 기술 학교가 극 소수였으며 그나마도 일제에게 완전히 독점되어 근로청년들에게는 취학을 상상케도 못하였다。 또한 생산 직장에서 로동하는 청년들에게도 공장 운영과 기술 부문에는 조선 근로 청년들이 관련하지 못하게 하는 봉쇄정책과 十二시간 이상의 혹심한 로동은 근로 청년들로 하여금 오직 원시적 로동에만 종사케 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로써 조국은 극심한 과학 기술 인재의 기근을 가지고 경제 재건에 들어섰다。 그렇기때문에 기술을 소유한 인재를 양성하는 투쟁은 조국의 가장 절박한 요구로 되고 있다。 즉「온갖 령역의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며「과학의 요새」를 점령하는 행군」은 전체 근로청년들의 투쟁강령으로 되었다。

군대 내에서 근로청년들이 과학 기술을 습득하는 국가적 현실적 의의는 곧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근로청년들이 국가 경제를 운영하고 관리할 줄 아는 민족 인재로 양성된다는 가능성에서 설명된다。

一九二〇년 우크라이나 로동군대에 주는 쓰딸린의 명령서에는 다음과같이 기록되어 있다。

「……전선의 다른 사단들과 더부러 로씨야의 적들과 용감히 투쟁하였으며 또 그들과 함께 제니낀 자원병 군대를 격파한 용감한 제四十二사단은 이제 경제 파괴와의 투쟁에 들어서며 국가에 석탄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장을 반두시 한편에 벗어놓아야 할 것이다。

제四十二사단의 지휘관들이여! 당신들은 제니낀과의 전투에서 붉은 군인들을 승리에로 인도할 수 있었다。

석탄 공황과의 투쟁에서도 당신들이 그에 못하지 않는 승리를 달성할 능력을 가졌음을 증명한다。

……석탄을 위한 투쟁에서도 로동규률의 신성한 기치를 청백하게 보존할 능력을 가졌음을 증명하라。

……로씨야에 있어서 석탄은 제니낀에게 대한 승리와 꼭같이 중요함을 기억하라。

우랄에서 제三군단의 련대들은 화목 채벌과 화목 운반사업에서 벌써 특출한 존재로 되였다。

불가류역 후비군대의 련대들은 기관차와 차량수선 사업에 있어서 영예에 가득차 있다。

제四十二사단은 반드시 그가 석탄을 운반하여 석재하며 호송하는 일을 국가에 보장하면서 다른 부대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로동당출판사판「쓰딸린 전집」제四권 제三六八 — 三六九페지)

국방 쓰베트가 로동 및 국방 쓰베트로 개칭되고 로

련군대가 창설되자 쏘련군대 병사들은 로력전선에서 영웅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철도를 수리하고 폭파된 다리들을 복구하였으며 삼림을 벌채하고 침수된 광갱(鑛坑)에서 물을 뽑아냈다.

병사들의 모범은 모든 로력자들을 추동시키며 사회주의적 토요로동이 조직되고 쏘베트 국가는 거대한 앙양의 기세로써 사회주의 경제를 창설하였다.

오늘 쏘베트 군대에서는 국가에 수천의 뜨락또르 견사를 양성하여 주고 있으며 제대병들은 생산직장 기업소 꼴호즈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며 군대에서 습득한 기술을 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자본주의 국가군대에 있어서 무기와 기술은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을 모르는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는데서, 또는 부정의의 목적을 위하여 리용되는 데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은 명백하다. 또한 군대에서 기술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회 생활에서 아무러한 리익을 주지못하는 것이다.

오늘 미국에서와 같이 제대병들이 전자의 위협에서 봉타 새로운 위협—실업과 빈궁과 기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소유한 기술이 무목적한 것임이 명백하다.

자기 사업의 정당성을 인식치 못한데서 자본주의 국가 병사들은 자기의 투지와 정력과 정신으로써 무기와 기술을 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근로 청년들이 군사 과학과 기술을 소유하는 것이 군무자의 임무로 된다면 그것은 곧 공화국의 경제발전의 긴급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따라서 기술에 대한 근로청년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거대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군대는 공화국의 무력으로써 뿐만 아니라 근로 청년들의 기술적 학교로 되는 까닭에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청년들은 영예스러운 일이며 또한 행복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민군대는 근로 청년들의 전투적 학교이다

인민군대의 강력한 군대 정신의 다른 요소는 그의 전투적 교육정도로 규정된다. 그것은 만약에 군대가 정치 의식과 군사 기술로 충분히 무장하였다 할찌라도 전투적 교육이 결핍되었다면 승리를 획득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일찌기 후룬제는 전투적 교육에 있어서 훈련의 의의를 평가하면서 훈련이 군대의 뼈와 피에까지 침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훈련」—이것은 무목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기본적 목적 즉 조직된 무력으로써 적의 세

력을 격멸하며, 생활적 토대로서 그것을 습득하는 수단 중의 하나이다」라고 말하였다.

후룬제는 또한 전투적 교양에 있어서 공격정신을 그 토대로 할 것을 지적하였다.

우리 인민군대에서는 항상 「강철같은 규률을 확립하며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신뢰하며 단결하는 정신과, 용감하며 솔선 실행하는 정신」을 기르라는 김일성 장군의 교시에 따라 선진적 군사학을 섭취하여 전투적 교육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민군대는 일상적 훈련이 목적있는 것으로써, 또한 각종 전술과 투쟁 방법과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수완을 소유한 강력한 군대로 발전된 것이다.

우리의 인민군대의 공격 정신은 용감성과 결단성 및 영웅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공격정신은 또한 림시적 불성공에 락심치 않고 일시적 퇴각이 공격의 전반적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군무자들에게 철저히 인식시키는 전투적 교양으로 되고 있다.

인민군대의 용감성과 결단성과 영웅성은 안일하고 락관하는 태도를 경계하는 정신—즉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 및 군대의 비밀을 엄격히 준수하는 정신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인민군대에 있어서의 이러한 전투적 수완과 성격은 강철같은 군대 규률로써 튼튼히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군대 규률이 군대의 력량 강화의 담보로 된다는 것을 쓰딸린은 一九一八년, 남부 전선 상태에 관하여 모쓰크바 로동자 병사 및 농민대의원 쏘베트전원 회의에서의 연설에서 「우리 군대의 힘은 그의 자각성과 규률에 있다.

자각성과 프로레타리아트적 규률은 남부전선에서 우리가 성공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라고 말하였다. (로동당 출판사판 쓰딸린전집 제四권 제一九〇페지)

조선 인민군대 내에도 이와같은 규률이 서고 있다.

인민군대의 이러한 규률은 그의 구성인 근로계급의 본질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즉 인민군대의 전투력의 원천인 규률은 자본주의 군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그것은 인민 군대가 수행할 바 사명에서 출발되어 공화국에 대한 사랑과 충직하고 성실하게 조국과 인민에게 복무하려는 고상한 목적에서부터 자각적으로 되며 근로 계급을 핵심으로하는 주권의 보위가 자기의 리익과 일치되는 데서 자각적인 규률로 되는 것이다.

즉 인민군대의 규률은 책망에 대한 공포와 억압에서가 아니라 매개 군무자들이 자기의 임무를 자각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초하며 지휘관들은 항상 그 규률 준수에 모범이 되는 것이다.

강철같은 규률밑에, 용감성과 결단성과 영웅심과 인내성 및 민속성과 침착성, 혁명적 경각성——이것은 오직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근로 청년들만이 철저하게 체득할 수 있는 고상한 애국자의 특성으로 된다。 이러한 전투적 정신은 三八선 경비 구분대에 복무하는 근로청년들에게서 허다히 체현되었다。 그것은 모두다 전투적 교육의 결과로써 표현된 대담성과 영웅성의 체현자들이다。 김일성장군은「우리의 청년 후진들을 건설과 로력에서 교양하며 난관과의 투쟁에서 교양」할 것이며「자기 손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며 자기 조국을 재건하는 영예스러운 역군이라는 정신으로 교양」할 것을 가르쳤다。

또한「청년들로 하여금 원쑤들을 증오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며 그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발휘하여 적과 조금도 타협없는 투쟁을 전개하는 정신으로 교양」할것을 교시하면서「인류 력사는 강한 군대가 자기힘을 과대 평가하고 적을 과소 평가하는 자만심과 현훈중에 걸리어 위험한 시기에 전투적 준비를 망각하고 불의의 공격을 당하여 멸망한 사실을 잘 알고」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렇기 때문에「우리는 자기 대렬을 실상적으로 결속시키며 적에 대한 경각성을 시시 각각으로 제고시키며, 전체 동맹원들을 긴장되고 동원된 상태에서 교양하며, 적의 일거 일동을 시시 각각으로 연구하며, 적의 모략에 대하여 미리 예방하며, 사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적으로 하여금 자기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며, 적을 분멸케 하며, 실패와 멸망으로 인도하는 조국 방위의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민청 제三차 대회에서 진술한 연설)라고 제시하였다。 김일성장군의 이 지시는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근로청년들의 고상한 임무로 되었다。

인민군대는 실로 근로 청년들을 원쑤와 난관과 곤난과의 투쟁을 통하여 애국적 투사와 진정한 건설자가 되게 하는 전투적 학교로 된다。

× × ×

새 사회로 지향함에 있어서 조국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민주주의적 민족 간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의 인민군대가 가진바 의의는 막대한 것이다。

근로청년들은 인민군대에 복무함으로써 과학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정치적 식견과 안광을 넓히고 높이게하며 조국의 과거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망을 총명하게 예견할 수 있는 장래의 지도자로 교육되며 그는 새 사회의 새 인간들이 소유하여야할 새로운 성격과 관념을 가지며 세계평화 안전을 애호하는 인민들의 대렬에 나서는 진정한 국제주의자로 된다。

근로청년들은 인민군대에 복무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을 소유한 문명한 사람으로 되며 그는 자연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를 개조하고 조국과 인류의 행복을 개척하는 영예로운 건설자이며 창조자로 된다。

과학과 기술을 소유한 그들은 조국이 지향하며 세계 인류가 그로 통하고 있는 높은 사회에로의 전진을 촉진시킬 것이다。

근로청년들은 인민군대에 복무함으로써 선진적 과학 리론과 기술을 실천적 투쟁으로 체현하는 투사로 된다。 그는 지식과 기술을 한개의 교리로가 아니라 창발성과 응용력을 가지고 리용할 줄 아는 혁명적 인재로 되는 까닭이다。

이와같은 새 형태의 인간으로 형성되는 것이 오늘 조국이 요구하는 청년들의 기본적 임무이다。 또한 긴박한 조국의 현정세 하에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강력한 무력을 축성함에 있어서 근로 청년들에게 부과된 국가적 임무도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것은 근로청년들의 영예이며 의무인 동시에 그것은 근로청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되는 길이다。 이는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며 그 륭성 발전을 고무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는 까닭이며 조국의 값있는 재산인 준비된 인재를 육성하는 까닭이며 근로청년들이 자기를 무한히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화국 남반부에는 오늘 리승만 괴뢰「국방군」과 진정한 조선 인민의 아들 딸로 구성된 인민군대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빨찌산이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공화국의 전체 근로 청년들로 하여금 인민군대와 남반부 빨찌산에 참가하는 것이 영예이며 고상한 의무이며 행복한 사람으로 되는 길이라는 자각과 열성을 높이게 하기 위한 백방의 대책을 강구함은 조국통일 독립을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동시에 인민군대와 빨찌산에 참가한 근로청년들은 자기에게 부과된 국가적 임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더욱 완강히 노력할 것이다。

「군대의 힘은 그 자체의 질에 의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군대는 공고한 후방이 없이는 오랫동안 족재할 수 없다」(쓰딸린)

인민군대와 빨찌산의 강화를 위하여 전체 인민들은 그를 존경과 사랑으로 원호하며 더욱 긴밀한 련결을 맺음으로써 조국의 통일 독립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조국보위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인민군대를 위한 원호사업의 의의

림 해

현하 우리 조국에 조성된 첨예화한 정치 정세는 조국의 통일과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선 인민들에게 자기 조국의 국가적 방위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잠시라도 무관심할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세계 제패의 탐욕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조선을 분할 식민지화하려고 음흉한 책동을 감행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침략 도구인 「유·엔 조선위원단」과 리승만 매국괴뢰 「정부」를 사수하여 인공적 계선인 三八선을 영구화할 기도밑에 우리 조국에 동족 상쟁의 내란을 도발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 조국통일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조선 인민들이 월쑤들의 간악한 동족상쟁의 내란 도발 음모를 타도 분쇄하고 인민들의 로력으로 쟁취된 북반부 민주 기지를 튼튼히 보위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국토완정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조국보위의 초소에 튼튼히 서 있는 공화국의 무력인 인민군대 경비대 보안대들을 일층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각 수상 김일성 장군께서는 공화국 창립 一년에 관한 보고에서 「인민군대 경비대 보안대들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량을 집중하며、인민군대 경비대 보안대의 전사 하사 군관들의 가족들에 대한 전 인민적 원호사업을 일층 강화하며、조국보위 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며、물심 량면으로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사업들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이는 조국보위를 보다더 튼튼히 하기위하여 우리 전체 인민들이 후방에서 원호사업을 강화할 필요성이 중대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우리 조선 인민들이 이 거대한 사업을 성과있게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조국보위를 위한 투쟁에서 후방이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대하며、후방에서 인민군대를 원호하는 사업의 의의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져야 할것을

요구하고 있다。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인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전쟁에서의 후방의 역할에 대한 레닌—쓰딸린의 과학적 명제와 쏘련의 위대한 조국전쟁 당시의 후방 원호사업에서 얻은 쏘련 인민들의 고귀한 경험이다。

一、

공민전쟁 시기에 있어서 제국주의 련합국의 무장간섭을 격파한 경험에 기초하여 레닌과 쓰딸린은 현대전에 있어서의 후방의 역할을 심오하게 규정하였다。레닌과 쓰딸린이 연구하여 설정한 전쟁에서의 후방문제에 관한 리론적 명제들은 외국 무장 간섭자들과 국내 반혁명자들과의 투쟁에 있어서 볼쉐위끼당에 고귀한 실천적 원조를 주었다。

레닌은 일찌기 「참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공고한 후방이 필요하다」고 당에 지시하였다。쓰딸린은 이 레닌이 지시한 명제를 발전시키면서 장기적인 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고하고 참을성있는 후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쳤다。

쓰딸린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는 군대 뿐만 아니라 후방도 역시 적의 타격을 견디어 내어야만 한다는 원칙을 지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세계의 어느 군대도 공고한 후방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물론 장구하고 확고한 승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전선을 위하여 후방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왜냐 하면 오직 후방만이 전선을 온갖 종류의 공급으로써 뿐만 아니라 또 사람 즉 전사들과 사기와 리념으로도 전선을 부양하기 때문이다。

공고치 못하거나 혹은 그보다 너 적대적인 후방은 가장 우수하고 가장 결속된 군대라도 기필코 강이치못한 연약한 집단으로 전변시킨다。끌차크와 제니낀의 위약성(脆弱性)은 그들에게 「자기」의 후방이 없었으며 진정한 로씨야적 대강국에의 지향으로 관철되어있는 그들이 그러한 동경에 젖대되는 비로씨야적 요소에 의거하여 전선을 형성 공급 보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고 또 그의 군대에 대하여 현저히 적대적인 지역에서 동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사정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내부적 민족적 더구나 계급적 단결까지 상실하고 적대적 분위기에 포위된 군대가 쏘베트 군대로부터의 최초의 강력한 일격에도 격파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로동당 출판사판 쓰딸린 전집 제四권 四〇四페지)

이와 동시에 쓰딸린은 쏘베트 후방의 견고성、단

결성, 견인성이 쏘베트 군대가 외국 무장 간섭자들과 국내 반혁명자들을 타승한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변강들과는 반대로 로씨야 중앙 지대에는 전연 다른 광경이 전개된다。

첫째로 그것은 그 주민의 十분지 九가 대로씨야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적 관계에 있어서 통일 결속되어있다。

둘째로 쏘베트 군대의 전선과 직접적 후방을 보급하는 인적(人的) 환경의 계급적 통일이 농민가운데 신망을 가지고 있으며 농민을 쏘베트 정권의 주위에 긴밀하게 단결시키는 뻬뜨로그라드 및 모쓰크바의 프로레타리아트가 현존함으로써 용이하게 달성되고 있다。쏘베트 로씨야의 후방과 전선간의 놀랄만한 밀접한 관계는 특히 아것으로써 설명되는 데 제니낀—골차크 정부는 그러한 광채를 한번도 나타낸 일이 없다」(로동당 출판사판 쓰딸린 전집 제四권 三六二—三六三폐지)

쓰딸린이 연구 발전시킨 후방의 공고성에 관한 이 새로운 리론적 명제와 개념은 쏘베트 군사과학 발전에 가장 큰 공헌으로 되었다。

이것은 전쟁 행정에 있어서의 후방의 역할을 해명해 줄 뿐만 아니라 후방의 결정적 역할이 무엇으로써 결정되는가 하는것 까지 해명해 주고 있다。

쓰딸린은 후방의 견고성에 관한 개념속에 그의 조직성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쓰딸린은 어떠한 전선에 나아가서든지 후방의 조직사업에 막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그 사업을 몸소 지도하며 종사하였다。

이와 같이하여 몸소 체험한 경험을 총화하면서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군대는 공고한 후방 없이는 오랫동안 존재할 수 없다。공고한 전선을 위하여는 군대는 후방으로부터 보충병과 군수품과 식량을 규칙적으로 받아야한다。이점에 있어서는 주로 동원과 공급 사업에서 량심적으로 꾸준히 공작하는 선진적 로동자들 중에서 능숙한 행정 일군들이 후방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짜리찐은 이러한 행정 일군들이 없었다면 구원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로동당 출판사판 쓰딸린 전집 제四권 一九五폐지)

그리고 련합국 무장 간섭자들의 최초의 두 진격을 격파한 연후에 그 경험을 총화하면서 쓰딸린은 다음과 같은 론단을 내리었다。즉 쏘베트 공화국이 승리를 얻은 것은 「로씨야의 후방이 그리고 따라서 로씨야의 군대가 그의 적들의 후방 및 군대보다 더 견결하였고 더 신축성이 있었기때문이다」(쓰딸린 전집 제四권 三二〇폐지)

전쟁에 있어서의 후방의 역할에 대한 쓰딸린의 이 현명한 규정은 二十五년이 지나서 독일 파씨스트들의 배신적이며 야수적인 침공을 반대하는 쏘베트 동맹의 위대한 조국 전쟁 당시에 더 한층 훌륭하게 확증되었다。독일 파씨스트들은 쏘베트 동맹을 불의에 침공할 당시 벌써 구라파 대부분을 자기의 후방으로 전환시키고 구라파의 무한한 원료 자원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방은 견고치 못하였음으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격파되었다。

독일 파씨스트들이 쏘베트 동맹을 공격한지 四개월 후에 쓰딸린은 독일 파씨스트 도배들의 필연적 파멸의 조건을 다음의 세가지로 규정하였다。

그는「첫째로 제국주의적 독일의 구라파 후방이 튼튼치 못한 것이며, 구라파에서의「새 질서」가 튼튼치 못한것」이며

「둘째로 히틀러 략탈 도배의 독일 후방이 튼튼치 못한것」이며

「셋째 독일 팟쇼 제국주의자들을 대치한 쏘련, 영국 및 미국의 련합」이라고 하였다。(쓰딸린 저 「쏘련의 위대한 조국전쟁에 대하여」三六—四〇폐지)

그리고 쓰딸린은 전쟁이 시작되어 八개월이 경과한 후에 와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전반적 동인을 규정하였는바 그것은「즉 후방의 견고성, 군대의 도덕상 기개, 사단의 수효와 바탕, 군대의 무장, 군대 지휘관 성원의 조직자적 수완」등에 달려있다고 하였다。(쓰딸린 저「쏘련의 위대한 조국전쟁에 대하여」五〇폐지)

이상 례거한 모든 론단들은 조국보위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후방의 견고성이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노는가를 가르쳐주는 고귀한 교훈으로 된다。쏘련 인민들은 볼쉐위끼당의 고무를 받으면서 현대전에 있어서의 공고한 후방의 역할에 대한 레닌—쓰딸린의 현명한 지시에 의거하여 모든 자기의 활동을 쏘베트 군대를 위한 사업에 밀접히 련결시킴으로써 견고하고 확고부동한 쏘베트 군대의 후방을 결속하였다。

위대한 조국 전쟁 행정에서 쏘베트 군대의 후방의 견고성은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이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과 조국의 명예와 자유를 위하여서는 여하한 희생이라도 제공할 각오를 보여준데서 명백히 표시되었다。

전체 쏘련 인민들은 전선이나 후방이나 그 어데를 물론하고 모두다 일치 협력하여 적에 대한 승리를 획득하였다。

쏘련 각 중요 도시들에서 로동자 사무원 학자들로

구성된 인민군을 창설할 수 있었다는 것은 쏘련 인민들의 적을 반대하는 의지의 통일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로동자와 농민들은 로동생산성을 급속히 제고시키라는 쓰딸린의 호소를 실행하면서 전대미문의 긴장성을 가지고 일함으로써 평화적 건설시기보다 二배 내지 三배까지 생산능률을 제고하였다。 그리하여 파씨스트 독일의 경제는 전쟁 행정에서 몰락하던 그때 쏘베트 국가는 원만한 수량으로 전선에 무기와 탄약 및 식량을 공급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후비를 저장할 수 있었을 만큼 생산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쏘련 인민들은 자기 조국의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침략자들을 승리하기 위하여 자기 개인 생활은 돌보지 않고 저금함으로써 국가에 도움을 주었다。

쏘련 빨찌산 부대들은 파씨스트 독일군의 후방에서 희생적 투쟁을 전개하면서 독일군의 힘을 약화시키며, 쏘베트 군대의 투쟁을 용이케하며, 그에 커다란 원조를 주었다。 쏘련에서는 언제나 후방과 전선이 통일되어 있었다。 쏘베트 군대는 독일 파씨스트들을 승리하기 위한 투쟁에서 항상 쏘련 전체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쏘베트 후방의 이와 같은 견고한 진수는 쏘베트 사회의 도덕적 정치적 통일에 의하여 달성된 것이었고,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실이다。 위대한 조국 전쟁 행정에서의 쏘베트 군대의 이러한 후방은 결국 쏘베트 군대가 제국주의의 가장 강력한 군대인 파씨스트 독일군대와 강도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고 력사적인 승리를 쟁취하도록 보장하였다。

이상의 모든 사실들은 조국보위를 위한 투쟁에서의 후방의 역할에 대한 레닌—쓰딸린의 리론의 실천적 의의를 확증하였다。

二、

조국보위를 위한 투쟁에서 후방의 역할의 중대성에 대한 레닌—쓰딸린의 유명한 과학적 명제와 위대한 조국전쟁 당시에 쏘련 인민들이 쏘베트 군대를 위한 원호사업에 바친 애국적 헌신성의 모범 등은 오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 투쟁하면서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 매국도당들의 동족상쟁의 내란 도발 음모를 반대하여 조국보위를 강화하는 투쟁에 궐기한 조선 인민들에게 고귀한·경험 교훈을 준다。

오늘 우리 조선인민들은 자기의 국가적 방위력이 견고함으로써만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부강한 민주 발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인민생활의 안전과 창조적 건설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나는 것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조선 인민들은 조국보위 투쟁에서의 후방의 역할에 대한 레닌—쓰딸린의 명제에 의하여 고무되면서 부강한 조국 건설을 위한 자기의 모든 활동적 에네르기야를 조국의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는 투쟁과 밀접히 련결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선 인민들은 조국보위를 위하여, 후방에서 조국과 인민의 리익의 수호자이며 인민의 진정한 무장력인 우리 공화국 인민군대 경비대 보안대를 물심 량면으로 후원하는 사업에 온갖 애국적 열성을 다 바치고 있다。

오늘 조국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선 인민들의 애국적 열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한층 앙양되고 있다。 생산 기업소내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전체 농민대중들은 공화국 북반부의 二개년 인민경제 계획을 성과있게 실행함으로써 우리 인민무력 강화를 위한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고 있다。

즉 공화국 북반부 로동자 농민들은 「로동자들은 군인들에게 훌륭한 병기와 군수품 군복 일용품들을 제때에 많이 제공하여야 하며 농민들은 군인의 식량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한 김일성 장군의 말씀을 꾸준이 실행하고 있다。 전체 인민들은 조국보위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전인민의 대중적 사회단체인 조국보위 후원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조국보위 후원회 각급 단체들의 지지밑에 청년들의 군사 지식 습득 및 군사 과학 기술연구를 위한 사업과 체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 문화 사업을 비롯한 인민군대 경비대 보안대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전인민적 원호사업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다。

지금 청년들은 조국보위를 위한 군사적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군대 후방사업을 일층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 공화국 인민무력 강화에 공헌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전체 우리 인민들은 북반부 전지역에서 인민군대 경비대 보안대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전인민적 원호사업과 위안사업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다。 우리 인민들은 자기의 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우수한 아들 딸들을 계속 우리 인민군대에 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위문품과 위문편지를 보내는 동 각종 방법으로 군무자들이 조국과 인민에게 충성을 다할 정신상 기개를 제고시키도록 온갖 열성을 다하고 있다。

우리 인민들은 군무자 가족들의 생활 문제를 돌보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 위신을 높이어 줌과 함께 군무자 가족으로서의 영예를 보

강하도록 방조를 주고 있다。

우리 인민들이 조국보위를 위하여 자기의 무력을 강화하려는 애국적 열성은 비단 이러한 사실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군대에 비행기 땅크 및 함선을 헌납하기 위한 기금 헌납운동에서 더욱 여실히 표현되었다。 공화국 북반부의 전체 공장 기업소 광산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二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치렬한 증산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일요일 애국로동을 함으로써 이 기금헌납운동에 참가하고 있는바 흥남비료공장 로동자들은 二백三십五만원, 철산광산 로동자들은 一백만원을 각각 헌납하였다。 농민들은 자기의 여유미를 헌납하는 것으로써 이 운동에 광범히 참가하고 있는데 황해도 신천군 애국농민 림근성씨는 벼 二백가마니를 헌납하였으며 역시 황해도 재령군 애국농민 정유찬씨는 벼 一백三十가마니를 헌납하였다。 기업가와 상업가들도 다시금 쓰라린 노예생활을 거듭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조국의 국방력을 강화하여 적의 침해로부터 국토를 보위하여야할 것이라는 각오밑에 기금헌납운동에 참가하였으며 또. 계속 참가하고 있다。 특히 공화국 북반부에 거주하는 四만 화교들이 一백四十七만원의 거대한 금액을 헌납함으로써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한 것과 멀리 화태도에 거주하는 조선 동포들이 조국보위후원회 함북도 본부에 적지않은 금액을 보내 옴으로써 헌납 운동에 참가한 것등은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었다。 이와 같이 각계 각층의 우리 인민들은 자기들의 자발적이며 애국적인 열성으로써 인민군대에 헌납할 비행기 땅크 및 함선기금을 헌납하고 있다。

三、

전체 우리 인민들이 레닌—쓰딸린의 후방의 견고성의 역할에 대한 과학적 명제에 의거하면서 조국보위를 강화하기위하여 인민군대를 원호하는 사업에 바치는 애국적 열성은 참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는 첫째로 전체 우리 인민들은 조국보위를 강화하기위한 자기들의 애국적 열성으로써 공화국의 무력인 인민군대 경비대 보안대들을 강화 발전시키는데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민들이 조국보위를 위하여 바치는 열화같은 원호의 지성은 모든 군무자들의 완강한 투지와 용감성을 일층 격려 고무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전투력을 더욱 위력있게 강화하는 거대한 힘으로 되고 있다。 전체 인민들의 애국적 지성에서 거출된 비행기와 땅크 및 함선기금은 조국과 인민의 리익의 수호자인 우리 인민군대의 무장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인민군대로 하여금 어떠한 원쑤들의 침공이든지 이를 능히 격퇴할 수 있는 군대로 강화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전체 우리인민들이 조국보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의 애국적 열성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무력인 인민군대 경비대 보안대들과 우리 인민들과의 혈연적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가 있다。 우리 인민들이 말로써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자기·조국을 보위하는 사업에 나서서 군사 지식을 습득하며、군사 과학의 발전과 발명을 위하여 노력하며、자기의 우수한 아들 딸들을 우리 인민군대에 계속 입대시키며、그 아들 딸들을 인민들 자신이 근대식 무기로 무장시키며、각방면으로 후방 원호사업을 강화하는 동으로 군대 후방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사실들은 우리 인민들이 자기의 무력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표시인 동시에 그를 한층더 강화하려는 무한한 열망의 표시로 된다。 이러한 우리 인민들의 자기의 무력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그를 강화할 데 대한 열망은 군무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낳은 인민들에 대한 충성심을 더한층 제고시키게 한다。 이렇게 되어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대 경비대 보안대들과의 혈연적 관계는 견고하여지는 것이다。

셋째 전체 우리 인민들이 조국보위의 강화에 궐기하여 자기의 무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곧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의 력량을 더한층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 조국을 식민지화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 리승만 역도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는 것이다。

이와같이 세계 민주진영의 일익으로 되는 우리 조선인민들이 민족적 원쑤들인 반동세력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은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와 민주의 성채인 쏘련을 위수로한 세계 민주력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며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을 위시한 세계 반동세력에게 타격을 주는 것으로 된다。 이렇듯 오늘 우리 전체 인민들의 조국보위를 위한 투쟁에서 인민무력을 강화하며 군대와 인민들의 혈연적 관계를 더욱 견고히하며 조국보위를 더 한층 튼튼히 강화하는 애국적 투쟁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 × ×

전 조선인민들은 끓어넘치는 환호 속에서 자기의 군대인 조선 인민군 창립 二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인민군대 창립 기념일인 二월 八일은 우리 인민군대의 명절일 뿐만 아니라 전 조선인민의 명

절도 된다。그것은 조선 인민이 一九四八년 이날 자기 력사상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보위하는 당당한 인민군대를 가지게 되였기 때문이다。

영웅적 쏘베트군대가 우리 민족을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기반하에서 해방시켜준 후 우리 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쏘베트 동맹의 성의있는 원조와 우리민족의 영웅이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내각수상 김일성 장군의 옳바른 령도밑에 공화국 북반부에 정치 경제 문화 각방면에 있어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 수립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는 한편 자기들의 진정한 무력인 조선 인민군대를 창설하였다。

오늘 조선 인민군대는 조국보위의 초소에 서서 공화국 북반부 민주 개혁의 제반 성과를 확고하게 보위하면서 북반부 인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고귀한 창조적 사업을· 자유롭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우리 인민군대는 반일 무장투쟁에 일생을 바쳐온 김일성 장군 항일 인민 유격대를 골간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등 근로인민의 아들 딸들로 조직되였기 때문에 반일투쟁의 실지 투쟁에서 얻은 풍부하고 고귀한 경험을 토대로 하였으며, 장구한 혁명적 전통과 애국적 정신으로 빛나는 군대이며, 시종 인민들과 혈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를 낳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군대이다。또한 우리 인민군대는 제국주의 국가의 군대와 달라서 타민족에 대한 멸시와 증오의 정신으로 교양받는것이 아니라 맑쓰-레닌주의의 리론에 근거한 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받고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고상하고 정의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전체 인민들은 오늘 이러한 자기의 군대를 가지었기 때문에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과 인민과 자기 자신들의 생명 재산을 보위하여 줄 것을 위탁하고 안심하고 창조적 건설사업에 종사하고 있다。그러나 우리 인민들의 원쑤 리승만도당들은 아직 소탕되지 않고 있으며 놈들은 공화국 남반부에서 그들의 상전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종하에 조국과 민족의 리익을 유린하며 우리 인민들의 생명 재산를 학살 략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국강토에서 원쑤들을 격파 분쇄하며 독립과 민주,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우리 인민군대를 더욱 더 강화 발전시켜야한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들은 지금까지에 도달한 기본적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일층 분발하여 최후의 승리에 도달할 때까지 자기의 무장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계속 광범히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쏘베트군대는 새 형태의 군대이며 전세계 인민의 친선과 평화를 도모하는 군대이다

리 가 석

군대는 사회가 계급으로 분렬되며, 국가가 형성됨과 함께 발생하였다 라고 맑쓰-레닌주의는 가르치고 있다。따라서 「무장한 인간들의 조직적 련합체」(엥겔쓰)인 군대의 목적과 사명은 각각 그 국가의 조직형태와 사회제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모든 계급사회에 있어서 군대의 역할은 그의 발생 시초부터 소수 지배계급이 다수 피지배계급을 억압 착취하는 강제적 기관으로 되어 왔다。

「어떠한 계급사회에 있어서든지 — 그것이 노예제도에 기초하고 있든, 농노제도에 기초하고 있든, 혹은 현재와 같이 임금로동에 기초하고 있든 — 압박계급은 의연히 무장하고 있다。가장 민주주의적인 부르죠아 공화국, 례컨대 서서(瑞西)에 있어서조차 오늘날의 상비군만이 부르죠아지의 무기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민병도 또한 프로레타리아트를 **반대하는** 부르죠아지의 무장인 것이다。이것은 특히 설명할 필요도 없는 초보적인 진리이다。어떠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동맹파업자들을「반대하기 위하여 군대를 사용한다는 것만 회상하여도 충분한 것이다」(로동당 출판사판 레닌선집 제一권 제四분책 四八八페지) 라고 레닌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전쟁 강령」에서 지적하였다。이와같이 계급사회에 있어서 군대는 끝까지 지배계급들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며, 착취하는 강제적 기관으로 된다。

계급사회의 군대 중에서도 자본주의 국가의 군대는 가장 전형적인 비정의의 군대이다。그는 자본주의 그 자체가 계급사회 체제내의, 가장 고도로되는 악질적인 착취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계급간의 불상용적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쓰딸린은「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 군대는 국가의 중요한 관심 대상으로 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의 중요한 기구로 되었다」라고 지적하였다。

오늘 세계에는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비정의의 군대가 있는 반면에 그 목적과 사명에 있어서 이와는 전혀 반대되는 정의의 군대가 있다。

즉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 쏘베트 동맹을 위수로 인민적 민주주의 국가들의 인민군대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군대들은 자국의 인민들을 억압하거나 타국의 령토를 침범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인민의 행복과 자국의 민족적 독립과 항구한 세계 평화 건설을 위하여 복무하는 새 형태의 군대이다。 이와같은 군대는 인류 력사에서 처음 착취제도를 근절하고 로동자—농민의 주권을 수립한 위대한 十월혁명의 산아인 쏘베트 군대가 그의 시초이며 전형으로 된다。 따라서 쏘베트 국가의 군대기능은 자본주의 국가 군대기능과는 판이한 것이다。

쏘베트 군대의 기본적 기능은 지주—자본가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로동자—농민계급의 전취물을 보호하며 외국으로부터의 무력침공을 방위하는데 있는 것이다。 군대의 기능은 국가 및 사회제도의 형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만큼 쏘베트 국가의 군대도 쏘베트 국가의 형태에 의하여 결정되며 국가의 발전의 외부 환경의 변경에 따라 군대 기능도 변경되어 왔다。 즉 十월 혁명으로부터 착취 계급을 청산하는 기간에 있어서의 쏘베트 군대의 기능은 전복된 계급들의 반항을 진압하고 근로자 다수의 리익을 옹호하였으며 외국 무력 간섭으로부터 쏘베트 조국과 十월 혁명의 전취물들을 보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음 계단에 있어서 즉 쏘베트 사회에서 도시와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를 청산하는 시기로부터 사회주의적 경제 체계의 완전한 승리와 새 헌법을 접수한 시기에 있어서 군대의 기능은 국내에서의 군사적 진압은 필요없게 되었다。「그것은 착취가 청산되었고 착취자들이 더는 없으며 진압해야 할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쓰딸린) 그러므로 이때에 있어서 군대의 기능은 외계의 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 기본적 과업으로 되었으며 또한 자본주의 포위속에 있는 쏘베트 국가에 있어서 이것이 또한 더욱 중요한 임무로 되었다。 다시말하면 무력은 쏘베트 조국의 강토와 인민과 인민들의 전취물을 고수하기 위한 것이니 무력이 국내로 향할것이 아니라 외계의 적들의 침공으로부터 쏘베트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쏘베트 국가를 군사적으로 침공할 기회를 얻으려고 애쓰는 부르죠아 국가들이 있는 한 쏘베트 무력은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 ×

로씨야에서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은 지주—자본가들의 주권을 전복하고 새 형태의 국가—쏘베트 국가를 창건하였으며、쏘베트 국가의 창건자인 레닌—쓰딸린은 지금까지의 인류력사에서、알지 못한 새 형태의 군대를 조직하였으며 육성하였다。 一九一八년 一월 二十八일、인민위원 쏘베트 의장 레닌은 로농 붉은 군대 조직에 관한 법령에 서명하였다。

「각종 승리적 혁명의 첫 개혁은 (맑쓰와 엥겔쓰는 여러번 이것을 강조하였다) 즉、낡은 군대를 파괴하여 그를 해산하며 그를 새 군대로 교체할 것이다。 사회적 계급은 지배권을 가지면서 언제나 또는 지금 지배권을 잡으며 그것을 견고히하는 것은 낡은 군대를 해산하며……곤난한 공민전쟁에서 새 군대 새 규률 새 계급의 새 군사단체를 점차 강구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으며 불가능한 것이다」(레닌전집 제二十三권 三七八—三七九페지)라고 레닌은 썼다。 그리하여 불쉐위끼당은 낡은 군대를 억압의 기구로서 파괴하였다。 불쉐위끼당은 거대한 과업을 실행하면서 군복입은 로동자 농민 병사들을 자기의 편으로 전취하였다。

세계에서 최초인 사회주의 국가 군대의 창건은 새로운 그리고 비상히 곤난한 사업이였다。 불쉐위끼당은 력사가 알지 못한 그러한 군대를 조직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쏘베트 주권이 수립된 첫 몇개월간은 그의 유일한 무장적 기둥은 적위대였다。 그러나 털끝까지 무장한 당시의 적들과 투쟁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였다。 그리하여 불쉐위끼당은 쏘베트 주권의 강력한 군사적 지주로 될 수 있으며 쏘베트 공화국의 우수한 보위자로 될 수 있는 새로운 정규군의 창건에 착수하였다。

새로 창건된 군대는 로농 군대라고 불렀는바 그것은 로동자와 농민의 진정한 리익을 보위할 뿐만 아니라 로농계급들의 출신으로써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새로 창건된 군대는 붉은 군대라고 불렀는바 그것은 그가 혁명적 군대이었으며 붉은 기를 상징으로한 위대한 十월혁명의 전취를 보위할 책임을 진 무력이기 때문이었다。 이 명칭은 또한 적위대의 계승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의 승리와 쏘베트 주권의 수립은 쏘베트 국가에 대한、전세계 제국주의자들의 공공연한 증오를 야기하였다。 그 당시의 쏘베트 국가는 동맹자가 없이、또한 붉은 군대가 없이—다만 편성하기 시작했다—충분한 무장과 식량 피복이 없이 十四개국의 적들과 대항하게 되었다。 전쟁의 불길속에서 쏘베트 국가는 붉은

군대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一九一八년 二월 十四일에 로농 붉은 함대 조직에 관한 인민위원 쏘베트의 포고가 발표되었다。

새로운 붉은 군대와 붉은 함대의 창건은 매우 복잡한 일이었다。그것은 볼쉐위끼당과 쏘베트 정부에게는 그 시기에 아직 군대 조직의 경험이 없었으며, 로동자와 농민 출신의 지휘관이 없었으며, 국내경제는 제국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으며, 인민의 적들은 붉은 군대 조직을 파탄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와같은 정세하에서, 인민의 군대를 창설하기 위하여서는 「새 형태의 군대를 건설하는 제 원칙을 작성하며, 혁명에 충실한 새로운 지휘관들을 선발 등용하며, 그들을 혁명적 규률의 정신으로 쏘베트 정권에 대한 충성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파괴된 경제와 조건하에서 모든 필요물을 군대에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였다」(볼가닌——쓰딸린과 쏘베트 무력)

비상히 곤난한 제 조건들을 극복하면서 레닌과 쓰딸린은 쏘베트 국가 제도에 적응하는 새로운 군대, 프로레타리아 국가의 군대, 해방된 로동자 농민의 군대를 창건하였다。이 군대는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의 전취물의 진정한 요새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근로자들의 리익의 진정한 옹호자로서 출발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에 의하여 창건된 쏘베트 군대는 낡은 군대의 무예(武藝)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새로운 군대의 본질에 적응하여 그 군대가 수행하여야 할 전쟁의 성격에 적응하는 자기의 군사과학이 필요하였다。레닌은 군사과학을 습득할 과업을·당앞에 제시하면서 「우리들의 구호는 단 하나이어야 할 것이다。즉 꾸준히 군사를 배우는 것이다」(레닌전집二十二권 三三〇페지)라고 썼다。볼쉐위끼당은 가장 중요한 이 과업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볼쉐위끼당은 새로운 쏘베트 군사과학의 기초를 닦았으며 그것으로써 쏘베트 군대를 무장시켰다。이 과업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쓰딸린이었다。

볼쉐위끼당은 군대를 조직 강화하면서 군대내에 강철같은 군사적 규률과 질서를 설정하였다。쓰딸린은 一九一九년 八차 당 대회에서 엄격하고 규률준수의 정신으로 충만된 정규적인 쏘베트 군대의 창건을 견결하게 주장하였다。그는 쏘베트 군대의 건설에 관하여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취급된 모든 문제는 한가지 문제에 귀결될 것이다。즉 로씨야에 엄격한 규률을 가진 정규군이 있어야 할 것인가 혹은 없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나……

문제는 이렇게 제기된다。

……우리가 완전한 로동자—농민의 군대 즉 엄격한 규률이 있는 정규군을 창건하여 공화국을 보위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하지않고 따라서 사업을 파탄시키겠느냐」(쓰딸린 전집 로동당 출판사판 제三권 三一三페지)。레닌과 쓰딸린의 제의에 의하여 채택된 八차 당 대회의 군사문제에 대한 결정은 쏘베트 군대의 건설에 대하여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이었다。

볼쉐위끼당과 쏘베트 인민의 위대한 수령인 레닌과 쓰딸린에 의하여 조직된 붉은 군대의 청소한 부대는 一九一八년 二월 二十三일에 쁘스꼬브와 나르바 근방에서 독일강점배를 여지없이 격파하였다。때문에 一九一八년 二월 二十三일을 붉은 군대의 탄생일로 선포하게 된 것이다。그때로부터 붉은 군대는 외국 무장 간섭자와의 투쟁에서 자라났으며 튼튼해졌다。

공민전쟁에서 승리한 쏘베트 국가는 평화시기를 리용하여 자기의 군대를 공고케하며 현대적 기술로 무장시키기에 주력하였던 것이다。이 기간에 있어서 쏘베트 공화국은 사회주의 공업과 꼴호즈 농업을 창설하였으며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여러 민족들간의 우의를 녀욱 튼튼케 하였다。쏘베트 인민은 자기의 군대의 장성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공하였다。쏘베트 인민들의 五개년 계획의 성공적 실현은 쏘베트 군대를 가장 선진적 기술로 무장된 기계화한 군대로 만들어 놓았다。

붉은 군대는 외적의 침공으로부터 쏘베트 공화국을 한두번만 방어한 것이 아니다。그는 一九一八년 독일 강점배와의 전투에서 놈들을 우크라이나 백로씨야 경내에서 휘몰아 내어 쏘베트 조국을 고수하였다。그는 一九一九—一九二一년 외국 무장 간섭자들과의 전투에서 적들을 쏘베트 국가의 경내에서 구축하여 쏘베트 조국을 고수함으로써 쏘베트 조국의 자유 독립을 수호할 능력있는 군대임을 보여 주었다。

쏘베트 군대의 가장 곤난한 경험은 쏘련의 위대한 조국전쟁이었다。一九四一——一九四五년의 위대한 조국전쟁은 쏘련이 지나온 과거 그 어느때의 전쟁보다도 가장 혹독하고 곤난한 전쟁이었으며 동시에 그것은 인민의 모든 력량의 시련과 검열의 위대한 학교이었다。전쟁은 전세계와 쏘베트 사람들에게 레닌—쓰딸린당에 의하여 교양받은 쏘베트 군대의 가장 위대한 역할과 세계사적 사명을 일층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一九四一년 六월 二十二일 히틀러 독일이 쏘베트 조국을 배신적으로 침공하였을 때 쏘베트 인민과 그의 영웅적 군대는 적을 대항하여 단독적으로 용

전하였다。 세계의 수백만 인사들은 혹독한 류혈적 전투에서 적을 격파하는 쏘베트 군대에 막대한 희망을 걸고 있었다。

오랫동안 구라파 제국의 군대들을 전률케하던 독일 군대를 쏘베트 군대는 위대한 령장인 쓰딸린의 령도하에 여지없이 처 물리쳤다。 쏘베트 군대는 자기 인민의 자유와 독립만을 옹호한것이 아니라 히틀러 예속으로부터 많은 구라파 인민들까지 해방시켰다。 여기에 쏘베트 군대의 세계사적 공훈이 있는 것이다。

독일 팟쑈 군대를 승리적으로 격멸한 후 전세계 평화애호 인류의 악독한 원쑤인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단시일내에 격멸하였다。 동서에서 침략의 원흉인 독일 일본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전쟁의 불길속에서 쏘베트 군대는 인민들의 영웅자로서의 자기의 위력을 비길데 없이 전세계에 보여 주었다。 이리하여 쏘베트 군대는 자기에게 력사가 부담시킨 해방적 사명을 충실히 실행하였다。

조국전쟁에서 쏘베트 인민의 승리는 쏘베트 사회 및 국가제도의 승리이며、 또한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군대인 쏘베트 군대의 승리인 것이다。 쏘베트 군대의 위력은 이 군대가 전진적인 사회 및 국가 제도에 립각한데 있으며、 이 군대가 인민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쏘베트 국가의 군사―경제적 위력에 있으며、 또 이 군대가 맑쓰―레닌주의로 무장되어 선전사상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류의 광명한 리상을 옹호하고 있는데 있다。 쏘베트 군대의 위력은 볼쉐위끼당의 교양、 현재의 위대한 령장 쓰딸린의 교양을 받고 있는데 있다。 이와같이 위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쏘베트 인민들은 조국의 운명이 가장 위급한 시기에 자기와 자기 조국의 운명을 쏘베트 군대의 손에 안심하고 맡겼으며 또 쏘베트 군대는 인민의 신뢰에 어그러지지 않게 사업하면서 조국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영예롭게 실행하였다。

그러므로 쓰딸린은 위대한 조국전쟁의 승리를 총결산하면서 「……우리의 승리는 쏘베트 무력이 승리하였다는것、 다시말하면 우리의 붉은 군대가 승리하였다는것、 붉은 군대가 전쟁의 모든 난관을 영웅적으로 극복하고 우리의 적군을 여지없이 분쇄하여 승리자로써 전쟁을 끝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一九四六년 二월 九일 연설) 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전세계사적 승리는 위대한 레닌―쓰딸린당의 령도하에 그들의 수령이며 천재적 명장인 쓰딸린에 의하여 지도되는 쏘베트 인민들과 그들의 무력에 의하여 성취된 것이다。 쏘베트 군대의 위대한 승리와 쏘베트 인민들의 영웅적 위훈은 쓰딸린의 이름과 함께 쏘베트 국가의 력사와 전세계

의 력사에 반드시 기록될 것이며 길이 빛날 것이다。

「어려운 전쟁시기에 현명하고 시련된 쏘베트 동맹의 수령―위대한 쓰딸린이 붉은 군대와 쏘베트 인민을 향도한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행복인 것이다」라고 十월혁명 二十八주년 기념 보고에서 진술한 몰로또브의 말은 정당한 것이다。

× × ×

전투에서 백전 백승하며、 쏘베트 조국을 보위하는 데 있어서와 피압박 인민들을 해방시키는 데 있어서 모범을 보인 쏘베트 군대의 힘의 원천과 특성은 그 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군대와는 달리 쏘베트 국가 새 형태의 군대인데 있는 것이다。

「우리 군대의 제일 근본적 특점은―하고 쓰딸린은 말하였다―이 군대가 해방된 로동자와 농민의 군대이며、 十월혁명의 군대이며、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군대라는 데 있다」 쏘베트·군대는 자기의 인민과 더불어 한 가정을 이루며 그렇기 때문에 쏘베트 인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인민의 군대이다。 쏘베트 군대는 자본가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있다。

쓰딸린은 말하기를 붉은 군대는 「그가 로동자와 농민의 주권을 시인하는 도구이며、 자본가와 지주의 가시발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도구이라는데 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쏘베트 군대가 진정한 인민의 군대라는데 있으며 그러므로 인민과의 련계가 대단히 튼튼하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쏘베트 인민과 쏘베트 군대와의 밀접한 련결은 쏘베트 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 시기에 더욱 명백히 표현되었다。 이 전쟁에서 쏘베트 전사들이 쌓은 영웅적 업적은 총후의 쏘베트 사람들의 헌신적 로력과 합치되는 것이다。「쏘베트 군대는 세계의 모든 군대들 중에 가장 튼튼하고 믿음성 있는 총후를 가진 군대이다。 이에 쏘베트 동맹의 위력의 원천이 있는 것이다」(쓰딸린)

전쟁 기간에 쏘베트 군대에 대한 인민의 방조가 없이는 공장과 제조소、 탄광과 광산、 운수사업과 농업에서의 쏘베트 인민의 헌신적 작업이 없이는 쏘베트 군대의 승리는 있을수 없었을 것이다。

쏘베트 군대는 전인민적 방조에 의하여 무장을 끊임없이 받았다。 즉 땅크와 비행기의 수효에 있어서 적의 실지적 우월성을 없애버리었다。 一九四四년 말에 비행기、 땅크、 대포、 탄약 및 기재의 군수물자의 산출은 수배나 장성된 결과 쏘베트 군대에게 충분한 수효로 공급할뿐만 아니라 예비를 축적하며 무장에 있어서 적을 릉가하였던 것

이다。다 아다싶이 전쟁의 마지막 三년동안에는 쏘베트 군대는 매년 평균 三만대 이상의 땅크、자행포(自行砲)、장갑차를、매년 평균 四만대의 비행기、十二만문까지의 각종 대포、四十五만자루의 경기관총、三백만자루 이상의 장총、약 二백만 자루의 자동총、十만문의 박격포、이와·아울러 이에 대응하는 수량의 폭탄 각종 지뢰、포탄、탄환의 생산을 보장하였다。전선 방조에 있어서 쏘베트 인민들의 영웅적 로력에 대하여 쓰딸린은「만일 우리 군대가 오늘날 무기、군수품 장비에 있어서 정중한 부족을 체험하지 아니한다면 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로동계급의 공훈인 것을 알아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전쟁시기에 볼쉐위끼당의 지도하에 전선과 후방에 식량과 공업 원료를 보장하는 문제를 성과있게 해결하였다。이것은 첫째로 많은 상품곡물과 높은、수확고를 보장한 꼴호즈 제도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다。점령을 당하지 않은 쏘련의 각지방에 있어서는 꼴호즈의 총 파종 면적이 축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二년동안에 약 四백만 헥따르나 증대되었다。파종면적 확장과 수확고 제고의 결과로 一九四四년에는 一九四三년보다 十一억 푸드의 곡물을 더욱 많이 생산하였다。그러므로 쏘베트 군대가『식료의 부족을 느끼지 아니하였으며、주민들에게는 식료를、공업에는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면 이에는 꼴호즈제도의 힘과 생활력、꼴호즈 농민의 애국심이 표현된 것이다』(쓰딸린)

전쟁시기 쏘베트 인테리겐차들은 쏘베트 동맹의 국방사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일하였으며 설사이 없이 붉은 군대의 무장을 개량하며 생산의 기술과 조직을 완성하였다。쏘베트 인테리들은 공업과 농업 생산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로동자들과 꼴호즈 농민들을 방조하며 전쟁의 조건하에서 과학과 문화를 촉진시켰다。「이것은 우리 지식분자들에게 대한 영광을 지어주는 것이다」(쓰딸린)

이와같이 전시에 있어서 전체 쏘베트 인민들이 모든 것을 전선을 위하여 자기의 로력을 정수한 것은 쏘베트 국가의 국경을 보위하며 또한 해방전을 전개하는 쏘베트 군대가 진정한 인민의 군대이기 때문에 보장된 것이다。

그러므로 쓰딸린은「붉은 군대의 탁월한 모든 승리는 무엇보다도、먼저 붉은 군대가 진실로 인민의 군대이며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그것으로써 설명된다。쏘베트 사람들은 자기의 군대를 열렬히 사랑하며 또한 그 위력을 공고케하는데 대하여 항상 고려하고 있다。

이 고려는 특히 위대한 조국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똑똑히 표현되었다。우리 인민 전체는 부단히

전선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주야 노력하였다。로동자 농민 인테리겐차의 헌신적 노력이 없었더라면、그들의 물질적 정신적 방조가 없었더라면 붉은 군대는 원쑤를 격파할 수 없었을 것이다」(一九四六년 二월 二十三일 명령)라고 말하였다。

쏘베트 군대에는 병사 대중과 지휘관들 간에 계급적 대립이 없는 것이 또한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서의 특징이다。모든 쏘베트·병사들은 근로자들의 아들 딸이며 그들은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과 자기의 쏘베트 인민에게 복무한다。쏘베트 륙해 공군의 매개 병사들에게는 장교 장관 및 원수로까지 될 가능성이 부여되어 있다。이것을 위하여서는 오직 그가 필수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며 그리고 인민의 사업에 헌신하는 것만을 요구한다。

쏘베트 군대의 장병들은 도덕—정치적으로 통일된 한개의 전투적 부대인 것이다。이들은 모두 쏘베트의 우의적 근로인민을 대표한다。그러므로 쏘베트 군대의 규률과 단결성은 계급적 또는 민족적 적개심을 가진 자본주의 군대보다 일층 공고한 것이다。가장 격렬한 전투속에서 쏘베트 군대는 병사대중과 그의 지휘적 간부인 장교 및 장관과의 견고한 련결을 전세계에 시위하였다。병사와 지휘관과의 견고한 통일의 목적은 오직 쏘베트 동맹의 영예 자유 및 독립을 옹호함에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서의 쏘베트 군대의 특수한 성격은 그의 규률성에 있다。「붉은 군대는 지금까지에 보지못한 견고한 규률로 창건되었다。몽동이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자각성—충실성 로동자 및 농민 자신의 헌신성을 기본으로 창건되었다」라고 일찌기 레닌은 말하였다。제二차 세계대전은 쏘베트 군대와 같이 지휘관과 병사들 간의 통일의 확고성과 규률성을 가진 군대가 아직 력사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이와 반면에 자본주의 국가의 군대의 지휘관의 성원은 지배계급 출신의 자제들로 구성되어、있으며 병사들은 근로인민의 자제들로 구성되어 었다。그러므로 군대 내에서 지휘적 지위를 차지한 지배계급 출신의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억압하며『천한 가축처럼』취급한다。자본주의 국가 군대 내에 있어서 지휘관과 병사들의 계급적 리해관계의 대립성은 자본주의 국가의 계급적 대립의 적접적 반영이며 또한 이 군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의 군대 규률은 자각적인 규률로 될수 없으며 강제와 무지로써 통제하게 된다。또한 자본주의 국가의 군대들은 인민과 고립되고 있으며 병사는(兵舍)하나의「감옥」을 이루고 있다。

「부르죠아 국가의 상비군은 인민과 격리된 군대이며 인민들을 총살하기 위하여 준비된 군대이

다。 만일 군인들을 여러해 동안 감금하여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군대로 하여금 그들의 형제들인 로동자와 농민들을 총살하게 까지는 교양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레닌)

그러나「쏘베트 군대는 이전 로씨야의 군대와도 같지않으며 구라파 어느 나라의 군대와도 같지않는 특수한 군대이다。 그의 성분은 진실로 인민적이다。 붉은군대의 장병들은 계급적으로 동일하다。 구식 짜리의 군대에서는 이렇지 못하였으며 또 현대 어느 나라의 군대에서도 이렇지 못하다。 붉은군대는 인민과 무수한 련사(連絲)로 련결되어 있다。」(깔리닌)

쏘베트 군대의 둘째 특성은 그가 쏘베트 국가 제인민 간의 형제적 친선의 군대인 점에 있다。 쏘딸린은 쏘베트 군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쏘베트 군대의 모든 본질、그의 모든 조직은 우리나라 인민들 간의 친선을 강화시키며、피압박 인민들을 해방시키며、쏘련의 성원으로된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자유와 독립을 옹호하는 사상으로 형성되였다。」여기에 쏘베트 군대의 력량과 위력의 원천이 있는 것이다。

부르죠아 정치가 력사가 법률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군대 내에서 배타적 민족주의와 타인민들에 대한 증오와 민족적 우월의 사상을 교양함은 군대의 전투적 정신의 결정적 조건이라고 한다。 즉 민족적 및 종족적 증오의 정신으로 군대를 교양하는 이 원칙은 부르죠아 군사학에 있어서 항상 군대의 전투 능력의 기초로 인정되어 왔다。 독일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상기 원칙을 가장 철저하게 준수하여 왔다。 히틀러 강도배들의 군대에게는 단지 타인민을 증오하는 정신만이 주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군대인 쏘베트 군대는 타인민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본주의 국가의 군대와는 원칙적으로 판이하다。 쏘베트 군대는 타인민을 존경하며 친선하는 정신으로 교양받고있다。「쏘베트 군대는 인종 증오에 대한 감정을 모른다。 그 군대가 그처럼 비렬한 감정을 모르는 것은 민족 평등권과 다른 인민들의 권리를 존경하는 정신으로 교양받았기、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는 인종 증오에 대한 것은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쏘딸린은 말하였다。

쏘련은 로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적 국가이다。 쏘베트 국가에는 민족적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계급 즉 착취계급이란 없다。 인종 및 민족별을 불구하고 국가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 쏘베트 공민의 평등권은 법적 불가침의 권리로 되어 있다。

쏘베트 헌법에는「쏘베트 공민에 대하여 그들의 인종별 민족별로 보아 어떠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권리의 제한이라든지、혹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우월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든지、또는 인종과 민족의 우월성 혹은 증오를 선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기록되었다。이와같은 환경에서 교양받은 쏘베트 인사로서 쏘베트 군대의 병사가 된자는 국제주의적 사상을 가진 자이며 인민들 간의 우의적 친선을 위한 투사이다。

쏘련에서 철저히 실현되고 있는 제 인민의 평등권에 대한 원칙은 준엄한 전쟁의 시련기에 있어서 쏘베트 국가와 모든 인민들의 단결과 형제적 협조의 기본이 되었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파씨스트 강탈자들은 쏘련에 대한 자기의 침공을 계획하면서 로동자와 농민 간에 혼란이 시작되며 제민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쏘베트 국가는 와해되리라고 타산하였다。 전쟁은 적의 이러한 타산을 전복하였다。 쏘베트 동맹은 사회주의 다민족 국가로써 전쟁의 모든 준엄한 시련을 극복하였다。 전쟁은 민족문제와 민족협조의 문제가 어떠한 다른 다민족 국가에 있어서보다도 쏘베트 동맹에 있어서 더욱 훌륭히 해결된다는것을 표시하였다。 진실로 사회주의 토대위에서 레닌・쏘딸린적 민족정책의 결과로 쏘베트 국가에는 제민족의 친근하고 유일한 가족이 이루어졌으며 제민족의 친선은 쏘베트 사회의 위력한 추진력으로 되었다。

쏘딸린은「쏘련의 각민족은 현하 조국전쟁을 민족별과 종교 소속별을 불관하고 전로력자들의 공통한 문제로 정당히 인증하면서 일치단결하여 우리 조국 옹호에 일어났다。 이제는 히틀러 정치가들 자체가 쏘련 민족들의 분리와 그들 간의 충돌에 대하여 예산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었으며 믿을 수 없는 것임을 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각민족의 친목은 전쟁의 모든 난관과 시험을 극복하였으며 또는 팟쇼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 쏘베트 사람들의 공통적 투쟁에서 더욱더 단련되었다」(쏘딸린——위대한 조국전쟁에 대하여 三八페지)라고 말하였다。

레닌—쏘딸린적 민족정책은 쏘베트군대 내에서 구체화되었다。 쏘베트 군대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다。 그러나 쏘베트 군대 내에는 전 쏘베트 국내에 그것이 없는 것과 같이 민족적 불화가 없으며 또 비렬한 종족적 우월감이 없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쏘베트 군대는 비범한 통일과 내부적 단결이라는 우월성을 가짐에 이르렀다。

레닌—쏘딸린적 민족정책은 쏘베트 군대의 탁월한 견고성을 보장하며 그의 량적 질적 성장의 성

공적 발전의 중요한 원천의 하나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만이 다민족 국가 쏘련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인민들을 군사에 참여시키며 또 쏘베트 국가의 모든 민족을 자기의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무장으로 옹호함에 참가시키기 위한 가장 광범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다 아다 싶이 쏘련의 모든 인민들은 쏘련 내의 다른 인민들 중에서 지도적 력량으로 되었으며 명철한 리지, 확호불발의 성질 및 인내성이 풍부한 로씨야 민족을 선두로 하여 조국 강토를,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옹호하기 위하여 공동적 사업에로 손에 손을 잡고 싸웠던 것이다.

로씨야인, 우크라이나인, 백로씨야인, 우즈베크인, 따지크인, 뚜르크메니아인, 까작흐인, 구르지아인, 아제르바이잔인, 아르메니아인등은, 쏘련의 모든 인민들의 아들 딸들은, 쏘베트 국가의 동등권 있는 모든 공민들은 무서운 전쟁시기에 있어서 모두나 한 사람처럼 조국 옹호에 궐기하였다.

「쏘베트 애국주의에 있어서 제인민의 민족적 전통과 쏘베트 동맹 전체 근로자들의 공통적인 중대한 리익이 일치 결합하고 있다.

쏘베트 애국주의는 쏘련의 모든 민족을 분리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유일한 형제적/기족에 단합시킨다」라고 한 쓰딸린의 말은 제二차 대전에서 명백히 증명되었다. 이

쏘베트 군대의 셋째특성은 세계의 모든 자유 애호 인민들을 존경하며 그의 인민들의 국가적 독립과 민족적 독립을 옹호하는 국제주의적 정신으로 교양받은 약소민족 해방의 군대라는 점이다.

쏘베트 군대는 자국의 근로자들을 경애하며 전세계 평화를 옹호하여 투쟁하는 군대이며 침략적 목적을 가지지 않은 군대이다. 쏘베트 전사에게 무기를 맡기는 것은 타국인민을 정복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기 위함이다.

쏘베트 군대의 공민전쟁 시기와 또 그후 모든 사변들은 쏘베트군대가 로동자 농민의 정권을 옹호하는 무기로되며 지주와 자본가들의 기반으로부터 근로인민을 해방시키는 목적 즉 근로자들의 해방군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었다. 이것은 특히 독일 팟쇼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던 위대한 조국전쟁에서 명확히 표현되었다.

쓰딸린은 조국전쟁의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였다.

「파찌스트 독일과의 전쟁을 보통 전쟁으로 생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전쟁은 량국간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이 전쟁은 독일 팟쇼 군대를 반대하는 전 쏘베트 인민의 위대한 전쟁

이다. 파찌스트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이 전 인민적 조국 애호전의 목적은 우리나라위에 떠온 위험을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독일 파찌즘의 기반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구라파의 전인민들을 방조하는 데 있다」(一九四一년 七월 三일 연설)

독일 파찌스트 군대는 총칼을 쥐고 전 구라파를 유린하였으며 강탈당한 인민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멸시하였다. 十一개 구라파 국가들은 「신질서」의 희생으로 되었으며 기타 국가들은 「동맹자」로서 억압당하였다. 쓰딸린은 전체 쏘베트전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세계에서 독일 강점배의 토책군(討索軍)을 쓰러버릴 력량인 여러분을 쳐다본다. 독일 강점배의 기반에, 결린 구라파 피예속 민족들이 여러분을 그의 해방자로 보아 쳐다보고 있다. 위대한 해방적 사명이 여러분의 어깨에 부담되었다. 이 사명의 부담자가 당당히 되어지라! 여러분이 진행하는 전쟁이 해방전이며 정의전이다」

붉은 군대는 히틀러 독일과 그 공모자들을 반대하는 전쟁의 전체 책임을 몸소 감당하였다. 이리하여 쏘베트 군대는 히틀러 강점자들을 쏘련의 강토로부터 완전히 추방하고 위대한 해방적 사명을 영예롭게 실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쏘베트 군대는 세계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자로 세계의 운명과 문화의 구원자로 출현하였다.

해방적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쏘베트 군대는 구라파와 아세아의 민족과 령토에 대하여 점탈하거나 예속하지 않았으며 또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뜻대로 자유롭게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며 또 독립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건설할 가능성과 원조를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쏘베트 군대는 세계의 도처에서 인민들의 절대한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조선인민은 제二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쏘베트 군대의 결정적 역할로 말미암아 일본 식민지 통치하에서 해방되었으며 민주주의적 완전 자주 독립 국가 창건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인민 자신의 나라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장군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립 一년에 관한 보고에서 전조선 인민을 대표하여 「……우리 민족이 능히 자유독립의 길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우리의 해방군인 쏘련군과 쏘련 인민과 쏘련 정부와 그의 수령인 위대한 쓰딸린 대원수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 민족은 또한 대대 손손이 그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였다.

불가리야 웰제브 장군은 「전세계 수백만 대중은 붉은 군대를 향하여 감격의 시선을 돌리고 있다.

불가리야 인민과 그의 군대는 누구보다도 그 감격을 더욱 느끼고 있다。 그것은 량국이 력사적으로 공통성을 가진 그 리유로 뿐만 아니라 불가리야 인민은 제二차 세계대전시 붉은 군대가 영웅적으로 싸운 그 해방적 사명을 명백히 인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체코슬로바끼야 쓰워보다 장군은『붉은군대는 우리의 나갈길을 열어주었으며 우리의 조국을 해방시켰다。 붉은 군대는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도록 원조하여 주었다。 붉은 군대는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고 체코슬로바끼야로부터 철퇴하였다。 체코슬로바끼야 인민들은 깊은 감격의 뜻을 품고 우리의 동맹국인 위대한 쏘베트군대—붉은 군대를 전송하였다。 붉은군대는 우리의 장래에 대한 가장 믿어운 보증이다」라고 하였다。

쏘베트 동맹이 팟쇼기반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인민들은 민주주의적 기초위에 자기의 국가 생활을 건설하며 이 행정에서 쏘베트 동맹측으로부터의 형제적 방조를 받고 있다。 비근한 실례로서 제국주의 진영에서 떨어져 나온 중앙 및 동남 구라파 제국가 인민들은 쏘베트 군대가 그들의 강토에 진주하여 독일 파씨스트 강점자들을 구축하고, 영미의 간섭을 미연에 방지하여 준 덕택으로 자기들의 국가에 대한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며 새로운 정치조직인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창설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국가들에서는 인민정권을 강화함에 중요한 조건으로되는 새로운 인민군대들을 창건하였다。 이 군대들은 자국의 독립과 세계평화와 근로자들의 리익을 위하여 인민에게 복무하는 새로운 형태의 군대들이다。

쏘베트 군대는 전세계 인민의 친선과 평화를 도모한다。 쓰딸린은『붉은 군대는 평화와 전세계 인민들간의 친목을 옹호하는 군대이다。 그는 다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쏘베트 나라의 국경을 지키기 위하여 창립된 것이다。 붉은 군대는 일상적으로 모든 나라 인민들의 권리와 독립을 존경하였었다』(一九四三년 二월 二十三일 명령 제九十五호) 라고 하였다。 쏘베트 군대는 세계평화를 위하여 탄생하였으니 쏘베트 군대가 간곳마다 인민들간의, 친선과 평화건설의 기빨이 휘날리고 있다。

× × ×

공산주의 건설을 실천하고 있는 쏘베트 인민들은 항구하고 견고한 평화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절실한 리해관계를 갖고 있다。 쏘베트 인민들에게는 인민경제의 장래발전 및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평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쏘베트 인민들은 제국주의적 야수들이 새 전쟁 도발에 광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

에 평화를 옹호하기 위하여 자기 인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또는 그들의 창조적 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전시에 적을 격멸시키기 위하여 능숙하게 적용한 군사—정치적 학식을 전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 쏘베트 군대의 첫째 과업으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쏘베트 인민들은 자기무력인 쏘베트 군대의 전투력과 위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쏘베트 군대는 공명정대한 쏘베트 대외정책의 충실한 고수자이다。 쏘베트 동맹의 대외정책의 성격은 쏘베트 국가와 사회제도의 우월성으로부터 배출되는 바 그는 온갖 침략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으로 적대하며 인민들 간의 평화적인 관계의 확립 및 보장에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제인민들의, 우의적 협조를 강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쏘베트 동맹의 평화와 친선의 정책은 국제적 위신을 높였으며 국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제二차 세계대전에서 쏘베트 군대는 세계의 자유애호인민들의 절대한 동정과 지지하에 독일 및 일본 강점자들의 희생물로 된 나라들에서 파씨즘을 숙청하고 그 나라 인민들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방조하였으며, 공고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여 왔으며 또 투쟁하고 있다。 그리하여 쏘베트 무력의 제성과는 구라파와 동방 제피압박 인민들을 자유와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고무시키고있다。 전세계 로동운동과 민주주의 운동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식민지 국가들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은 더욱 강력하여졌다。 전체 국가들에서 인민들의 자유를 위한 가장 견결하고 용감한 투사인 공산당과 로동당이 거대한 장성을 이루었다。

그러나 전후시기에 있어서 미국을 수위로하는 반동진영의 반민주주의적 정책은 더욱 로골화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절실한 근본적 리익과는 모순되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제국주의 진영의 옹호자들은 자본주의를 강화하고 민주력량을 질식시키며 민주주의 국가를 미국과 영국 제국주의자들에게 복종시키고 전세계에 대한 무제한한 통치를 설정하며 모든 반동 특히 팟쇼조직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제三차 세계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광분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 제국주의의 전략은 현재 지구상 각국에 전쟁의 불을 일으키려고 준비하여 미국 소수 억만장자들의 리익을 위하여 또는 그들의 명령으로 세계 각국 인민들을 싸움터로 내몰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통치에 대한 망상의 도상에는 세계의 항구한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인민들간의 친선을 도모하는 쏘베트 동맹의 대외정책이 가로막고 서있다. 쏘베트 동맹의 공정한 대외정책은 평화와 민주를 위한 인민들의 튼튼한 요새로 되고 있다. 쏘베트 군대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지향을 억제하는 강력한 평화와 안전의 동인으로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 진보적인 량심있는 인간들은 쏘베트 군대를 경애하며 지지하는 것이다.

쏘베트 동맹의 주위에는 수많은 평화지지자들이 결속되어 있다. 평화지지자들의 전선은 새로 나타난 세계 제패 욕망자들을 제지할 수 있는 력량으로 장성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새 전쟁 방화자들의 음모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력사는 속일 수 없으며 그를 뒤로 돌릴 수 없는 것이다. 력사의 법칙을 새 전쟁 방화자들이 모상하고 있는 어떠한 무력의 법칙으로든지 막을 수 없다. 전쟁 방화자들은 필연코 멸망할 것이다.」(뽀스뻴로브)

평화시기에 있어서의 쏘베트 무력은 천재적 령장인 쓰딸린의 령도하에 정치적 군사적 훈련을 견결히 완성하고 쏘베트국가의 리익을 위하여 피압박 약소민족의 리익을 위하여 평화와 안전의 초소에 견고히 서 있다.

가장 선진적 국가 사회제도하에서 볼쉐위끼당에 의하여 국제주의, 사상으로, 맑쓰-레닌주의로 무장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쏘베트 무력은 쏘베트 대외정책의 견실한 성채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쏘베트 정부와 볼쉐위끼당의 주위에, 굳게 결속된 쏘베트 군대는 마땅히 전세계 평화와 인민의 친선을 도모하는 튼튼한 담보로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위대한 조국전쟁의 천재적 령장

끄·워로실로브

一九四九년 十二월 二十一일 쏘베트 인민은 전체 진보적 인류와 함께 자기들의 현명한 수령이며, 스승이며, 인민들의 평화와 독립을 위한 불굴의 투사이며, 새로운 인류 사회의 건설자이며, 또한 천재적 령장인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 이오씨프·위싸리오노위츠·쓰딸린의 탄생 七十주년을 기념한다.

이날 전 세계에서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로동에 종사하는 모든 인종과 민족 — 수억의 사람들이 희망과 형제적 신망의 정으로 자기의 시선을 쏘베트 동맹으로, 사회주의를 승리한 나라로, 모든 압박받는 사람들의 현명하고 위대한 친우인 쓰딸린에게로 돌린다. 그들은 위대한 쓰딸린을 선두로 하는 쏘베트 동맹을 평화를 위하고, 사회주의를 위하며, 반동과 새로운 세계전쟁 준비자들을 반대하는 위력한 투사이며 영미제국주의의 미친듯한 독재를 반대하는 인민적 민주주의 옹호자들의 투쟁의 성채로 알고 있다.

영웅적 투쟁과 로동의 기간에 볼쉐위끼의 령도하에서 위대한 수령 — 레닌과 쓰딸린의 지도 하에서 쏘베트 인민은 전 세계사적 승리를 달성하였다. 자본가와 지주의 정권을 전복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영원히 숙청하고 국내 및 국외의 적들과의 투쟁에서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 그 국가적 및 정치적 독립을 고수한 후 쏘베트 인민은 거대한 물질적 및 정신적 고귀성을 창조하였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였으며, 공산주의 사회로의 성과적 이행을 실현하면서 있다. 승리를 쟁취한 자랑스러운 의식 속에서 쏘베트 인민은 자기들의 천재적 수령인 위대한 쓰딸린의 탄생 七十주년 기념일에 제하여 위대한 쓰딸린에 의하여 앞으로 인류의 행복의 절정인 공산주의로 향하여 승리의 길로 인도되는 쏘베트 인민에게 있어서는 극복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장애물이나 곤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뜻 깊은 이날에 있어서 쏘베트 조국의 경외

(境外)에 있는 모든 진보적 인류는 깊은 감사와 사랑의 정을 가지고 쏘베트 인민과 그의 영광스러운 불패의 군대의 선두에 서서 수억 인민에게 자유와 독립과 사회주의적 개혁의 조건을 보장하였으며, 전체 인류에게 파씨스트 예속으로부터의 해방을 보장한 위대한 수령이며, 천재적 령장인 쏘베트 동맹 대원수 쓰딸린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있다.

一、

一九四一년 六월 二十二일 독일 파씨스트 군대는 불가침조약을 배신적으로 위반하고 쏘련 령토로 침입하였다.

쏘베트 국경에 집중된 잘 교육받고 기술적으로 장비된 一七〇 독일사단들은 파씨스트들에 의하여 강점된 구라파의 방대한 원료와 풍부한 공업기지에 의존하였으며, 서부에서의 용이한 승리에 의한 도취 — 이 모든 것은 「전격전」 시기에 쏘베트 동맹을 반대하는 전쟁을 승리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는 파씨스트 군인들의 환상적인, 타산을 조장하였다.

一九四一년 六월 三十일 쓰딸린 동무를 수반으로 하는 국방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전쟁 개시후 거의 한달되는 一九四一년 七월 十九일 적들이 미친듯한 습격으로 쏘베트 조국의 내부 깊이 돌입하였던 그때에 쏘련 최고 쏘베트 상임위원회는 쓰딸린 동무를 쏘련 국방 인민위원장으로 임명하였으며, 一九四一년 八월에 최고 쏘베트 상임위원회, 인민위원 쏘베트 및 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쓰딸린은 쏘베트 동맹 무력 최고 사령관의 직무를 접수하였다.

쏘베트 조국의 생활에 있어 실제적인 위험이 사회주의 국가에 닥쳐왔던 가장 곤난한 시기에 전체 쏘베트 인민의 희망을 표현한 당과 정부의 의사에 따라 쓰딸린은 쏘베트 동맹 무력의 선두에 서 있었다.

이와같이 하여 쓰딸린의 이름이 쏘베트 사람들의 관념속에서 핫상 승리에 대한 자신심과 결합되었다는 것을 쏘베트 국가의 전체 력사는 말하여 준다.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 부면에서나, 또는 쏘베트 인민의 적들을 반대하는 전쟁 부문에서나, 한가지인 것이다. 가장 책임적인 직무에 쓰딸린을 임명함으로써 쏘베트 사회의 전체 사람들에게 안심과 희망을 주었으며, 쏘베트 인민은 당시의 가장 곤난한 력사적 시련에서도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쏘베트 인민은 사실 그러하였다. 위대한 조국전쟁 四년의 결과로 잘 훈련되고, 현대적 군사 기재로 장비되고 구라파에 있어서의 용이한 승리로 마음

을 좋고 있었으며 경험있는 군사전문가들에 의하여 지도되면서 구세계(구라파—역자)나 신세계(미주—역사)에서 많은사람들에 의하여 불패의 위력이 있다고 생각되였던 수백만의 히틀러군대는 천재적인 공산주의적 령장인 쓰딸린에게 령도되는 쏘베트 동맹과의 一대一의 결투에서 결정적인 패망을 당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쓰딸린의 전략적 의도와 최고 총사령관의 령도 하에서 영웅적 쏘베트 무력에 의하여 조직되고 실천된 빛나는 작전들의 대 보굴고에 대해서 일일이 매거하여 충분한 분석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록 총총히라 할찌라도 가장 위대한 전쟁시대의 기본적 단계에 대해서 언급함이 필요하다。

가장 결정적인 작전의 특성과 결과에 적응해서 위대한 조국 전쟁을 연구 고찰함에 있어서 군사적 사변의 행정을 대략 네시기로 나눌 수 있다。 그 매개 시기는 쓰딸린적 군사과학의 특성과 부단한 향상 발전을 반영한다。

첫째시기는 一九四一년 六월로부터 一九四二년에 이르는 즉 쓰딸린그라드 부근에서의 쏘련의 반공까지를 포함한다。 쏘베트 최고 사령부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방향에 대한 반격과 반공이 배합되어 있는 적극 방어로써 이 시기에 파씨스트 군대의 타격력을, 파괴시켰으며, 『전격적』 전쟁이라는 독일의 전략을 매장하여버렸다。

쓰딸린의 천재적 령도와 쏘베트 군대의 류례없는 영웅성은 이 시기의 력량대비에 있어 쏘베트 동맹편에 유리하도록 변경시켰으며, 그럼으로써 비록 제二전선이 없었다 할찌라도 쏘베트 군대가 결정적 공격으로 전이하기 위해서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였다。 레닌그라드, 모쓰크바, 찌흐빈, 로쓰또브—이는 그곳에서 독일의 군사력에 대타격을 준 력사적인 지역이다。 이 시기에 독일군대의 불패성에 관한 선설은 일소되어버리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전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쏘베트 사람들의 부단하고 참으로 영웅적인 로력, 전선에서의 쏘베트 군인들의 용감성, 적의 후방에서 아직까지 어데서도 그러한 규모를 볼 수 없었던 만큼 대대적인 쏘베트 빨찌산의 영광스러운 전투행동, 승리를 위한 전체 국가의 긴장, 이 모든 것은 인민들의 력사상 그와 비슷한 것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대략 一九四二년말 즉 쓰딸린그라드 격전으로부터 一九四三년 말까지에 이르는 둘째시기는 위대한 조국전쟁에 있어서 근본적인 전환의 시기이다。 쏘베트 군대는 빛나는 수다한 격전에서 적의 력량에 대한 자기 력량의 우월성을 공고히 하면서 결정적으로 적에게서 전략적 주도성을 빼앗았으며

거대한 전선에서 결정적인 공격으로 전이하였으며 점령당한 쏘베트 령토의 三분지二를 해방하였다。 파씨스트 독일의 무력은 다대한 손실을 받고서 전체 전선에서 방어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독일군에게 대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대격전으로 되었으며 그 격전 후 히틀러 군대는 이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회복할 수 없었던 쓰딸린그라드 부근에서의 二개 독일 파씨스트 군단의 포위와 포로, 남부 독일 전선의 격파, 레닌그라드 부근에서의 봉쇄의 돌파, 전쟁행정을 자기편에 유리하게 전환해 보려는 히틀러의 최후의 기도인 꾸르쓰끄 전투에서의 독일군대의 격멸, 우크라이나 좌안(左岸) 지대의 해방과 드네쁘르 방위전—이것이 이 시기에 있어서 쏘베트 동맹의 승리적 무력이 걸어온 도상에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력사적 도표(道標)이다。

一九四四년의 작전을 포함하는 셋째시기는 쓰딸린적 十대타격으로써 유명한 쏘베트 군대의 결정적 승리의 시기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쏘베트 무력의 공격 행동의 규모와 적에 대한 섬멸적인 특성이 절정에 달하였다。 이 제작전의 결과로 독일의 발칸 동맹자들인 루마니야왕국(王國) 제정(帝政) 불가리야와 다음으로 파씨스트화된 퓐란지야와 호르트 지배하에 있던 웬그리야는 전렬(戰列)에서 떨어져 나갔으며 파씨스트 강점자들로 쏘베트 국가의 령역으로부터 구축되었으며 군사행동은 전적으로 적의 령토로 이전되었다。

레닌그라드 부근에서의 독일의 격멸과 까렐리아 및 끄라이니 쎄베르에서의 퓐란지야군의 격멸, 크림과 우크라이나 우안(右岸) 지대의 해방, 백로씨야에서의 독일전선 중앙의 격멸, 서부 우크라이나와 쁘리발찌크의 해방, 루마니야와 불가리야의 점령 및 깊이 웬그리야로의 돌입—이 모든 작전은 거대한 규모를 가진 고전적 쓰딸린적 공격전략의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 작전에 있어서 쏘베트 군대는 쓰딸린적 교묘한 기동작전을 적용하여 동일한 시기에 적군의 전선을 수개 구역에서 돌파하는 것을 빛나게 실현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쏘베트 군대의 위력한 불시적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적이 예비군을 집결할 수 없게 하였다。 이 시기에 적군의 중요 부대를 포위섬멸하는 가장 완전한 기동형태는 쏘베트 무력의 전투작전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다。

一九四四년 말로부터 제二차 세계대전 종말까지에 이르는 넷째번인 마지막 시기는 히틀러 독일에 대한 쏘베트 동맹의 승리의 완성시기로서 특징지을 수 있다。 三년 간의 전투경험을 풍부히 가지고 모든 복잡한 기동작전형식과 필요한 방향으

로 전투기재의 대량적이고 능숙한 집중을 포함한 전반적 군대의 전투의 전술상 수법을 완전히 소유한 쏘베트 군대는 이 시기에 있어서 단기간에 동부 뿌로시야와 중앙 방면으로 즉 위쓸라로부터 백림에 이르는 모든 영구 요새를 점취하였다。 독일 통수부가 난공불락의 보루라고 타산하였으며 그 위대에 있어서 유명한 「지그푸리드선」에 뒤지지 않는 이 요새들은 그러나 쏘베트 군대의 완강한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제지조차 할 수 없었다。

이 시키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는 독일전선의 남익(南翼)의 격멸, 부다뻬스트와 웬나의 점령, 동부 뿌로시야에서의 독일군의 파멸, 와르샤와—백림방면에서, 재코슬로바끼야, 쎌레지야 및 뽀메라니아 방면에서 적군의 중앙부대의 괴멸,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으로 되는 나치쓰 독일군대의 완전한 격멸과 항복 및 쏘베트 군대에 의한 백림의 점령이다。

四년간의 전쟁의 결과로 천재적인 전략가이며 명장인 쓰딸린에게 령도되는 쏘베트 인민과 그의 승리의 군대는 히틀러 독일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전쟁 첫날부터 쏘베트 군대의 패배를 고대하던 적대 진영과 부리따니야섬(英國—미국)과 대양 건너의 소위 모모 「동맹자」들의 소위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다。

서부에 있어서의 제二전선 창설에 대한 은밀적인 또는 로골적인 태공과 영·미 통수부의 미약한 전략은 독일군대의 모든 위력이 쏘베트동맹을 반대하여 집중되도록 인도하였다。 쏘베트동맹이 될 수 있는한 더욱 피폐하고 약화될 것을, 따라서 전쟁을 지연시킬 것을 원하였던 영 미 「동맹자들」은 자기들의 가치없는 도발적 작난으로써 히틀러에게 三년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후방에 대해서 근심하지않고 자기의 군대와 전투기재를 대량적으로 쏘베트 전선에 집중하여 다만 그 한방면에서만 전쟁을 수행할 가능성을 쥐어주었다。

그리고 쏘베트 군대의 대타격이 불피코 치명적이며, 쏘베트 동맹이 독자적으로 혼자서 나치쓰독일과 그의 추종자들을 처버혀 버릴것이 명백해졌을때 처칠과 마샬 제씨들은 二년이나 늦어서 제二전선을 열것을 서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二、

제二차 세계대전의 전기간을 통하여 반동적 관념론적 세계관을 토대로 하고 있는 파쑈스트 장관들의 군사 사상은 부르죠아국가 군사의 일반적 로대에 아무러한 새로운 것을 첨가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첨가할 수 없었다。 파쑈스트 군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던 가장 큰것은 다시한번 제一차 세계대전에서 파멸당한 모험적 사상인 「불리쓰끄리가」에 구원을 청하는 그것이였다。 그 사상에는 독일 군인들이 현대 전쟁을 과학적으로 리해하는 수준에까지 도저히 제고될 수 없다는 것이 표현되였던 것이다。

쏘련과 히틀러 독일과의 전쟁결과는 「불리쓰끄리가」 방법에 의한 승리에 대한 타산의 완전한 파산을 표시하였다。 히틀러주의로써는 서구라파 자본주의 제국에 대하여 사실적이고 실제적이던 그것이 쏘베트 동맹과의 전쟁에서는 허구적이며 치명적인 것으로 표시되었다。

쏘련에 있어서 사회주의 제도의 조전에서 맑쓰—레닌의 사상과 사회주의적 실천이 지배하는 소전에서만이 진정한 군사과학이 가능한 것이다。

쏘베트 군사과학은 쏘베트 국가무력의 발생과 발전과 동시에—탄생되고 완성되었다。 군사과학을 쏘련에서 쓰딸린적 군사과학이라고 칭한다。 쏘베트 무력의 창건 첫날부터 쓰딸린은 쏘베트 군사과학의 로대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리론적으로 창시하는 데 많은 주의를 돌렸으며 적지 않은 노력을 하였다。

사회발전법칙의 정당한 리해에 근거하고 있는 쓰딸린적 군사과학은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게 됨과 함께 탄생하였으며 쏘베트 국가제도의 토대 위에서 발전 강화되었다。 계획경제, 새로운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이데올로기, 도덕을 가진 사회구조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제도는 쓰딸린적 군사과학의 모든 건물이 안정(安定)할만한 토대를 이룩한다。

현대전쟁의 전체 문제의 합성체에 대한 진정으로 과학적인 지식의 정연한 체계로 되는 쓰딸린적 군사과학은 단순한 군사적 요소—즉 전략, 작전기술, 전술, 군대의 조직과 훈련—와 함께 사회—정치적, 경제적 및 사상적 요인을 합한 전부와 전체적으로 군사에 영향을 주는 협동동작을 포함한다。

과거의 전쟁의 경험을 정통하고 그것을 국가의 사회주의적 성질에 적당히 개조한 군사과학의 구성부분으로서의 쏘베트 군사학(또는 군사예술—역자)은 쏘베트 군대의 지휘간부들을 전략, 작전술, 전술, 군대의 조직과 교육의 부면에서 리론적 및 실천적 지식으로 무장하였으며 그럼으로써 그들이 전쟁의 특성을 정당하게 리해하고 현대적인 작전과 전투의 성질을 천명하고 또한 각병종의 역할과 그들의 사명 및 실천적 리용을 밝힐 수 있게 하였다。

이에 관련해서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에 관한 문제의 쓰딸린적 설명을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요인 중에서 국가의 경제적 및 도덕적 잠재력의 의의는 현대 전쟁에서 승리를 조직하고 달성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지위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

쓰딸린은 이 요인들을 두개의 그루빠로 엄격히 구분하였다. 즉 림시적이며 일시적 관계를 가진것과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 매개 요인의 적당한 지위, 역할 및 의의, 그리고 그들의 호상 관계를 규정하였다.

쏘련을 반대하는 전쟁의 계획기에 독일사령부의 전략적 타산의 토대로 되었던 모든 림시적이고 일시적 관계를 가진 요인들 중에서 쓰딸린은 가장 효과적인 군사적 요인으로서 「불의성의 모멘트」를 갈라 놓았다.

전쟁의 진행과 결과를 규정하는 제二의 그루빠의 요인에 대해서 쓰딸린은 후방의 공고성, 군대의 도덕적 정신, 사단의 질과 수효, 군대의 무장, 장관의 조직 능력을 관련시킨다. 쓰딸린에 의하여 제기된 이 요소들의 심오한 과학적 분석은 리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장 가혹한 전쟁 조건에서 실천적인 의의도 가지는 것이다. 쏘베트 사람들은 전쟁의 전망과 쏘베트 동맹의 승리의 불가피성을 리해하는데 대한 열쇠를 받았다. 쓰딸린동무가 자기의 연설에서 수차나, 혹은 이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혹은 그 중의 한가지를 사변이 발생한 조건에 적응시켜서 언급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장구하게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의 우월성과 의의 및 림시적이며 일시적으로 관계되는 요인의 제한성에 관한 쓰딸린적 론제는 쏘베트 인민과 그의 군대에게 적에 대한 쏘베트 군대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주입시켰으며, 승리에 대한 부동의 신심을 굳게 하였으며, 전선에서의 영웅적 위업으로, 후방에서의 가장 위대한 로동 공훈으로 조직하였다. 자기 력량에 대한 신념, 승리에 대한 확신은 승리의 위력한 요소이며 필연적인 전제로 되었다.

후방의 공고성이라는 개념에는 전체 국가의 생활과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것이 들어간다. 즉 사회제도, 정치, 경제, 생산기구, 근로자들의 조직성, 이데올로기, 과학, 예술, 인민의 도덕상태 등등이다. 현대적 군사 작전의 규모,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의 거대한 수효, 전투기재는 후방에게(전체 국가에게) 비상히 높은 요구를 제출한다. 그것을 제때에 만족시키는 데 군대의 전투행동의 결과가 의존되었으며, 결국은 전체적으로 전쟁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이다.

벌써 전쟁 초기에 히틀러 군대의 불가피적 패망에 대한 쓰딸린에 의한 천재적 예견은 히틀러 독일이 정치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아는데, 즉 적의 후방의 불확고성에 대한, 지식과 쏘베트 후방의 확고성에 대한, 즉 전체적으로 쏘베트 국가의 확고성에 대한 신념을 아는데 근거하였던 것이다.

전략적 전쟁계획시에 있어서 독일 사령부의 오산을 렬거하면서 쓰딸린은 그들이 자기편과 적의 후방 상태를 평가하는데 대한 오산을 첫자리에 세웠다.

「……적은 몹시 오산하였다. 그는 붉은 군대의 력량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쏘베트 후방의 견고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승리에 대한 우리 나라 인민들의 의지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파씨스트 독일의 구라파 후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결국 파씨스트 독일과 그의 군대의 내부적 연약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쓰딸린은 말씀하였다.

쏘베트 후방의 조직과 사업문제에 대해서 쓰딸린은 자기의 연설과 명령에서 군사행동을 보장하고 적을 격파하는 사업에서 후방이 가지는 현저하고도 결정적인 의의를, 강조하면서 전쟁의 모든 단계에 수차나 언급하였다.

「붉은 군대가 조국앞에 자기의 의무를 성과있게 완수할 수 있었으며, 적을 쏘베트 강토로부터 구축하였다면, 그는 이것을 후방으로부터 전체 우리 나라,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이 그를 헌신적으로 지지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一九四四년 十一월 六일 쓰딸린은 자기의 보고에서 말씀하였다.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요인 중 다음가는 것은 군대의 도덕적 정신이다.

이 요인은 모든 형태의 공급—즉 탄약, 기재, 무기, 식량,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사상, 이데올로기, 사기(士氣), 도덕으로도 군대를 보급하는 후방의 도덕적—정치적 상태로부터 유기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과거의 모든 전쟁에 있어서는 전투하는 군대의 도덕적 견결성이 항상 첫째가는 역할을 놀았다.

그러나 현대전에 있어서는 군대 뿐만 아니라 전국 전체 인민이 싸우며, 쌍방에서 수백만의 군대가 전투작전에 참가하며, 비상히 장기적이며 긴장된 전투가 진행되는 만큼 싸우는 군인의 도덕적 견결성, 견인성, 영웅성이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쓰딸린은 이 요인을 위대한 조국전쟁의 결정적 요인 중의 하나로서 특히 내세운 것이다.

모든 장군들과 군사 리론가는 과거에 있어서도

역시 도덕적 요인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였다。그러나 그것을 고립적으로 전쟁의 특성, 전쟁하는 국가의 사회—정치적 경제적 및 도덕적—이데올로기적 기본의 특성과 관련없이 결국에 있어서 적에 대한 승리를 규정하는 역량의 중요 원천인 인민대중과 분리해서 관찰하였다。

군대의 도덕적 요인과 그 의의에 대해서 부르죠아 군사 저술가들도 많은 것을 기록하였다。그러나 군대의 도덕적 품성에 관한 문제에 대한 그들의 론술은 쓰딸린에 의한 그 문제의 설정과 아무려한 공통점을 가지지 않았다。쓰딸린은 도덕적 요인, 군대의 정신을 첫째로 전쟁의 정치적 목적의 특성으로, 따라서 사회제도의 특성으로, 그 나라의 국내 및 대외정책의 특성으로,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식, 문화수준으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및 기타로써 설명한다。

군대의 도덕적 정신은 우선 그리고 주로 전쟁의 정치적 목적의 특성으로 즉 그 나라가 무엇때문에 전쟁을 하는가로써 규정되며 군대의 전사와 지휘관들의 의식정도, 진행하고 있는 전쟁의 정당성과 침입해온 침략적 적군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수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깊이 인식했는가에 따라 자, 기 조국에 대한 사랑과 자기 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 승리에 대한 신념, 국가와 행동하는 부벼의 지도에 대한 신념이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이라고 쓰딸린은 교시한다。

「……우리 군대의 도덕적 상태는 독일군대보다 높다。왜냐하면 우리군대는 자기 조국을 외국 강점자들로부터 방위하고 있으며, 자기 하는 일의 정당성을 믿고 있는데, 한편 독일 군대는 강탈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남의 나라를 략탈하고 있으며 비록 잠시라도 자기의 추악한 일의 정당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쓰딸린)

전쟁의 고귀하고 높은 목적—자기의 사회주의 조국을 야수적인 파씨즘의 침해로부터 방위한 쏘베트 인민과 그의 군대의 위대한 조국전쟁의 목적은 이러하였다—애국자—인민들과 그의 군대의 확고부동한 도덕적 정신의 담보는 이점에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사단의 수효와 질, 군대의 무기, 군대지휘관 성원의 조직자적 능력이다。그것으로써 전쟁의 전략적 계획의 범위와 그의 실현이 제약되며 그것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및 도덕적—정치적 능력으로 규정된다는 것은 더욱더 론박할 여지가 없이 명백한 일이다。

장기적으로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에 관한

그 문제의 다른 측면은 전쟁과정에서 그것이 자기편에 우세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귀결된다。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은 한번 주어지면 영원히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그 우세는 저절로나 기계적으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긴장된 로동과 정당한 지도로써 이루어 지는 것이다。모든 결정적인 장기적이고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요인, 결국에 있어서 쏘베트 무력에게 승리를 보장한 제 요인의 우세를 쌓아올린 점에 레닌—쓰딸린당과 쏘베트 동맹의 수령, 최고 총사령관 이오씨프·위싸리오노위츠·쓰딸린의 가장 위대한 공훈의 하나가 있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승리의 요인에 관한 명제와 아울러、전쟁과 그의 결정적인 대전투나 개별적 작전의 전략적 전쟁계획에 있어서 그와 다른 그보다 적지않게 중요한 명제 즉 후비군에 관한 명제가 서있다。

쓰딸린은 후비군에、대해서 항상 특별히 신중한 주의를 돌렸다。벌써 공민전쟁과 외국간섭 시기에 있어서 후비군의 역할에 대한 그의 평가는 저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조국전쟁의 첫단계에 있어서 적극 방어를 조직함과 함께 장기적인 승리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및 작전적 후비군을 축적하는 일이 쓰딸린의 주의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였다。전쟁의 모든 안계를 통해서 어떠한 작전이든지 최고 총사령관의 요구에 따라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되는 후비군으로서 보장되었어야 하였다는 것은 다 아는바이다。위대한 조국전쟁에 있어서 쏘베트군대의 전투행동에 대한 쓰딸린적 령도의 특성 중의 하나가 이점에 있었다。

최고 총사령관에 의하여 가장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인 지휘간부를 양성하는 과업이 훌륭히 해결되었다。

전쟁행정에서 조국과 볼쉐위끼당에 대한 헌신성을 전투적 사업을 통해서 증명하였으며, 가장 거대한 전투에서 쓰딸린적 전략과 작전 전술 사상을 쟁생한 현실에서 구현시킬 수 있었던 새로운 쏘베트적 군사장관, 장령 및 군관이 자라났다。

三、

전선의 총연장이 수천 키로메터나 되는 위대한 조국전쟁은 가장 복잡한 문제—즉 몇개의 전선의 협동동작을 조직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쏘베트 군사 지도부에 요구하였다。

한개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계획에 의하여 지도되는 류사한 작전의 조직, 부단한 보급 및 관리는 특별히 복잡하고 곤난한 일

이다。이 문제는 군사적 천재인 쓰딸린만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또한 그는 그것을 충분히 해결하였다。

一九四二—四三년 동기의 쓰베트 군대의 공격과 특히 一九四三년 우크라이나 좌안 지대의 해방은 꾸르쓰크 전투에서의 쓰베트 군대의 승리후 수천 키로메터의 군사행동 구역에서 유일한 전략적 계획과 최고 총사령관의 유일한 지도적 의사, 위대한 쓰딸린의 뜻으로 통합된 훌륭하고 적절하게 일치된 수많은 전선의 작전으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베링그해로부터 흑해까지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철저한 동시적 대타격으로써 쓰베트 군대가 파씨스트 독일과 그의 동맹자들의 군대를 완전히 처리해버린 一九四四—一九四五년에 있어서의 쓰베트 무력의 공격작전은, 전선들의 협동동작의 견지로 보아서 그 방대한 규모와 빛나는 결과에 의해서 일층 놀랠만한 것이다。

한개의 전략적、방향에 있어서 여러 전선의 부대들의 협동동작은 물론이요, 개별적인 전략적 방면에서 활동하나, 그러나 유일한 쓰딸린적 전략계획으로 통일된 전선들의 협동동작도 이 모든 빛나는 쓰딸린적 작전에서 완전히 표현되었다。

위대한 조국전쟁에 있어서 쓰딸린의 령도 하에서 군사학의 가장 복잡하고 곤난한 문제중의 하나인 적군의 거대한 무리를 포위 섬멸하는 기동(機動)의 문제가 완전히 실천적으로 해결되었다。

독일 파씨스트 사령부는 마지막 전쟁 시기에 쓰베트 군대를 반대해서, 이러한 전략적 기동을 실현해보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버렸다。쓰베트 군대의 공격작전에 있어서 포위에 대한 이 전략적 기동은 그의 전투행동의 지도적 형태로 되었다。

「능숙하고 과감한 기동으로써 적의 련락을 차단하고 그의 군대를 포위하고 분쇄하고 적의 유생력량(有生力量)과 전투기재를 섬멸하고 점령할 것」이라는 최고 총사령관 쓰딸린의 요구는 각이한 전투정세의 조건하에서 쓰베트 군대에 의하여 적용된 각종의 포위형식에서 완전히 실현되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포위에 대한 작전은 특별히 드문 일이며 우연한 일이라고 하는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부르죠아 군사전문가들의 리론이 사실로써 전도되었다。부르죠아군대、그들의 군사리론과 전쟁실천의 독일파씨스트적 모방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곤난한 것으로 생각되던 그것이 쓰베트 국가의 무력에게는 가능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다。

쓰딸린그라드、끄르쑤이—쉐브첸꼬브、민쓰끄、야쓰—까쉬네브、백림 및 기타 다수의 적을 포위하고

완전 격멸하는데 대한 탁월한 작전들은 위대한 조국전쟁 행정에서 그 가장 복잡한 전략적 및 작전—전술적 기동의 형식을 점차로 정통하였으며 완전히 정통하여 그것을 군대의 전투행동의 가장 다양한 조건 하에서 창조적으로 구현시킨 쓰딸린적 학파의 쓰베트 전사 군관 및 장령들의 장성과 성숙을 훌륭히 시위하는 것이다。

히틀러적 공격 전략을 결정적으로 매장해버린 력사적인 꾸르쓰크 전투 이후 파씨스트 군대는 백림함락에 이르기까지 대소의 정도는 있으나 쓰딸린그라드격전의 재판으로 되는 철저한 섬멸적 패망을 당하였다。

금후 전쟁과 군사학의 력사가들은 「깐니」의 「찌간」만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위대한 조국전쟁에 있어서 쓰베트 군대는 쓰딸린적 전략 사상으로 현실에 구현하였으며 그 수행과 결과가 특별히 훌륭한 적의 주요 부대를 포위 섬멸하는데 대한 대 작전의 실례의 력사를 이루어 놓았다。

그、작전 중의 대다수는 고전적인 전형으로서 전쟁 력사에 들어갈 것이다。다아는 바와같이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적군의 깊이 종대화(從隊化)한 위력한 방어선과、관계를 가지게 되는 현대적 공격작전에 있어서는 그、계선을 돌파하고 적군의 방어 종심(從深)으로 성과를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으로써 정면타격이 결정적 자리를 차지한다。

전쟁행정에서 설치된 쓰베트 최고 총사령부는 고도로 완성된 독일 파씨스트 방어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 가장 곤난한 문제도 거대한 효과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력량과 수단과 전술—작전상의 방법을 발견하였다。그뿐만 아니라 방어전선돌파에 대한 수다한 공격작전에서 쓰베트 최고 총사령부는 다수의 창발적 다양성을 가지고 정면 타격을 적용하였다。그것은 적군의 방어를 급속히、돌파한 후 항공대와의 협동동작 하에 위력한 기동 수단인 땅크、자주포、기계화보병 및 기병의 도움을 받아 다른 형태의 기동으로 전성(轉成)하여 불가피적으로 적군의 포위 섬멸로 인도하게 되거나 또는 전략적 의미에서 깊은 종심으로 적을 격멸하고 추격하는데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일개 방면에 대한 강력한 정면타격、광대한 전선에서 적군의 방어를 분렬한 몇개의 다른 방면에 대하여 분쇄하는 일련의 타격、전선을 대종심으로 절난시키는 타격—작전상 그리고 작전 전략상 엄격히 합치된 이 모든 쓰딸린적 기동형식은 쓰베트 군대의 공격작전에서 광범히 적용되었다。

후방에서 쓰베트 사람들의 영웅적인 사업의 결과

로 최고 총사령관이 타격 및 사격수단(땅크, 비행기, 기주포 및 기타의 포)을 중요한 돌파 방향으로 필요한 대로 대대적인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던 一九四三—四五년에 있어서의 쏘베트 군대의 전투작전은 특별히 섬멸적인 성격을 띠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독일파씨스트 방어전선은 작전일(日)이나 또는 그 다음날 전체 전술적 종심으로 틀림없이 파렬되었다. 이 결과 공격은 대개 비상히 맹렬한 속도로 발전되었다.

전략적 반격과 같은 그러한 결정적 투쟁형식을 특별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쏘베트 무력은 그것을 리용하여 적의 력량과 수단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정세 하에서 적극방어로써 그를 피폐케 하면서 작전적 및 전략적 주도성을 장악하였으며 전체 쏘독 전선에서의 거대한 규모의 계속되는 반공격 작전을, 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이상에 서술한 바로서는 위대한 쓰딸린의 최고 지휘하에 탁월한 쏘베트 장령, 군관 및 위력하고 용감한 전체 쏘베트 륙군 및 해군에 의하여 위대한 조국전쟁 행정에서 그렇게도 성과있게 해결된 전략적 및 작전전술적 문제의 풍부한 모든 것을 도저히 론진하지 못한다.

전선과 대종심에 대한 섬멸적인 특성과 맹렬성을 가진 철저한 동시적인 작전의 거대한 규모, 전투 정세의 어떠한 조건하에서든지 융통성있고 과감한 기동과 합치된 모든 병종의 능숙한 전술상 및 작전상 협동동작, 어떠한 력량의 타격이라도 제지할 수 있으며 결정적 반공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완전하게 달성된 적극방어, 적군의 모든 작전적 전략적 종심의 파멸을 가져오는 중요공격 방향에 대한 땅크부대 및 비행대의 대량적 집중과 효과적인 리용, 각종 포의 가장 적절한 적용형식으로서의 포공격 및 기타 다수의 가장 중요한 제 문제는 위대한 조국전쟁에 있어서 쏘베트 무력의 전투활동에서 정당하고 가장 완전한 해결을 보았던 것이다.

승리적 위대한 조국전쟁은 쏘베트 사회제도의 개가로서 파씨스트 군대에 대한 사회주의 무력의 우월성으로서 독일제국주의의 반동적 교리에 대한 쏘베트적 쓰딸린적 군사과학의 반박할 수 없는 우월성으로서 위대한 쓰딸린의 군사적—전략적 및 령장으로서의 천재의 대승리로서 력사에 들어갈 것이다.

× × ×

파씨스트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의 가장 위대한 력사적 승리, 위대한 레닌—쓰딸린당의 령도하에 천재적 쓰딸린의 최고 지휘하에 쏘베트 인민에 의하여 쟁취된 승리는 세

계 자본주의 제도에 거대한 손실을 주었으며 수억의 사람들이 낡은 세계의 종속관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쏘베트 동맹 주위에 친선한 우의적 민주주의적 가정으로 자유로운 인민들을 결합시키는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위력한 전선은 장성하였다.

판포한 계급적 증오심에 눈이 어두운 영 미 제국주의는 용서없는 력사의 행로를 무력하게도 정지시키려하며 로골적으로 자유로운 인민들에게 새로운 세계전쟁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시기도 변경되었으며 반동 세력 관계도 변경되었다.

사회주의는 다수 국가와 인민들의 생활의 토대로 되었으며 평화를 위한 투사의 진영은 거대한 력량으로 장성되었다.

전세계의 평화를 옹호하는 위대한 쓰딸린의 위대한 목소리는 지구상 방방곡곡으로 침투되고 있으며 전세계 근로자들과 진보적 인사들의 정신과 심장에 침투되고 있다. 그들, 소박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위대한 쓰딸린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새 전쟁 방화자들에 대한 경각성과 실계적인 반항으로 호소하는 경보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쓰딸린의 호소에 대답하여 그들은 평화를 위한,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투사들의 위력한 대렬에 서고 있다.

근로자들과 진보적 인류의 현명하고 천재적인 수령이며 스승인 그에게 영광이 있으라!

전세계 근로자들의 행복과 승리를 위하여 기적적인 인간, 전세계 진보적 인사의 위대한 친우인 쓰딸린의 만수무강을 축원한다!

(一九四九년 十二월二十一일부「쁘라우다」지에서
강 필 주 역)

쓰딸린과 쏘베트 무력

느·불가닌

오늘 우리 조국의 전체 인민들과 전세계의 근로자들은 자기의 위대한 수령이며, 현명한 스승이며, 존경하는 친우인 쓰딸린 동지의 탄생 七十주년을 축하한다.

쓰딸린 동지는 五十년 이상을 근로자들의 행복을 위한 투쟁 사업에 바치고 있다. 자기 희생적 로력으로 일관된 그의 생활은 전체 쏘베트 사람들에 대해서, 전세계 근로자들에 대해서 고무적 모범으로 된다.

쓰딸린 동지의 이름은 근로 인류에게 가장 고귀하고 친근한 이름이다. 쓰딸린은 전체 선진적인 것, 전체 진보적인 것의 상징이다.

쓰딸린은 레닌의 불멸의 사업의 계승자이며,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 건설의 고무자이며, 조직자이다.

쓰딸린은 쏘베트 무력의 창건자이며, 현대의 위대한 사령관이다. 그의 지도 하에 우리 무력은 창건 장성되였으며 공고히 되였다. 그의 지도 하에 우리 무력은 공민전쟁 시기에 원쑤들을 분쇄하였으며, 위대한 조국전쟁에서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사수하고 독일 팟쇼 노예화의 위협으로부터 세계의 인민들을 구원하였다. 쓰딸린은 선진적 쏘베트 군사과학의 창건자이다.

一、

혁명적 전투 속에서 탄생된 쏘베트 국가는 대내외 원쑤들의 파괴 음모에 대하여 튼튼한 방비가 필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볼쉐위끼당 앞에는 혁명을 무장화하며, 혁명군을 조직할 임무가 나섰다. 이 가장 복잡한 임무의 급속한 해결 여하에 우리 인민의 모든 혁명적 전취물의 운명이 달리게 되였다.

세계에서 최초인 사회주의 국가 군대의 창건은 새로운 그리고 비상히 곤난한 사업이였다. 볼쉐위끼당은 력사가 알지 못한 그러한 군대를 조직하

지 않으면 아니되였다. 새 형태의 군대를 건설하는 제원칙을 작성하며, 혁명에 충실한 새로운 지휘관들을 선발 등용하며, 그들을 혁명적 규률의 정신으로 쏘베트 정권에 대한 충성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파괴된 경제의 조건 하에서 모든 필요물을 군대에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조국을 반대하여 개시된 독일, 영국, 불란서, 미국, 일본 및 기타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간섭의 곤난한 조건 가운데서 실현하지 않으면 아니되였다.

믿기 어려울 만치 비상한 제곤난을 극복하는데로 인민을 궐기시키며, 쏘베트 국가의 확고한 보위를 창설하는 것은 오직 레닌 및 쓰딸린과 같은 위대한 수령만이 할 수 있었다. 레닌 및 쓰딸린의 의지와 로력에 의하여 프로레타리아 국가의 군대는 창건되였으며, 이 군대는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의 전취물의 진정한 요새이였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근로자들의 리익의 진정한 옹호자이였다.

쏘베트 국가에 대한 준엄한 군사적 시련의 불가피성을 천재적으로 예견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그에 특유한 파단성을 가지고 당과 인민에게 우리는 엄격히 훈련된 정규군을 창건하고 공화국을 방어할 것인가, 혹은 이것을 하지 않고 멸망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이러한 정규군 새 형태의 군대, 해방된 로동자 농민의 군대는 볼쉐위끼당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또한 이 점에 우리 조국과 전세계 근로자들에 대한 쓰딸린 동지의 위대한 공적이 있는 것이다.

쏘베트 정권의 운명이 결정되던 공민전쟁 시기에 레닌과 함께 쓰딸린 동지는 간섭자들과 백위군들에 대한 승리를 위하여 국가의 전체 력량과 자원을 동원하여 거대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군사 간부들을 선발 교양하였으며, 군대의 당—정치 기관을 창설하고 군대에 대한 정치적 지도 방법을 군사위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군사적 국가 보위의 조직에 관하여 그 작성과 실현에 쓰딸린 동지가 지도적으로 참가하지 않은 문제는 하나도 없었다. 쓰딸린 동지는 가장 중요한 군사—전략 계획의 작성자이였으며 쏘베트 군대의 결정적 전투 작전의 직접 지도자이였다. 짜르친과 뻬르미 부근에서, 또 데니낀을 반대하여 뻬뜨로그라드 부근에서, 지주적 파란을 반대하여 서방에서, 또 우랑겔을 반대하여 남방에서—어데서나 쓰딸린 동지의 강철같은 의지와 사령관으로서의 천재는 쏘베트 군대의 승리를 보장하였던 것이다.

쏘베트 정권의 공고화를 위한, 우리 조국의 자

유와 독립을 위한 우리인민의 영웅적 투쟁 력사상에 위대한 수령이며, 사령관이며, 수다한 원쑤들에 대한 승리의 고무자이며, 조직자인 쓰딸린 동지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되어 있다。

공민전쟁 시기에 있어서 간섭자들의 분쇄는 우리 사회주의 조국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군사적 모험의 위험성을 제거한것은 아니였다。 새로운 군사적 시련에 국가를 대비(對備)시키기 위하여 쟁취된 소휴기(小休期)를 리용함이 필요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당과 쏘베트 인민에게 군사적 공격의 위험을 항상 기억하며 또 어떠한 우연성도, 외적의 어떠한 음모도 불의에 만나지 않도록 동원된 군비 상태에 있을 것을 루차 호소하였다。

위대한 레닌이 서거하였을 때 쓰딸린 동지는 볼쉐위끼당의 이름으로써 쏘베트 국가의 국방력을 부단히 재고하며, 그의 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힘을 아끼지 않겠다는 력사적 맹세를 하였다。

우리 인민에 대한, 력사에 대한 쓰딸린 동지의 가장 위대한 공적은 그가 쏘베트 동맹의 위력을 공고화하는 옳바른 방도와 수단을 발견하고 교시하였다는데 있는 것이다。 이 가장 중요한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결정적 조건과 주요한 전제로 된 것은 쓰딸린적 국가 공업화 및 농촌경리 집단화 정책이였다。

쓰딸린 동지의 지도 하에서 쏘베트 인민은 단기간내에 국가를 근본적으로 개조하고 그를 군사적 관계에 있어서 강력하고 또 대규모적으로 현대식 병기(兵器)를 생산할 수 있는 선진적 공업 강국으로 전환시키였다。

만일 위대한 조국전쟁 시기에 우리 나라가 무장, 군수품, 탄약 및 식량에 대한 우리의 방대한 수요를 완전히 보장하여 준 강대하고 순조로운 군사 경제를 가졌다면 이것은 오직 영명한 쓰딸린적 정책에 의하여서만이, 우리 조국의 군력에 대한 쓰딸린 동지의 부단한 배려에 의하여서만이 가능한 것으로 되었다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나 명백한 것이다。

병기를 생산하며 그것으로 륙군 공군 및 해군을 무장할데 대한 거대한 온갖 사업은 쓰딸린 동지의 직접 지도 하에서 실시되였다。 그는 몸소 신식 무기를 제조하는데 일일이 참가하였다。 그의 지도 하에서 신식 비행기, 땅크, 대포, 전투함 및 기타 병기의 제조문제들을 취급한 설계가, 비행사, 땅크병, 포병, 해병 및 우리 공업 활동가들의 회의들이 소집되었던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군사 간부들을 볼쉐위끼당에 대

한 헌신적 충성의 정신으로, 쏘베트 애국주의의 정신으로, 인민에 대한 자기 희생적 복무의 정신으로 교양하면서 그들의 육성에 끊임없는 배려를 항상 돌리었으며 오늘도 돌리고 있다。 만일 우리 군대가 단련된 진정한 간부들을 충분히 가지게 된다면 그는 불패일 것이라고 쓰딸린 동지는 말하였다。 조국 전쟁은 위대한 쓰딸린에게 교양받은 쏘베트 군사 간부들이 모든 방면에 있어서 쏘베트 군사과학이 요구하는 수준에 달하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국에 대한 쓰딸린 동지의 가장 큰 공적으로 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원쑤 앞잡이들을 분쇄한 그것이다。 쏘베트 인민의 원쑤들 즉 우리 나라의 경제적 및 군사적 위력을 파괴하고 전쟁의 경우에 제국주의자들에게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려고 시도한 뜨로쯔끼 도당, 부하린 도당 및 기타 제국주의 고용자들의 청산은 사회주의를 성공리에 건설하며, 쏘베트 국가의 국방력을 공고히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였던 것이다。 인민의 원쑤들의 분쇄는 대규모적 전투의 승부(勝負)에 필적하는 것이였다。

우리 나라의 군사적 위력이 가일층 장성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은 자본주의적 포위의 조건하에서의 사회주의 국가의 역할과 임무에 관해서 쓰딸린 동지가 창설한 완전 무결한 학설을 근거로 하여 쏘베트 국가를 백방으로 공고화할데 대한 볼쉐위끼당의 사업이였다。

사회주의 국가에 관한 쓰딸린 동지의 학설로 지도되면서 볼쉐위끼당과 쏘베트 정부는 륙군과 해군을 가일층 공고화할데 대한 실제적 방책들을 실시하였다。 변경된 제조건에 따라 우리 군대의 보충 제도는 변경되였다。 쓰딸린 동지의 제의에 의하여 또는 그의 직접 참가하에서 전반적 군사의무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 새로운 법규와 교령(敎令)이 실시되었다。

쓰딸린 동지의 지도에 의하여 쏘베트 무력은 우리의 원쑤들이 무서워하는 힘으로 장성하였다。

쏘베트 국가의 무력을 공고화할데 대하여 부단히 사업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동시에 우리 나라의 대외정책을 제인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투쟁의 길로 향하게 하였다。 그는 팟쇼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 전쟁 준비에 대하여 세계 인민들에게 투차 경고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전쟁 방화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 파시스트 침략자들을 제어(制禦)하기 위하여, 단결할 것을 자유 애호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정부들은 우선 미국 및 불란서 정부들은 전쟁 방지에 대하여 방책을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독일 파시스트들을 백방으로 추동하고 그들을 반쏘 전쟁에로 교사하였다。제국주의 정부들의 이 반역적 정책의 댓가로써 제二차 세계대전 시에 구라파 인민들은 수백만 사람들의 사망과 신음을 당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의 페허를 당하였다。

二、

팟쇼 독일의 공격은 우리 조국에 대해서 큰 위혁을 조성하였다。히틀러 도당들은 쏘베트 국가를 없애버리고 우리, 인민을 노예로 만드는 것을 자기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내세웠다。사태는 쏘련 인민들의 생사에 까지 이르렀다。전체 쏘베트 인민들의 마음과 기대는 쓰딸린 동지에게 돌리어졌다。우리 조국에 대해서 이 곤난하고 위혁적인 시기에 우리의 수령이며, 스승인 쓰딸린 동지의 위대성은 뚜렷하게 나타났다。그는 국가와 인민의 운명에 대한 전체 책임을 담당하고 최고 사령관으로서 적의 공격을 반대하는 투쟁을 령도하였다。이것은 우리 조국을 노예화와 파괴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들을 위대한 력사적 승리에 이르게 하였다。전쟁 첫날에 쓰딸린 동지는 위대한 조국 전쟁에로, 원쑤의 분쇄에로, 승리를 위한 자기 희생적 투쟁에로 쏘베트 사람들을 호소하였다。一九四一년 六월 三일 인민에게 보내는 자기 호소문에 그는 우리의 전쟁의 정의적 성격을 밝히였으며, 히틀러 군대의 불패에 관한 신화를 폭로하고 그의 패배의 불가피성을 예언하였으며 독일 팟쇼 침략자들을 분쇄하는 명확한 프로그람을 작성하고 전쟁에 있어서의 인민과 군대의 임무를 규정하였다。쓰딸린 동지는 온갖 사업을 군사 체제로 재건하며, 모든 것을 전선의 리익에, 원쑤를 분쇄하는 조직의 임무에 종속시키며, 쏘베트 땅은 한치라도 시수하며, 원쑤를 괴로웁게 하며, 적의 후방에서 빨찌산 전쟁을 일으킬 것을 당과 쏘베트 사람들에게 호소하였다。

모든 사람에게는 一九四一년 十一월 七일 모쓰크바 붉은광장에서 진술한 쓰딸린 동지의 력사적 연설의 위대한 동원적 힘이, 역시 기억에 남아 있다。이 연설은 우리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일관되어 있었다。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시의 사태는 지극히 엄중한 것이었다。원쑤는 모쓰크바와 레닌그라드의 근방에까지 박두하였다。이느 쏘베트 사람이던 자기 조국에 대한 불안의 감을 금하지 못하였다。바로 이러한 곤난한 환경 속에서 승리에 대한 즉 우리의 옳은 일의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가득찬 우리 수령의 연설은 우렁차게 울렸던 것이다。과연 우리가 독일 침략자들을 이길 수 있으며 또 이겨야 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가? 악마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 무서운 것은 아니다。팟쇼 독일은 자기의 범죄의 압력 밑에서 짓밟히고 말 것이다 라고 쓰딸린 동지는 말하였다。

쓰딸린 동지의 연설은 우리 인민의 의기를 발분시켰으며, 군대 내에서 사기(士氣)의 비상한 왕성을 일으키었다。「쓰딸린은 우리와 함께 있다。쓰딸린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다。따라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당시 전사들은 전체 인민과 함께 말하였던 것이다。

一개월후 모쓰크바 근방 전투에서 우리 군대는 히틀러 군대에 대하여 혁혁한 승리를 획득하였다。쓰딸린 동지는 몸소 이 가장 큰 전투의 전 행정을 지도하였다。그는 우리 부대 또는 혼성부대들의 전투 행동을 고무 지도하였다。

쓰딸린 동지의 영명성과 대담성은 모쓰크바 근방 전투에서 각별히 나타났다。전선의 곤난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쓰딸린 동지는 후비군을 시기상조적으로 사용할 데 대하여 용허하지 않았다。서부 전선 사령부는 모쓰크바 근방에 있는 대후비군이 참모부의 통솔하에 있는 것을 알고서 증원대(增援隊)를 요청하였다。그러나 쓰딸린 동지는 현존 병력으로 적을 제지할 것을 요구하였다。곧 쓰딸린적 결정의 현명성은 알게 되었다。쓰딸린 동지는 결정적 반격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후비군을 보존하여 두었던 것이다。필요한 순간에 전선은 후비군을 충분히 받게 되었다。그리하여 이것은 모쓰크바 근방에서 적을 분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었던 것이다。

위대한 조국 전쟁의 그후 행정에서 쓰딸린 동지의 천재는 더욱 더 철저하게 또 뚜렷하게 나타났다。이 점을 증명해 주는 것은 쓰딸린그라드 전투, 꾸르스크 전투와 같은 그러한 유명한 전투의 성과들이며, 一九四四년의 공격 작전 특히 독일 침략자들로부터 백로씨야 사회주의 쏘베트 공화국과 그의 수도 민쓰크시를 해방시키는 작전 즉 독일 중앙군의 괴멸과 그 성원의 거의 완전한 섬멸 및 포로로 끝나고만 작진이며, 一九四五년의 동기 공격과 전쟁 종결 작전 즉 쓰딸린적 군사지휘 기술의 가장 위대한 승리로 되는 베르린 작전이다。

쓰딸린 동지의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우리 해군은 륙군의 진정한 방조자로 되어, 전시에 적의 후방 련락로에서 적지 않은 적함들을 침몰시키고 로씨야 해군 력사에 빛나는 새 페지를 기입하였다。위대한 조국전쟁의 모든 작전은 쓰딸린 동지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그의 지도 하에서 실시되었다。작전계획 작성에 그가 참가하지 않은 작진은

하나도 없었다. 어떠한 작전 계획을 최후로 확정하기 전에 쓰딸린 동지는 그것을 자기의 가장 가까운 전우들과 각방면으로 연구 토의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해군과 륙군의 전선 사령관들의 의견과 제의를 청취하였는 바 그는 이때에 모든 진술된 제의와 의견들에 대해서 그는 특유한 영민성과 주의를 나타냈던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작전 준비에 즉 작전을 모든 필요한 것으로 또 우선 항공기 대포 땅크들로 보장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돌리였다. 그는 적을 확실히 그리고 최소한도의 손실을 가지고 타격하는데로부터 항상 출발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매개 작전의 전체 행정을 몸소 지도하였다. 그는 매일 더우기 하루에 몇번이나 자기의 지시에 대한 집행을 검열하고 충고를 주었으며, 사령관들의 결정들을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하였다.

예정된 작전 실시에 대한 군대의 준비상태를 현지에서 검열하기 위하여 쓰딸린 동지는 몸소 전선에로 갔다. 쓰몰렌스크 작전의 개시 전에 그는 서부 전선에 도착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전선의 지휘부에 도착하자 곧 작전에 대한 전선사령부와 군대의 준비 상태를 검열하고 세력 배치에 대하여, 또는 항공기 땅크 대포 및 기타 모든 보장 수단 및 공급으로 그것을 보장할 데 대하여 가장 철저하고 명확한 지시를 주었다. 쓰딸린 동지는 작전의 각개 단계에, 전투 행동의 각종 전개 단계에 사령부의 주의를 돌리게 하였다. 전선 사령부에게는 예정된 작전의 의의가 더욱 더 명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작전은 큰 성공을 가지고 또한 참모부가 확인한 계획과의 완전한 일치하에서 끝났던 것이다.

三、

위대한 조국 전쟁에 있어서 쓰베트 무력의 력사적 승리는 쓰베트 군사 과학의 위력과 활동력을 실지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벌써 공민 전쟁 시기에 쓰딸린 동지는 선진적 쓰베트 군사 과학의 기초를 구축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무력은 자기 력사의 전 기간을 통하여 쓰딸린적 군사과학의 제법칙에 따라 건설되었으며, 훈련을 받았으며, 또 전투 행동을 하였다. 맑쓰—레닌주의 학설에 립각하고 또 과거의 군사 기술 중에서 가장 우수한 모든 것을 섭취한 이 과학은 현대 전쟁의 수행과 그 승리 쟁취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철저한 대답을 준다.

쓰딸린 동지에 의하여 창설된 군사 과학은 전술 작전 기술 및 전략의 제문제 즉 원래의 군

사 기술의 제문제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국은 물론 적국(敵國)의 경제적 및 사상적 가능성의 문제들도 역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 리론가로서의 쓰딸린 동지의 천재성은 무엇보다도 그가 전쟁 경험들을 일반화하여 력사상에서 처음으로, 군사 과학을 창설한 데 있는 것이며, 이 군사 과학은 대담하게 군사 기술의 범위를 벗어나 또한 그럼으로써 전술과 전략의 문제만을 포함한 낡은 「고전적」 군사 과학의 전통과 절연하였다.

쓰딸린적 군사 과학은 옳은 전략 및 작전 계획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을 경제적 가능성들로써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도 역시 요구하며 또 훌륭한 전략 및 작전 계획들의 현존은 설사 전쟁승리의 하나의 중요 조건으로 된다 할찌라도 역시 그 자체로써는 즉 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함이 없이는 승리를 위해서 아직 불충분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현대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에 관한 문제를 쓰딸린 동지는 전쟁의 정치적 성격과 결부시킨다. 쓰딸린 동지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전쟁은 해방적 및 정의적 전쟁이 있으며 또 략탈적 및 침략적 선쟁도 있는 것이다.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또는 인민을 옹호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전쟁은 전(全) 전쟁 기간을 통하여 인민과 군대의 고도에 달한 정신적 지지를 받는데 유리하다. 인민의 리익을 거역하고 수행되는 전쟁은 이것에 불리하다. 더나아가 훌륭한 전쟁 계획과 고도의 경제적 가능성의 현존은 만일 한가지 조건 즉 전 전쟁 기간을 통하여 인민과 군대의 고상한 정신적 의기(意氣)가 현존하지 않는다면 승리를 위하여 불충분한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쓰베트 군사 과학은 인정한다.

쓰딸린 동지는 군사 과학의 하나의 구성 부분으로서의 군사 기술의 문제들도 전면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작전 기술에 대한 리론과 현대적 전술 및 전략을 창전하였다.

쓰딸린적 군사 기술은 원쑤와의 투쟁 형태 및 방법의 선택에 관한 문제를 창조적으로 취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부르죠아 군사 기술에 특유한 낡은 형식과 독단론과는 관계가 없다.

쓰딸린 동지가 창설한 군사 기술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작전에 대한 면밀한 준비와 작전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훌륭한 작전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것은 아직 작전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쓰딸린 동지는 항상 교시하였다. 작전 계획은 사업 개시에 불과하다. 계획 수행에 대한 준

비, 계획을 사람, 기술, 후비 등등으로써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데 결정적 의의가 있다.

쓰딸린적 군사 기술은 위대한 조국 전쟁의 그 규모에 있어 일찌기 보지 못한 작전들에서 가장 명백하게 표현되었다. 이 작전의 특장은 그것이 전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그것이다.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에 있어 매개 작전은 계획의 독창성, 그 실현의 창조적 독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쓰딸린 동지는 계획된 목적에 조성된 정세에 가장 완전히 일치하였으며 또 동시에 적에 대해서 불의의 것으로 되었던 그러한 전투 행동의 수법 형식 및 방법들을 매번 발견할 줄 알았다.

군사 리론가로서의 쓰딸린 동지의 빛나는 공적은 그가 공세적 방어와 반격에 관한 문제들을 강구한 • 그것이다. 이 문제들에 대한 쓰딸린적 리론과 이 리론의 적용에 있어서의 쓰딸린적 기술이 위대한 조국 전쟁시의 쏘베트 무력의 승리에 대해서 가지는 의의를 다시 평가하기는 곤난하다.

이 의의를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공세적 방어와 반격 수행의 훌륭한 표본으로 된 모쓰크바 쓰딸린그라드 및 꾸르쓰크 전투들이 전쟁에서 어떠한 역할을 놀았는가 하는 것을 회상하면 충분하다.

쓰딸린 동지가 창설한 군사 기술은 전투에서의 각종 군대의 호상 작용과 또한 대포 탱크 및 비행기의 집중적 적용을 기초로한 작전의 문제와 같은 가장 중요한 문제들의 해결로서도 역시 탁월한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현대 공격 작전과 방어 작전의 모든 기본 문제들을 새로이 제기하고 해결하였다. 이것은 적에 대한 쏘베트 무력의 가장 중요한 우월성의 하나이었다.

이렇듯 쓰딸린 동지의 군사적 천재의 덕택으로 우리의 력량은 경제적 및 사상적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군사적 관계에 있어서도 독일—팟쇼 침략자들의 세력보다 우월하였다.

이 때문에 우리 인민은 쏘베트 군사과학의 창전자 쓰딸린 동지를 가장 위대한 사령관으로 확신하였던 것이다.

四、

쓰딸린 동지가 쏘베트 인민의 수령으로, 우리 국가의 령수로서, 또는 쏘베트 무력의 조직자 및 지도자로서 연구하는 문제들의 범위는 놀랠만큼 광범하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군대의 생활과 련결된 문제 중에서 쓰딸린 동지의 주의를 끌지 않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이다.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에 있어 쓰딸린 동지의

비상히 다양한 활동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무력의 금후 건설과 우리 군사 간부들의 교양에 대해서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며 또한 필요한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그의 천재적 계획을 실현함에 있어서 탁월한 기술을 표시한 새로운 우수한 쏘베트 사령관 간부들을 선발 교양하고 등용하였다. 그는 몸소 륙군대장 해군대장 및 다수의 장교들을 알아가지고 우리 군사 간부들을 연구하며 선발한다.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에 전략、문제、작전 문제들을 연구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군대들의 전투 경험을 깊이 연구하였다. 그는 자주 전선 일군들 즉 장교 및 대장들과 전투 및 작전 수행의 새 수법들에 관해서 협의하고 그들의 경험을 참작하여 가지고 공격과 방어에 있어서의 우리 군대의 행동 전술을 작성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고급 군관은 물론 련대장 대대장 및 기타 륙해군 장교들을 회의에 초대하였다.

전 전쟁을 통하여 쏘베트 전사들은 항상 자기 수령의 큰 배려를 느끼였다. 쓰딸린 동지는 사람들을 잘 돌보아주며, 누구이든 귀중히 할 것을 사령관들에게 요구하였으며 또 그는 책략을 광범히 또 대담하게 적용하며, 원쑤를 압박 또는 섬멸하기 위하여 기계를 리용하며, 요새(要塞)에 대한 준비 없는 공격 실시를 용허하지 말며, 아직 정찰이 실시되지 않은 적에게 군대를 보내지 말것을 사령관들에게 가르치었다.

쓰딸린 동지는 항상 병사들과 해병들의 생활에 큰 주의를 돌리었다. 그는 급식(給食)의 기준에도, 피복의 질에도, 병사가 짊어지는 무기의 중량에도 관심을 돌리었다. 자기의 명령들 가운데서 쓰딸린 동지는 병사들의 급식과 그들의 생활에 대한 배려가 사령관들의 신성한 의무이라는 것과 그들은 규정된 기준에 의하여 정해진 모든 식량이 병사들에까지 달하도록 량 질로 잘 만들어지고 따뜻한 음식이 참호(塹壕), 영구보루, 엄폐부(掩蔽部) 및 토굴속에 있는 병사들에게 제때에 공급되도록 가장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을 루차 지적하였다. 군대들의 물질적 보장 문제에 대한 쓰딸린 동지의 일상적 주의의 덕택으로 우리 전사들은 전선에서 잘 먹었으며, 편하게 지냈으며, 따뜻하게 입고 있었다.

쏘베트 군대의 정치 교양에 대한 쓰딸린 동지의 배려는 아주 비상하였다. 쓰딸린 동지의 지시에 지도되면서 불쉐위끼당은 쏘베트 전사들에게 전쟁의 의의와 목적을 해석하고 그들에게 애국적 의무에 대한 고상한 의식, 헌신적 용맹성, 과감성을 교양주었으며, 그들에게 대담성과 규률을 가르

처 주었다。

쓰딸린 동지의 백방의 배려에 대해서 쓰베트 륙군과 해군 전사들은 자기 수령과 사령관에 대한 무한한 충성의 표시로써 보답하였다。 쓰베트 전사들에 대해서 쓰딸린의 이름은 우리 인민의 위대성과 그 영웅성의 상징으로 되었다。 그들은 『쓰딸린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가지고 전투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무기의 각종 형태로의 전투적 사용, 그 효과에 관심을 돌리고 필요한 실지적 결론을 지었다。 一九四一년 八월에 즉 쓰몰렌쓰크 근방에서 치렬한 전투가 진행되었을 때 전선의 한 구역에서는 당시 아직 적게 보급된 우리의 로케트식 박격포(「까쮸샤」)사격은 자신 만만하게 공격해 온 적의 一개 대대를 섬멸하였다。 로케트식 박격포는 단시일에 우리 군대에서 가장 널리 보급되었다。

전쟁시기에 쓰딸린 동지는 새로운 더 완전한 종류의 병기들을 특히 포 땅크 및 비행기들을 만들며 사용하는 문제들을 면밀히 연구하였다。 그는 학자, 설계가, 기업소 지도자들과 협의하고서 그들 앞에 새 종류의 무기를 제조할 데 대한 구체적 과업을 제기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로동자 기사 및 기수들을 창조적 로력에로 고무하면서 산업에 있어서의 혁신자들과 또한 생산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을 백방으로 지지하였다。

쓰딸린 동지의 지시에 따라 또는 그의 지도하에서 그의 가장 친근하고 충실한 전우들과 전체 볼쉐위끼당의 노력에 의하여 전선의 요구를 보장하는데로 전체 인민 경제를 재편성하는 일대 경제-조직 사업이 실현되었다。 결과에 우리 나라는 단기간 내에 순조로운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리고 장성한 군사경제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것은 전선과 후방의 요구를 만족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후비를 창설하는 가능성을 주었다。 볼쉐위끼당은 쓰베트 인민의 전체 로력을 결속시키고 공동 목적에로 돌리었으며 쓰베트 인민의 모든 힘과 재부(財富)를 원쑤를 분쇄하는 사업에 종속시키었다。 전쟁기간에 볼쉐위끼당은 더욱 더 인민과 밀접하게 되었으며 광범한 근로대중과 더욱 긴밀히 련결되었다。

五、

위대한 조국 전쟁에 있어서 우리 승리의 전세계사적 의의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주의의 사업이 국제반동의 기대와는 반대로 비상히 공고화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다。

제二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일련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아가고 레닌과 쓰딸린이 가르친 길에 서게 되었다。 이미 우리 당 제十七차 대회에서 쓰딸린 동지는 침략자들에게 경고하면서 만약 그들이 제二차 세계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 결과는 약간의 부르쥬아 정부들의 묘혈(墓穴)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은 바로 이렇게 되고 말았다。

쓰베트 인민과 그 군대의 사심없는 지원은 중앙 및 동남구라파 제국가의 근로자들에게 팟쇼적 예속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지주와 자본가들의 압박으로부터도 해방되고 새 길에 즉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확고히 들어서는 것을 도와주었다。 파란 체코슬로바끼야, 항가리, 불가리야, 루마니야 및 알바니야 인민들은 자기의 공산당 또는 로동당의 지도하에서 성공리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모택동을 령수로 하는 공산당의 지도하에서 외국 착취자들과 자국 착취자들의 세기적 지배를 종말지은 위대한 중국인민은 혁명적 — 민주주의적 길에 들어섰다。 중국 인민의 력사적 승리는 레닌 — 쓰딸린의 학설 없이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승리 없이는, 파시스트 련합에 대한 쓰련의 승리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민주주의 진영의 선두에 서 있는 쓰베트 동맹은 단호히 또 완강하게 평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一九四六년 二월 九일 모쓰크바시 쓰딸린구 선거자들의 선거전 회합에서 쓰딸린 동지가 선포한 우리 사회주의 경제의 부흥 및 금후 발전에 대한 푸로그람, 전후 인민경제 五개년계획,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자연을 개조하는 목적을 가진 초전림지대의 창설계획 및 쓰딸린 동지의 제의에 의하여 당과 정부가 계획한 기타 다수의 중요 대책들은 평화에 대한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창조적 로력에 대한 쓰베트 인민의 진정한 지향을 말해주는 것이다。

쓰베트 동맹의 주위에는 수많은 평화 지지자들이 결속되어 있다。 평화 지지자들의 전선은 새로 나타난 세계 제패 욕망자들을 제지할 수 있는 력량으로 장성하였다。

파리와 쁘라그에서 열린 전 세계 평화 옹호자 대회와 다수 국가들에서 개최된 평화대회는 대중 속에서의 평화사상의 영향과 우리 국가의 평화정책에 대한 각국 근로자들의 신임이 얼마나 큰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새 전쟁의 방화자들은 자기들의 음모를 실현함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쓰딸린 동지가 말한 바와 같이 인민들의 기억에는 지난 전쟁의 공포가 너무나 생생하며 평화를 지지하는 력량이 너무나 강대하기 때문이다。

전체 진보적 인류의 명절인 오늘 우리는 충심으로부터 또 열렬한 감사를 가지고 또한번 말한다 —

쓰딸린의 천재, 그의 강철같은 의지가 쏘베트 인민에게 비상히 짧은 력사적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장해 주었으며 一九四一년 六월 二十二일에 닥쳐든 곤난한 시련에 조국을 대비(對備)시킨 그러한 경제발전을 보장해 주었다는 것을。

지난 전쟁에 있어서 쓰딸린의 천재 그의 강철같은 의지는 원쑤의 분쇄를 보장하고 쏘베트 인민을 팟쇼적 노예화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였다。

쓰딸린의 천재 그의 강철같은 의지는 오늘날 공산주의 건설에 있어서의 쏘베트 인민의 성공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 쏘베트 동맹이 령도하는 전체 민주주의 진영에게 평화 사업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투쟁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쓰딸린은 전체 진보적 인류의 기치이며, 자랑이며, 희망이다。

우리의 친근한, 그리고 사랑하는 수령이며 우리의 스승인 위대한 쓰딸린의 만수 무강 만세!

(一九四九년十二월二十一일부「쁘라우다」지에서)

우 철 역

一九五〇년一월二十五일 인쇄
一九五〇년一월三十一일 발행

「근로자」제二호
〔정가 三十원〕

책임주필 기 석 복

인쇄인 조 훈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발행소 로 동 신 문 사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잡지편집국 전화 국장실 二五七六번
편집실 三八〇二—五번

ㄱ—15784